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중심으로 -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서 양 사 전 공

박 효 근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준철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중심으로 -



2012년

HANSUNG
UNIVERSITY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서 양 사 전 공

박 효 근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박준철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중심으로 -

French Reformation and Huguenot Women

- A study on Charlotte Arbaleste -

위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서 양 사 전 공

박 효 근

박효근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김 영 한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황 혜 성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이 영 림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황 대 현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박 준 철 _____ 인

국 문 초 록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서양사 전공

박 효 근

이 논문은 여성이 종교개혁을 체험한 방식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Charlotte Arbaleste, 1550-1606)라는 16세기 프랑스 위그노 여성의 경우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아르발레스트는 저명한 위그노 정치가이자 사상가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의 아내로, 1584년에서 1606년까지 남편 모르네의 삶을 기록한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Mémoires de Madame de Mornay*)을 남겼다. 일반적으로 이 회고록은 모르네에 대한 연구나 16세기 프랑스의 내전 상황을 해석하기 위한 사료로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회고록을 종교개혁 시기 여성이 겪은 다양한 경험 중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 사이의 역동을 추론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자 한다.

종교개혁은 원론적으로 볼 때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신도들에게 영적 자유와 평등을 복원하기 위한 혁명적 사건이었다. 따라서 종교개혁 초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구원의 대상으로 해석되어 여성의 종교적, 공적 행동이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은 여전히 전통적이었고, 여성의 본분이란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아가 개혁운동 이후 혼란스

러워진 사회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자 부권주의적 제도가 확충되고 가부장제가 강화되면서,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여성들은 경계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때로 위계질서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종교개혁의 결과 내전과 학살이라는 참담한 역사적 경험까지 치러야 했던 프랑스의 경우,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접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겠다는 각오를 지녀야만 비로소 개종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위그노 여성들 중 일부는 종교개혁가들이 요구한 순종적 여성의 테두리를 넘어서 결단력과 행동을 갖춘 능동적 태도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드문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동참하고자 키운 주체적 태도 때문에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의 경험 사이에는 이율배반적인 ‘역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위그노로 개종한 여성들이 이런 역설을 어떻게 극복하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갔는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 출신인 아르발레스트는 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통해 독자적으로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후 아르발레스트는 저명한 위그노 정치가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아내로 살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는 여성의 소임에 매진하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후대에 계승하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동시에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와 함께 프랑스 종교전쟁의 정치적 중대사를 의논했을 뿐 아니라 단단히 구축된 여성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발판으로 위그노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가정을 종교전쟁의 선봉에 선 전위부대로 조직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경우는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이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 그리고 사회참여라는 서로 다른 세 차원을 어떻게 종합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논문의 II장에서는 루터와 칼뱅 등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의 여성관과 가정관이 지닌 가부장적 속성을 고찰하고, 종교개혁이 제도화되고 점차 보수화되면서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입지가 축소되었던 상황에 대해 분석하겠다. III장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강력히 탄압했던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여성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능동적인 태도와 시각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논증하면서, 위그노 여성들이 직면해야 했던 역설에 대해 추론해보고자 한다. 논문의 IV장과 V장에서는 II장에서 논증한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III장에서 분석한 위그노 여성의 위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아르발레스트라는 위그노 여성의 경험을 통해 미시적으로 추적하고 재구성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일부 위그노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삶을 넘어서 자신의 가정을 현실참여의 장소로 만들었던 능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이 규명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지침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여성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던 역사적 주체였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아르발레스트가 종교개혁을 체험한 방식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자, 교회의 지침이나 사상가들의 논리를 통해서만 해석되던 종교개혁 시기 가정의 모습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어】 프랑스 종교개혁, 위그노, 여성, 가정,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회고록,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 역설, 종교적 정체성.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종교개혁 시대의 여성과 가정	12
제 1 절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그 사회적 적용	12
제 2 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종교개혁 진영의 대응	27
제 3 장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의 위상	34
제 1 절 위그노, 이단과 반역의 굴레	34
제 2 절 선민의식과 순교자 정서의 확립	42
제 3 절 역설의 극복: 위그노 여성의 과제	56
제 4 장 아르발레스트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 발전, 계승	66
제 1 절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66
제 2 절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과 위그노 정체성의 확립 (1550-1576)	78
제 3 절 몽토방 ‘가발논쟁’과 주체성의 구현 (1576-1585)	89
제 4 절 자녀교육과 종교적 정체성의 계승 (1585-1606)	103
제 5 장 아르발레스트의 가정: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가정의 역할	116
제 1 절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가정	116
제 2 절 동지적 부부애의 실천 : 퐁텐블로 논쟁 (1600)	131
제 6 장 결론	144

【참고문헌】	150
ABSTRACT	168



【 표 목 차 】

[표 1] 1564년-1572년 간 파리에서 이단으로 체포된 이들의 성별, 신분, 직업분포	48
[표 2]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전체 구성	72
[표 3]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분석	119



제 1 장 서 론

‘학살’과 ‘관용’은 프랑스 종교개혁을 정의하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다. 종교개혁 시대 프랑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 진영은 ‘위그노’라 불리던 프랑스 칼뱅파를 강력하게 탄압했고, 위그노 세력은 잔혹한 학살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에 맞섰다. 전쟁으로 얼룩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6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하나의 정치단위 속에서 공존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유럽 종교개혁 사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경험이었고 ‘관용’이라는 정신을 최초로 실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학살의 시대에서 관용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특히 국가의 심장인 파리에 프로테스탄트로 산다는 것은 시련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파리의 위그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난관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운명이었다. 만일 이 운명을 상대해야 하는 사람이 여성이었다면, 그 여성은 종교개혁 시기를 통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어떤 경험이었는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종교개혁과 여성과의 관계에 천착했던 학자들은 종교개혁과 이에 입각한 여러 정책이 여성의 삶에 긍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해석을 대표하는 베인튼(Roland H. Bainton)¹⁾과 오즈먼트(Steven Ozment)²⁾는 주로 다음 세 가지 현상에 주목했다. 첫째, 종교개혁을 통해 여성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 둘째, 종교개혁이 중세적 결혼혐오(misogamy)를 극복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결혼과 가정을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 보면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1) 베인튼은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역할을 소개하는 선구적 저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표 저작은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 Germany and Italy*, vol. 1 (Minneapolis: Academic Renewal Press, 1971);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 France and England*, vol. 2 (Minneapolis: Academic Renewal Press, 1973).

2) 오즈먼트는 종교개혁 시대 가정을 가부장적 사랑과 훈육에 기반을 둔 집단이라 해석하였고, 가족사와 여성사 분야에 많은 연구 성과를 남겼다. 대표 저작은 Steven Ozment, *When Fathers Ruled : Family Life in Reformation Europ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3).

첫 번째로, 종교개혁은 여성 교육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존재했지만, 귀족여성이 아닌 모든 여성을 교육 대상으로 본 것은 종교개혁가들의 공로였다. 성경을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여겼던 종교개혁 진영에서는 신분의 고하와 성별을 막론하고 최소한 성경을 읽을 정도의 교육을 필요로 했다. 그 결과 지위가 낮은 여성들에게도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이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³⁾

두 번째로 중세 시대 결혼 혐오감정을 극복하고 결혼과 가정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며 나아가 찬양하는 시각이 등장했다는 점은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발전적인 변화라고 평가된다.⁴⁾ 오즈먼트⁵⁾와 더글라스⁶⁾ 등은 루터와 칼뱅의 저작이나 종교개혁이 파급된 도시에서 제정한 결혼법령 속에 담긴 새로운 신학을 분석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 결혼은 바람직하고 인간 사회에 유익한 제도로 다시 복원되었다고 지적했다. 종교적 성취를 위해 독신을 지키는 삶을 이상적으로 보았던 가톨릭 전통에서 결혼은 외형적으로는 ‘성사’라 신성시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성적 유혹을 견디기 힘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일종의 ‘차악(lesser evil)’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수도원적 관점을 극복하고 결혼은 신이 만든 제도로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결혼의 의미를 격상시켰다.⁷⁾

3) Jonathan W. Zophy, “We Must Have the Dear Ladies : Martin Luther and Women,” *Piastas et Societas : New Trends in Reformation Social History*, eds. by Kyle C. Sessions and Phillip N. Bebb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ress, 1985), pp. 147-148.

4)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초기 연구자들 중 이런 주장을 펼친 대표적인 학자로 라자렛(William Lazareth), 암(Elizabeth Ahme) 등을 들 수 있다. Merry E. Wiesner, “Luther and Women: The Death of Two Marys,” *Discipline of Faith : Studies in Religion, Politics and Patriarchy*, eds. by James Obelkevich, Raphael Samuel and Lyndal Roper (London: Routledge, 1987), p. 295.

5) Steven Ozment, *When Fathers Ruled*, pp. 1-49.

6) Jane Dempsey Douglass, “Women and the Continental Reformation,” *Religion and Sexism*, ed. by Rosemary Radford Rueth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pp. 293-302.

7) 심지어 칼슈타트(Andreas Karlstadt) 등 일부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이며 따라서 결혼한 사람만이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칼슈타트는 종교개혁가 중 성직자의 독신 개념에 대해 가장 먼저 공격한 인물이며 대표적 저서로 *De Coelibatu* (1521)가 있다. 칼슈타트의 성직자 결혼에 대한 개념은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0), pp. 383-384.

종교개혁이 여성의 삶에 공헌했다는 세 번째 논점은, 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사회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고,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을 신이 내린 신성한 임무로 여겼다는 점이다. 사실 가정이라는 공간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본 중세 시대에는 학문적 담론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결혼이 재평가되고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가정생활과 부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본 가정이란 어떤 공간이었을까? 종교개혁 시대 가족생활을 연구한 오즈먼트에 따르면, 종교개혁 시대 가정이란 책임감 있는 가부장과 기꺼이 순종하는 부인이 함께 모여 자식들을 사회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도록 교육시키는 곳이며, 동시에 부모자식 간의 사랑, 배우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이 존재하는 장소였다.⁸⁾ 이때 가정의 주인은 가부장이지만, 동시에 가부장을 보조하는 아내의 자리 역시 일종의 ‘소명’이라 여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가들이 보기에 아내란 가부장을 보조하고 그에 순종하는 2인자였지만, 아내의 소임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인 만큼 함부로 취급되거나 무시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당시 대다수 여성의 필연적 모습을 긍정하면서 여성들에게 현실적인 롤 모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아내라는 역할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성과 가정에 일종의 품격을 제공하게 되었다.⁹⁾ 이 자체만으로도 종교개혁이 경제나 사회보다 사실 가정에 더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베인튼의 말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¹⁰⁾

그러나 신의 소명이 깃든 ‘성스러운 가족(Holy Household)’이라는 프로테스탄트적 개념은 로퍼(Lyndal Roper)¹¹⁾나 비즈너(Merry Wiesner)¹²⁾

8) Steven Ozment, *When Fathers Ruled*, p. 177.

9) Janine Garrisson, *Les Protestants au XVIe siècle* (Paris: Fayard, 1988), pp. 105-106.

10) Roland Bainton, *Woman of the Reformation: Germany and Italy*, vol. 1, p. 9.

11) 로퍼는 종교개혁 시대 가족을 철저하게 가부장제적 시각 아래 분석한 선구적 학자이다. 대표 저작은 Lydal Roper, *The Holy Household: Women and Morals in Reformation Augsburg* (Oxford: Clarendon Press, 1989).

12) 비즈너는 종교개혁 시기 가족에 대해 방대한 저술을 남긴 가장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이다. 대표 저작은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8).

등의 학자들로부터 신랄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종교개혁가들이 결혼과 가정을 강조한 결과 오히려 가부장제가 확대되고 여성의 삶은 이에 종속된 상태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퍼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가정의 가치를 중시한 것은 남성적 질서에 여성을 일방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보수적 사고방식의 소산이며, 가정을 신성시한 결과 여성은 모든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신이 정해 준 유일하게 정당한 길인 가부장에 대한 순종만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퍼는 종교개혁 진영이 결혼 법령과 규율화 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의 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며 가부장제 확대에 일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¹³⁾

종교개혁 진영의 가정에 대한 강조를 가부장제와 연결시켜 해석해보면,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나 결혼에 대한 찬양 역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 실제로 비즈너는 종교개혁 시대 여성교육이 간단한 읽기 외에는 바느질이나 종교교육 정도만 허락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 요청되었던 것은 가부장의 권위에 순응하는 아내와 온순한 신도가 되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¹⁴⁾ 또한 데이비스(N. Z. Davis)는 종교개혁가들이 중세 시대 여성에게도 용인되었던 종교적 삶의 양식(수녀원과 성녀 등)을 차단해버린 결과 여성이 가정 외 장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을 빼앗았다고 분석했다.¹⁵⁾ 결국 종교개혁 진영이 결혼과 가정을 중시하고 강조한 이유는, 여성의 삶과 경험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의 확대를 통해 종교개혁 이후 혼란스러워진 사회에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들의 결론이다. 종교개혁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종교개혁가들은 여성과 가정에 대한 과거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다기보다

13) Lydal Roper, *The Holy Household*, pp. 7-55.

14) Merry Wiesner, “Nuns, Wives and Mothers: Women and the Reformation in Germany,” *Women in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Europe: Public and Private Worlds*, ed. by Sherrin Marshal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9), p. 15. 또한 스트라우스(Gerald Strauss)는 독일 종교개혁 진영은 농민전쟁 이후 일반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더 이상 설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Gerald Strauss, “Lutheranism and Literacy: A Reassessment,” *Religion and Society in Early Modern Europe*, ed. by Kaspar von Greyerz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4), pp. 45-55.

15) Natalie Zemon Davis, “City Women and Religious Change,”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5), pp. 93-95.

이를 ‘지속’했을 뿐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¹⁶⁾

하지만 종교개혁을 가부장제를 확대시키고 여성을 소외시킨, 여성의 입장에서 그다지 발전적이지 못한 현상으로 결론짓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일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여성과 가정의 주체적 역량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종교개혁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문제점일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선택하든 여성들은 종교개혁의 시혜를 받은 수혜자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에 의해 가정에 예속된 피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양자 중 어떤 모습으로 여성을 이해하든 간에 여성은 종교개혁이라는 장(場)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주체라기보다는 종교개혁가들이나 교회, 혹은 정치권의 입장에 휘둘린 수동적 객체로 남게 된다.

따라서 최근 종교개혁시대의 여성사 연구자들은 종교개혁이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을 배제하고, 그 시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실천 속에서 종교개혁 사상의 내용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변형해 수용했다고 해석하기 시작했다.¹⁷⁾ 최근 종교개혁시대의 여성사 연구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을 그 자체로 복원하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¹⁸⁾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의 스펙트럼을 따라가 보면,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이 직면한 일종의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 종교개혁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의 핵심인 이신칭의론이나 만인사제주의는 여성들에게 일종의 영적 평등으로 해석되었고, 따라서 여성의 종교적, 공적 행동

16) 박준철, 『변화와 지속: 종교개혁이 가정과 여성에 미친 영향』, 한국 서양사학회 編, 『서양의 가족과 성』 (서울: 당대, 2003), pp. 85-92.

17) Mack Philip Holt,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Recent Trends and Future Agenda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37, no.1 (Fall, 2003), pp. 135-136 ; Barbara B. Diefendorf, “France,” *Reformation and Early Modern Europe: A Guide to Research*, ed. by David M. Whitford (Kirk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8), p. 207.

18) 여성의 경험을 복원하자는 연구경향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킹(Margaret L. King)과 라빌(Albert Rabl Jr.)을 대표 편집자로 내세운 《근대 초 유럽의 다른 목소리》(The Other Voice in Early Modern Europe) 시리즈를 들 수 있다. 1996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60권이 발간된 이 시리즈는 근대 초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Henricus Cornelius Agrippa, Juan Luis Vives 등 다수)이나 근대 초 여성들의 다양한 저작(Katharina Zell, Louise Labé 등 다수)을 원문과 영역본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목록과 해설에 대해서는 다음 인터넷 페이지를 참조할 것. <http://www.press.uchicago.edu/ucp/books/series/OVIEME.html>

이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¹⁹⁾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견지하고 있던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의 본분은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성이 아무리 프로테스탄트 신념에 충실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했고, 경계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종교개혁 시기 초기의 혁명적 열광이 사라지고 제도화되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런 경향은 점점 확고해진다. 한때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꿈꾸며 성상파괴운동에 참여하고 수녀원에서 뛰쳐나왔던 여성들은 이제 ‘정숙하며 침묵하고 복종’²⁰⁾하는 다소곳한 아내의 역할에 만족하면서 ‘아이, 부엌, 교회’²¹⁾의 영역에만 머무르라고 강요받게 되었다.

하지만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저 위계질서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교권과 정치권이 결탁해 종교개혁이 진행된 지역의 여성이라면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가장의 주장에 순순히 복종하는 것이 올바른 프로테스탄트의 삶이라고 믿고 살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던 곳에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접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로 뒤바꾸겠다는 각오를 지녀야만 비로소 개종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속해있던 가정과 사회의 기본 질서를 넘어서는 결단력과 행동력을 요구하게 된다.

종교개혁의 결과 내전과 학살이라는 참담한 역사적 경험까지 치러야 했던 프랑스 종교개혁²²⁾의 경우가 바로 이러했다. 16세기 당시 유럽 어느 지

19) Sherrin Wyntjes, “Women in the Reformation Era,”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by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pp. 167-168.

20) Suzanne Hull, *Chaste, Silent and Obedient: English Books for Women, 1475-1640* (San Marino: Huntington Library, 1982).

21) 독일어로 아이(Kinder), 부엌(Küche), 그리고 교회(Kirche)를 뜻하는 3K는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바람직한 역할과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독일어권에서 널리 활용된 개념이다. Susan C. Karant-Nunn, “Kinder, Küche, Kirche: Social Ideology in the Sermons of Johannes Mathesius,” *Germania Illustrata: Essays on Early Modern Germany presented to Gerald Strauss*, eds. by Andrew Cooper Fix and Susan C. Karant-Nunn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2), pp. 17-42.

22) 16세기 프랑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랫동안 프랑스에 대문자 R로 시작하는 종교개혁(Reformation, Réforme)이 존재했는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이는 종종 정파적 관점에 따라 무시되

역보다도 국가의 통제력이 강했던 프랑스는 ‘가톨릭의 장자’라는 별칭답게 종교개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특히 국가권력의 중심지인 파리에서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종교적 이단일 뿐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극심한 박해를 가했다. 하지만 국가적 탄압 속에서도 파리에서는 칼뱅과 신앙을 받아들인 위그노 공동체가 비밀리에 조직, 운영되고 있었다. 파리에서, 그것도 여성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 내부의 갈등과 사회적 압박은 물론 목숨까지 걸어야 할 정도로 극단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이었다.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본 수동적 여성은 결코 지닐 수 없는 행동력과 결단력이 없다면 위그노 신자가 될 수 없는 상황, 즉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필자는 이 상황을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역설(paradox)’이라 규정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위그노 여성들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역설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Charlotte Arbaleste, 1548-1606)²³⁾라는 한 프랑스 여성의 삶에

거나 미화되어왔다.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독일이나 제네바와 같은 방식으로 정착되지 못했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로 남았기 때문에, 16세기 칼뱅파가 주도한 프랑스의 개혁운동은 왕권을 둘러싼 정파적 갈등과 내전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통해 파악되었으며 그 종교적 속성은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이후 벌어진 종교전쟁의 ‘종교적’ 속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영미권에서는 이런 연구경향이 대세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 주제에 대해 대표적인 프랑스 종교전쟁 연구자인 홀트(Mack P. Holt)와 헬러(Henry Heller)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당 논쟁에 대해서는 Susan Rosa and Dale Van Kley, “Religion and the Historical Discipline: A Reply to Mack Holt and Henry Heller,”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1, no. 4 (Autumn, 1998), pp. 611-629. 또한 최근 프랑스 역사가들은 이에 반발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는 ‘복고적’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프랑스 사학자들의 종교전쟁 연구에 대해서는 Arlette Jouanna, Jacqueline Boucher, Dominique Biloghi et Guy Le Thiec, *Histoire et dictionnaire des guerres de religion* (Paris: Robert Laffont, 1998).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을 16세기 중반 프랑스에 칼뱅파 사상이 도입된 이후 칼뱅과 교회가 건설되고 위그노 공동체가 형성된 일련의 역사적 흐름을 규정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또한 ‘프랑스 종교전쟁(French wars of religion, les guerres de religion)’이란 용어는 프랑스에서 1562년 촉발되어 짧게는 1593년, 길게는 1629년까지 반복된 가톨릭 세력과 위그노 진영과의 내전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 23) 일반적으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마담 드 모르네(Mme de Mornay), 즉 모르네 부인이라 불린다. 그러나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본인은 서명을 할 때 반드시 자신의 처녀성인 아르발레스트(Arbaleste)를 사용했다. 이는 16세기 프랑스 귀족여성들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아무리 여성이라도 귀족일 경우 자신의 출신가문이 결혼 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을 모르네 부인이라 칭할 때도 마담(Madame)이 아닌 마드모아젤(Mademoiselle)이라 표기했는데, 16세기 ‘마담’은 일종의 경칭으로, 고위귀족이나 왕족의 기혼여성들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한 번도 자신을 Mme de Mornay라고

주목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대표적인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의 아내로, 1584년에서 1606년까지 남편 모르네의 삶을 기록한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Mémoires de Madame de Mornay*)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기록은 16세기 말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남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삶을 연구하거나, 프랑스의 종교전쟁에 얽힌 복잡한 정치사의 뒷면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막상 회고록의 저자 아르발레스트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²⁴⁾

중요한 사료의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까닭은 직설적으로 말해 그녀가 공식적 직함 없이 가정을 지키던 주부였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시기 가정의 가부장적 속성을 비판하는 연구자들은 은연중에 가정주부를 사회와 유리되어 정체된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던 가정주부라는 역할에 위그노 경험을 통해 얻은 행동력과 결단력을 결합시켰다. 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아르발레스트를 능동적으로 삶에 투신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정은 어떤 신학적 담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필자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분석하면서 지금까지 학술적 주제로 그다지 거론되지 못했던 가정 속의 여성, 즉 공식적인 사회활동 없이 어머니와 아내로 살았던 여성들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체험했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교회의 지침이나 사상가들의 논리를 통해서만 해석되던 가정을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의 터전으로 보고 종교개혁 시대 가정 안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실천을 발견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문의 2장에서는 먼저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

칭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라는 호칭을 사용할 것이다.

24) 본 논문의 핵심 사료인 이 회고록의 판본과 출판과정, 그리고 연구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4장 1절을 참조할 것.

과 가정관이 지닌 보수적 속성과 그 한계에 대해 정리할 것이다. 종교개혁 진영은 수동적인 여성과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정의 모습을 이상으로 삼았고, 사회규율화 과정이 진행되던 16세기 후반 이래 위계질서를 강조한 부권주의적 이상은 법령과 교회제도를 통해 민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다. 그 결과 개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공연히 표방했던 여성들은 주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3장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확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한 뒤, 강력한 가톨릭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왕국의 수도 파리에서 조직되었던 위그노 공동체의 독특한 경험을 소개할 것이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종교개혁은 지역 단위로 진행된 독일이나 스위스 종교개혁과는 달리 국가적 탄압에 맞서 종교적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개개인에 의지해 성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위그노 여성들은 남다른 신학적 소양과 적극적인 행동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프랑스 종교개혁에 큰 몫을 했던 이 여성들 역시 순종과 침묵이라는 교회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키운 강력한 신념과 의지가 오히려 종교개혁 진영에서 비판당하는 역설, 이를 아르발레스트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점이 논문 후반부의 핵심 논지가 될 것이다. 4장에서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구성과 연구사 경향을 살펴본 뒤, 아르발레스트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한 계기와 발전시킨 양상을 고찰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아르발레스트라는 한 위그노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체험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 시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두 달 여를 홀로 방황했던 시련 속에서 강력한 프로테스탄트 정체성을 정립하였다. 모르네와의 결혼 이후 아르발레스트는 험난한 프랑스의 정국 속에서 각종 고난과 갈등을 만나기도 하고, 위그노의 수장 앙리 4세의 개종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사회적, 개인적 좌절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여성의 인생이라는 지난한 순례의 도상에서 만난 난관을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극복해나갔다.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형성한 강력한 결단력

과 적극적 행동 의지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직접 발현되었고 그 결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은 프랑스 종교전쟁의 선봉 역할을 맡게 되었다. 5장에서는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분석을 통해 가정에만 머물던 아르발레스트 역시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구체적 역할을 맡았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이들 부부가 서로를 위그노 대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역자로 보았다는 점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가정은 사적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위그노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다지는 공적 연결 고리의 기능을 담당했고, 결과적으로 부단한 현실참여의 장소가 되었음을 퐁텐블로 논쟁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추론해보겠다. 종교개혁가들은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삶이 여성들의 유일한 소명이라 가르쳤지만, 아르발레스트를 비롯,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간 일부 위그노 여성들은 이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토대로 여성과 종교개혁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했던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의문이 생긴다. 혹시 아르발레스트가 만든 가정은 그녀가 종교개혁 최전선에서 활동한 모르네라는 특별한 남성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었을까? 종교적 식견을 갖추지 못했거나 공적 세계의 모습을 미처 알지 못했던 평범한 위그노 여성이라면 과연 제도권 교회의 명령을 재해석하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었을까?

프랑스 종교전쟁 이후 위그노가 처한 상황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간직하고 있다. 프랑스 종교개혁은 학살과 내전을 거쳐 결국 가톨릭과 애매하게 공존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앙리 4세의 정치적 유연성이 필요 없어진 17세기에 이르면, 정치적 소수파였던 위그노 집단은 점차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1685년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모든 길을 끊어버린 이후,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산다는 것은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에서 완전히 배제됨을 의미했다. 결국 프랑스는 굳건한 가톨릭 국가로 남았고,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운동은 실패한 혁명으로 끝나버렸다고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퐁텐블로 칙령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건설과 종교적 의례, 집

회, 설교, 교육, 결혼과 등록 등 위그노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금지한 이후에도, 프랑스 칼뱅파는 나름의 생명력을 유지해나갔다. 17세기 후반 데제르(désert)²⁵⁾라고 불렸던 프랑스 칼뱅파 신도들은 다시 시작된 탄압에 맞서 비밀리에 종교집회를 열고 교회를 재건했다.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지만, 1715년 이후 앙투안 쿠르(Antoine Court, 1695-1760)라는 걸출한 인물을 중심으로 프랑스 전역에 걸쳐 교회 조직을 개편하고 심지어 여덟 차례에 걸쳐 전국 시노드까지 개최하는 등 프랑스 사회에서 여전히 그 존재를 이어나갔다. 프랑스 칼뱅파는 이후 탄압에 대한 저항과 굳건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역사적 기억을 창출하며 프랑스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²⁶⁾

프랑스 위그노들이 여전히 살아남아 다시 조직화를 할 수 있던 기반은 바로 가정이었다. 공개적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그노들은 가정예배를 통해 자신의 위그노적 정체성을 확인했고, 위그노 신앙을 지킨 여성들은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원칙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교육시켰다. 결국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그 자체가 탄생하고 지속, 유지되는 데 있어 가정은 결정적인 공간이었던 것이다. 결론에서는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가정의 역할과 그 역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사료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없이 많은 다른 ‘아르발레스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

25) 1685년 퐁텐블로 칙령 이후 위그노들은 스스로를 광야에서 방랑하던 히브리인들에 견주어 ‘데제르(désert)’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데제르’란 단어는 광야 내지는 인적이 드물고 쓸쓸한 황무지를 뜻한다. 낭트칙령 폐지 이후 개혁 신앙의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데제르들은 초기에는 비밀리에 계획 없이 무작정 모여 개별적으로 위그노 예배를 개최했고, 1685년부터 1715년까지의 이런 상황을 ‘désert improvisé’의 시대라 부른다. 1715년 이후 데제르들은 앙투안 쿠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교회 조직을 재건하고 비밀리에 전국 시노드까지 집행하는 조직적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공했으며, 이런 경향이 계속된 1715년부터 1760년까지를 ‘désert discipliné’의 시대라 불렀다. 1760년부터 1787년까지는 ‘두 번째 데제르’의 시기라 불리는데, 이 당시 프랑스에서 위그노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낮아지고 어느 정도 관용적 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프랑스 데제르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거나 교회조직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시민권 등록(état civil)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기에 어려움은 여전히 많았다. 프랑스에서 칼뱅파 신도들이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회복한 것은 1787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통해서이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aris: Belin, 2006), pp. 224-274.

26) Pierre Nora, et al, *Les Lieux de mémoire, tome 3 : Les France- Traditions*,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4 : 프랑스들 2』 (파주: 나남, 2010), pp. 117-118.

제 2 장 종교개혁 시대의 여성과 가정

제 1 절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그 사회적 적용

이브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의와 지혜와 행복 속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브는 여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달보다 더 위대하듯, 여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이긴 하지만,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 남성과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중략) 남성은 하늘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여성은 달과 같은 존재이고, 모든 동물은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태양과 달이 모든 별들을 관장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이치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열등한 존재지만,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²⁷⁾

1535년 창세기 설교에서 루터는 여성을 ‘모든 별보다는 위대하지만 해에는 미치지 않는 달과 같은 존재’라고 지칭했다. 루터는 신이 아담의 갈비뼈를 사용해 이브를 창조하였다는 구절²⁸⁾을 해석하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열등한 피조물이지만, 신이 인격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축복과 은총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을 성별상 부족하지만 인간이기에 존엄한, ‘피조물 중 가장 독특한(extraordinary) 위상을 지닌 존재’²⁹⁾라 평가했다.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종교개혁은 영적 자유와 평등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다시금 환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³⁰⁾ 루터는 이신칭의론(以信稱義論; Justification by the faith only; *sola*

27)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Martin Luther, *Luther’s Works*, ed. and trans. by Walter I. Brandt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7), vol. I, p. 69. 이하 *LW*로 약기.

28) [창세기 2장 20-23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본 논문에서 인용한 성서 구절은 대한 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에 준했음.

29) Martin Luther, *LW*, vol. I, p. 68.

30) 이는 사실 기존의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일관성 있게 동의하는 사안이다. ‘구원’이라는 영역

fide)을 통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만인사제주의(萬人祭司主義; Priesthood of all believers)를 통해 인간은 교회나 사제 등 외부의 매개 없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루터는 성직자의 독점적 특권을 부정했으며, 평범한 교인들도 자신이 체험한 신을 고백하고 이를 남들과 나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루터의 종교개혁은 근본적으로 볼 때,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원칙을 통해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영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복원시키기 위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다.³¹⁾ 종교개혁이 제시한 새로운 구원의 길은 남녀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의 담론 속에서 여성은 다시금 신을 닮은 피조물이자 신이 은총을 베풀 대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여성을 구원의 대상뿐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동등한 존재로 여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루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신의 은총이 인간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임했다고 믿는 순간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갑자기 구원이라는 거대한 은혜를 입어 모든 속박과 규제에서 벗어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랑과 은총에 가득 찬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따라서 루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며 사랑을 실천한 예수를 본보기 삼아 구원받은 교인들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³²⁾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 남녀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다. 루터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 인물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거론한 것은 이를 입증한다. 루터에게 아브라함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며 산’ 사

속에서 인간 남녀노소는 인종과 지위를 막론하고 동등한 존재이며, 이런 ‘영적 평등’의 개념은 아마도 그리스도교가 서양 세계에 정착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주류 신학에서 여성의 영적 평등이 꾸준히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Patricia Ranft, *Women and Spiritual Equality in Christian Tra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31) 그리스도교인의 자유 개념과 칭의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James M. Kittelson, *Luther the Reformer: The Story of the Man and His Career*, 김승철 역, 『개혁자 말틴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95), p. 184.

32) Jane Dempsey Douglass, “Women and the Continental Reformation,” p. 293.

람이었지만,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인물이었고, 리브가 역시 ‘피와 살을 가진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고통받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면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존재라 보았다. 이처럼 루터는 이신칭의론에 입각, 구원이 약속된 모든 사람들은 남녀의 구분 없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³³⁾

신의 은총을 통해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이렇듯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특정 성직자 집단에게만 국한시켜놓을 이유가 없다. 이 시점에서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만인사제주의와 상호 결합되며, 이때 여성 역시 신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설교할 수 있는 존재라 해석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루터는 「교회의 바빌론 유수」³⁴⁾라는 논문을 통해 만인사제주의 개념을 이론화하면서, 교회와 사제의 매개 없이 신과 직접 연결된 존재인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실천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인사제주의 개념의 현실적 적용은 많은 논란을 낳았고, 가톨릭 교권은 사도 바울의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³⁵⁾는 발언을 근거로 여성이 설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만인사제주의를 폄하한 바 있다. 이런 논란에 대응해 루터는 만인사제주의의 개념은 설교 등의 사안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항변했고, 나아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라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교황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여성이 침묵하라는 고린도 전서 14장 34절]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이 설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여성은 제외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중략) 모든 사람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략) 바울은 [여성의 설교] 그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 법규정에 따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엘에게 ‘너의 딸들이 예언을 하

33) *Ibid.*, pp. 294-296.

34) 『교회의 바빌론 유수』는 가톨릭 사제가 지닌 특권적 지위를 부정하고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거부하는 등 종교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인사제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루터의 대표적 저술이다. Martin Luther, “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 *LW*, vol. 36, pp. 3-126.

35) [고린도 전서 14장 34절-35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게 되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울같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만일 남자들이 없어 거기 설교할 사람이 없다면, 여성이 설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³⁶⁾

그리스도교인의 영적 자유와 평등에 근거를 둔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는 개혁운동을 이끄는 핵심 교리가 되었고, 원론적 차원에서 여성을 영적 자유와 평등의 대상에 포함시킨 루터의 태도는 이후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일반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며 개혁운동을 다시 한 번 확장시킨 칼뱅 역시 구원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자격은 동등하다고 주장했고, 여성의 종교적 참여라는 사안에서도 루터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칼뱅은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바울의 말은 신이 내린 명령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부수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세상에는 영원불멸하며 영원히 우리가 구속될 금지조항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워낙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략) 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이 여성에게 침묵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기라도 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까? (중략)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성이 말하는 게 더 어울리는 곳도 있고 여성이 침묵하는 게 더 어울리는 장소도 있게 마련입니다.³⁷⁾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들은 이신칭의론이나 만인사제주의에 기반을 둔 루터와 칼뱅의 주장은 동시대 여성들에게 종교적 자유와 영적 평등의 개념을 고취시켰고, 결과적으로 개혁운동 초기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³⁸⁾ 실제로 개혁운동 초기 여성들은 루터의 교리에 감명을 받아 수녀원을 탈출하기도 했고, 가

36) Martin Luther, "The Misuse of the Mass," *LW*, vol. 36, p. 151.

37) Jea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trans. by Ford Lewis Balltes, vol. 2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p. 1209.

38) Susan Karant-Nunn, "The Reformation of Women,"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by Renate Bridenthal, Susan Mosher Stuard, and Merry E. Wiesner, 3rd ed. (Boston: Houghton-Mifflin, 1998), pp. 179-182.

톨릭미사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성상 파괴운동에 가담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종교개혁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 초기,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개혁운동에 참여하고자 했던 여성들은 곧 자신들이 종교개혁 주류 질서에서 배척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영적 평등과 자유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구원 등 ‘종교적’ 범주 안에서 해석될 문제였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계층 간 평등을 주장하는 등 현실적 사안으로 환원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말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여성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며 이를 통제하고자 노력했다. 남녀가 구원에 있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도 여성은 창조될 때부터 ‘취약하고 종속되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³⁹⁾ 루터는 성경, 특히 창세기를 통해 이런 여성관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중략) 그러나 인간인 아담은 배우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닮은 조력자를 아담에게 보내주셨다고 적혀 있는데, 이 구절은 특히 출산을 위한 배우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중략) 따라서 여성이란 남성에게 봉사하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 도움을 주려는 바로 그 목적만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이브는 사탄의 간교함을 알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취약한 존재여서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중략) 사탄은 인간 중 여성이라는 더 약한 존재에게 먼저 접근한 것입니다. (중략) 신께서는 여성에게 남편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여성은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살 수 없음을 뜻합니다. (중략) 아내는 남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어디에 있든 아내는 그를 좇아야 할 것이고, 겸손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⁴⁰⁾

루터의 창세기 설교에서 발췌한 위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루터가 여성에 대해 다음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도 출산이다. 둘째, 여성은 진위를 구분할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하고, 여성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39)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p. 31.

40) Martin Luther, “Lectures on Genesis,” *LW*, vol. 1, pp. 115-151.

여성의 종속과 복종은 신의 명령이자 ‘자연스러운⁴¹⁾’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의 통제에서 벗어나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하며, 사회혼란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의 의지 전체를 남편에게 의탁하는 수동적인 존재, 즉 그의 표현대로 “벽에 박힌 못⁴²⁾”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최선이었다.

루터가 남녀를 상하 위계관계 속에서 파악했다는 점은 루터의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에 그대로 녹아있다.

여성들이여, 남편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군주로 여기십시오. 남편이란 아내의 머리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좌우하려 하지 말고,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중략) 아내들은 남편의 뜻에 따르고 그에게 지침을 받을 자세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복종시키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신앙심 깊고 순종적인 아내들은 ‘맞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⁴³⁾

“아내와 함께 하는 삶은 신이 주신 은총이며 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⁴⁴⁾이라고 결혼을 상찬했던 루터지만, 올바른 결혼생활을 하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었다. 아내가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남편을 주신 신의 명령에 복종해 남편에게 순종할 것만을 생각”⁴⁵⁾할 때, 남편이 주먹과 발길질을 통해 강제로 복종시키며 결혼생활이 추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즉, 루터는 부부관계를 남성의 권위

41) 비즈너는 루터가 여성에 대해 언급할 때 사용된 가장 흔한 말이 바로 ‘자연적인(natural)’이란 단어라고 지적했다. 이는 루터가 인간의 본성 상, 그리고 신이 내린 명령 상 여성의 종속은 그들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는 뜻이다. 이런 시각을 통해 루터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의 충실한 계승자임을 알 수 있다. Merry E. Wiesner, “Luther and Women: The Death of Two Marys,” pp. 297-298; 로퍼 역시 루터가 여성이 결혼, 아이, 가정의 일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라 보았다고 주장했다. Lyndal Roper, “Luther: Sex, Marriage and Motherhood,” *History Today*, vol. 33 (1983), p. 35.

42) Martin Luther, *LW*, vol. 1, p. 202.

43) Martin Luther, “A Sermon on Marriage, 15, January 1525,” *D. Martin Luthers Werke*, vol. XVII/1, pp. 26-27의 내용을 Susan C. Karant-Nunn and Merry E. Wiesner-Hanks, *Luther on Women: A Sourc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p. 95에서 재인용.

44) Martin Luther, “The Estate of Marriage,” *LW*, vol. 45, p. 18.

45) Martin Luther, *D. Martin Luthers sämtliche Werke*, vol. 51, p. 428을 Merry E. Wiesner, “Luther and Women: The Death of Two Marys,” p.298에서 재인용.

를 강조하고 여성은 이에 복종하는 상하관계로 파악했고, 이는 결혼의 질서와 안락함을 지키는 필수적 요소라고 보았다.⁴⁶⁾

루터 여성관과 결혼관의 핵심은 결국 ‘여성의 종속과 상하관계의 확립’이라는 가부장제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루터는 이를 신의 명령이자 자연의 이치이며, 실용적으로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나가는 첩경이라 보았다. 그런데 루터는 가부장제를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을 운영하는 원리로만 보지 않고, 이를 사회적 관계에도 대입, 이를 종교와 정치를 운영하는 근본 원리로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루터가 가장을 머리로 삼아 위계질서를 확립하는 부권주의적 원칙을 공적 사회에 적용하고자 한 이유는 가부장제야말로 종교개혁 초기 혼란스러운 현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초기 이신칭의론을 통해 가톨릭 종교관행과 제도를 비판한 루터의 모습은 기존 권위에 대한 저항의식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로 1525년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은 루터가 개진한 영적 자유의 개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대입하고자 시도했다. 이에 루터는 농민들이 자신의 종교적 의도를 오해하고 이를 남용하고 있다고 여겨 크게 당황하게 된다.⁴⁷⁾

자신의 사상을 오해한 농민들도 문제지만,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민중들 역시 루터의 고민거리였다. 1527년 선제후령 작센에서 수행된 교구시찰 결과, 루터는 자신들의 새로운 교리가 민중의 종교문화 속에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오해와 무지가 넘치는 현실을 목도한 루터는 민중을 대상으로 무엇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원리인지 교육시킬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⁴⁸⁾

1529년 삽화와 함께 작은 소책자 형식으로 출간된 『일반 목사와 설교자를 위한 소 교리문답서』는 루터의 이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이라

46)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p. 32.

47) 박준철, 「16세기 독일 민중종교문화를 통해 본 종교개혁의 수용과 거부」, 『서양사론』, vol. 92 (2007), pp. 52-53.

48) 박준철, 같은 논문, pp. 48-50.

할 수 있다.⁴⁹⁾ 원래 교리문답(catechism)이란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교육지침서로, 중세 이래 가톨릭교회는 교리문답을 신도들에게 종교적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한 바 있다.⁵⁰⁾ 루터는 민중 교육을 위해 교리문답의 형식이 유리하다고 보았고, 이후 다양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문답서가 연이어 출간되기도 했다.

루터 교리문답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교리문답의 중심에 십계명, 그중에서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4계명⁵¹⁾을 배치시킨 것이다. 루터는 이를 통해 민중들에게 권력자와 신에 대한 순종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과 마찬가지로 설득하고자 했다. 루터가 교리문답서의 서문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나 민중들을 대할 때 제 4계명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질서정연하고, 신앙심 깊으며, 순종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도록 격려”⁵²⁾해야 한다고 쓴 것은 가부장제라는 가정의 운영 원리를 사회의 운영원리로 확장시켜 위계질서를 복원하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루터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⁵³⁾

루터의 교리문답 속에 깃든 가부장제 원리와 부권주의적 성향은 종교개혁 진영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종교개혁 진영이나 독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가톨릭에 기반을 둔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는 분열되었고, 새로 등장한 프로테스탄트 진영 각 교파나 이들에게 위협받게 된

49) 성직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대 교리문답서』와는 달리, 이 책은 철저하게 보통 사람들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들의 가정에서도 쉽게 사용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Theodore G. Tappert, ed. and trans.,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p. 337.

50) Robert James Bast, *Honor Your Fathers: Catechism and the Emergence of a Patriarchal Ideology in Germany, 1400-1600* (Leiden: E. J. Brill, 1997), pp. 2-13.

51) 가톨릭교회와 루터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 4계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칼뱅파 등 현재 대부분의 개신교파와 그리스 정교회 등에서는 가톨릭의 십계명 중 제 1계명인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는 구절을 두 계명으로 분리했기 때문에(제 1계명, ‘나 외의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제 2계명,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절은 제 5계명에 해당한다.

52) Martin Luther, “Small Catechism,” p. 340.

53) 바스트는 부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 개념이 종교개혁 시기 루터파에게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 질서와 법을 강조하는 집단에게서는 늘 발견되는 아주 고전적인 방법론이며,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 교황에 대한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중세 말 14세기경부터 서유럽 그리스도교 사회에 다시 한 번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Robert James Bast, *Honor Your Fathers*, pp. 235-237.

가톨릭 모두 자신의 교리가 남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확정, 공식화할 필요를 느꼈으며, 교파의 정체성을 신도들에게 교육시켜야 할 필요를 절감하게 되었다.⁵⁴⁾ 이를 위해 강제력을 지닌 정치권의 개입은 필수적이었다. 반면 당시 중앙집권적 관료기구를 구성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고 있던 정치권은 종교를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민중을 균질적이고 규율화된 신민집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⁵⁵⁾

교권과 정치권이 연대해 여성에게는 가장에 대한 순종을, 민중에게는 군주에 대한 복종을 권유하며 이 잣대에 따라 민중의 일상생활을 세세히 통제하고자 시도한 사회규율화 과정은 이렇게 시작되었다.⁵⁶⁾ 종교개혁 진영과 가톨릭 사이의 대립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1555년 이후, 사회규율화는 독일과 스위스 등 종교개혁 진영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가톨릭 진영의 공통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⁵⁷⁾

사회규율화 과정을 통해 부권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정착되면서, 그 원형을 제공한 가정의 가부장제적 속성은 강화되었다. 권위의 원형인 가정은 이제 정치지도자와 신에 비견되며 아내와 아이들을 좌우할 수 있는 불가

54) 루터파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Confession of Augsburg, 1530), 칼뱅파의 취리히 합의서(Zurich Consensus, 1549), 영국 국교회의 공동기도서(Book of Common Prayer, 1549), 가톨릭의 트레نت도 신앙고백(Tridentine Profession of Faith, 1564) 등이 이런 신앙고백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Heinz Schilling, "Confessional Europe," *Handbook of European History, 1400-1600: Late Middle Ages, Renaissance and Reformation: Visions, Programs and Outcomes*, eds. by Thomas A Brady et al., vol. 2 (Leiden: E. J. Brill, 1995), p. 641.

55) 황대현, 「16-17세기 유럽의 '교파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사회적 규율화'의 첫 단계로서의 교파화 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독일 사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vol. 100 (2006), pp. 303-304.

56) 사회규율화(social discipline)라는 용어는 오에스트라이히(Gerhardt Oestreich)가 처음 사용했는데, 그는 사회규율화를 국가가 백성들의 행동과 태도를 조종하고 지휘하며 통제하는 것으로 여겼고,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방향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에스트라이히는 '규율'이란 단어를 지배계급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치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강제하는 행위라 해석했다. 이에 고스키(Philip S. Gorski)는 '규율'의 개념을 이해할 때 종교적 이상이 담당하는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에스트라이히의 개념을 더 확장시켰다. 또한 고스키는 사회규율화 과정이 자아의 규율화, 규율의 제도화, 그리고 규율체제의 강화라는 세 국면을 통해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Philip S. Gorski, "Calvinism and State-Formation in Early Modern Europe,"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ed. by George Steinmetz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9), pp. 161-162.

57) 가톨릭 진영의 사회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Robert Bireley S. J., "Early Modern Catholicism as a Response to the Changing World of the Long Sixteenth Century," *The Catholic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 (April, 2009), pp. 219-239.

침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여성의 영적 자유와 평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나마 지지하던 종교개혁가들은 사회적 혼란에 대항하기 위해 가부장제 원리로 되돌아갔고, 이제 여성은 가장에게 순종하는 충실한 아내의 자리에 기꺼이 만족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렇듯 루터파 종교개혁에서 가정은 결국 “권위와 복종에 대해 배우는 장소”⁵⁸⁾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혁명적 성격이 점차 사회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위축되고 부권주의적 권위가 이를 대체하는 현상은 칼뱅과 종교개혁에서도 계속되었다. 칼뱅은 기본적으로 질서와 체계를 중시하며, 신의 질서가 사회에 구현되는 현실적 방안을 깊게 고민했던 사상가였다. 칼뱅은 신적 질서가 사회 속에 정착되기 위해서 가정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파악했고, 가부장제에 기초한 가정을 신의 질서가 구현된 이상적 공간이라 여겼다. 그렇다면 칼뱅은 어떤 이론적 근거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칼뱅과 종교개혁과 가부장제의 관계를 파악하려면, 칼뱅이 그리스도교 신학과 현실윤리를 결합하기 위해 강조한 ‘소명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명론이란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신의 세속적 위치에 맞는 특정한 역할, 즉 ‘소명(Beruf, *vocatio*)’을 부여받았고, 삶 속에서 이를 완수할 책임을 지닌다는 이론으로, 칼뱅이 이신칭의론의 윤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강조한 개념이다.⁵⁹⁾ 칼뱅은 소명론을 가정에 적용, 남성은 가장답게 가정을 이끌며, 여성은 아내답게 가장에게 순종하고 그를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인용한 칼뱅의 창세기 주해는 칼뱅이 가

58) Gerald Strauss, *Luther's House of Learning: Indoctrination of the Young in the German Reform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8), p. 130.

59) 칼뱅은 이신칭의론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임은 확실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의 실천적 신앙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칼뱅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 행동 자체는 마음대로 방종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논리로 이신칭의론이 오해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경계하고자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칼뱅은 예정론(predestination)에 의거 구원받기로 되어있는 이들은 신의 영광을 지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이 각각 세속적 위치에 따라 부여받은 특정한 역할인 ‘소명’을 완수하는 모습을 통해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신이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선민(選民)’을 구별해내는 일종의 징표가 된다. 이신칭의론의 칼뱅식 재해석과 구원론에 대해서는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pp. 372-378. 칼뱅이 소명론과 예정론을 활용, 현실윤리와 그리스도교 교리를 연결한 방식은 박준철, 『*vita activa*』, 칼뱅이 추구한 교회 개혁의 본질, 『지식의 지평』, vol. 7 (서울: 한국 학술협회의, 2009), pp. 261-263.

정에서 남녀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여성은 남편을 도우라는 그들의 의무를 숙지하고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임명하신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깊게 깨우쳐야만 합니다. 동시에 남성들도 자신들의 반쪽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간의 의무는 상호적이며, 여성이 남성을 돕는 역할을 명받은 것처럼, 남성도 [가정을 이끄는] 머리이자 지도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⁶⁰⁾

나아가 칼뱅은 가정 속에서 부부가 각자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⁶¹⁾ 건설의 초석이라 보았다.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소명을 다하는 자세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칼뱅이 추구하던 궁극적인 목표인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거꾸로 신적 질서에 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루터에게 가정이 ‘복종을 배우는 장소’였다면, 칼뱅에게 가정은 ‘소명을 배우는 장소’였던 것이다.

소명과 질서를 강조한 칼뱅의 관점은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시대 기존의 사회질서를 보존시키고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⁶²⁾ 칼뱅은 소명론을 적용,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였고, 그 결과 가정 내 위계질서는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칼뱅은 소명론에 의거, 가정에서 조신한 아내와 자애로운 어머니로 사는 것을 신이 여성에게 부여한 유

60) Jean Calvin, “Commentaries on the First Book of Moses Called Genesis,” *Calvin: Commentaries*, ed. and trans.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p. 358.

61) Janine Garrisson, *Les Protestants au XVIe siècle*, p. 32.

62) 칼뱅의 여성관이 가부장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더글라스(J. D. Douglass)는 칼뱅이 가장의 권한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장이 지닌 책임과 의무를 부각시켰다는 점을 강조했고, 나아가 칼뱅은 여성의 예속을 신의 명령이라 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역사적인 조건의 문제로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Jane Dempsey Douglass, *Women, Freedom, and Calvin*, 심창섭 역, 『칼뱅의 여성관』 (서울: 무림출판사, 1990), pp. 75-114. 특히 p.83. 그러나 최근 칼뱅의 신학에 나타난 여성관을 총정리한 톰슨은 더글라스의 해석이 칼뱅의 아디아포라(adiaphora) 개념을 확대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하면서 칼뱅은 여성의 종속을 신이 내린 불가침의 숙명이라 보았다고 주장했다. John Lee Thomson, *John Calvin and the Daughters of Sarah: Women in Regular and Exceptional Roles in the Exegesis of Calvin, His Predecessors and His Contemporaries* (Genève: Droz, 1992), pp. 229-246.

일한 사명으로 규정했고, 여성들은 그 외에 어떤 대안도 용납 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칼뱅과 종교개혁의 부권주의적 속성은 칼뱅이 신적 질서를 구현한 사회 건설을 위해 체계적으로 확립한 각종 제도 속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그 대표적 기구로 컨시스토리(consistory)⁶³⁾를 들 수 있다. 컨시스토리는 신도의 생활 전반을 감찰하는 칼뱅과 특유의 기관으로, 1541년 설립된 이래 칼뱅과 교회의 기본 제도로 정착되어 유럽 각지에 널리 보급되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종교개혁적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신도들 사이의 일상적 갈등을 해소하는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다. 컨시스토리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신도들의 일탈을 규제하기 위한 자체적 처벌방식을 확보하고 있었고, 사법기관과의 공조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⁶⁴⁾

그런데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다른 아닌 결혼과 가정생활에 관련된 분쟁들이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활동 양상에 대해 연구한 위트(John Witte)와 킹던(Robert Kingdon)은 컨시스토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룬 사안이 바로 결혼을 둘러싼 논쟁, 간통과 혼외정사 등 성적 문제, 그리고 부부 간 불화 및 자녀교육 등 가정생활 전반과 관련된 것들이라 파악했다.⁶⁵⁾ 따라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회의기록은 칼

63) 현재 국내 신학자들은 컨시스토리 (consistory, consistoire, Konsistorium)를 ‘당회’ 혹은 ‘교회회의’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당회(session)란 한 개체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를 뜻하며,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경우 일개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제네바 칼뱅파에 속한 여러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가끔 사용되는 ‘교회회의’라는 번역 역시 뜻이 애매하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오늘날 한국 장로교의 조직과 비교해보았을 때 ‘노회’(presbytery), 즉 한 지역에 속한 여러 개체교회의 목사와 장로대표들이 모인 의결기구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노회’라는 번역은 학계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컨시스토리라는 용어를 번역 없이 그대로 명시하겠다.

64)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초기 공개적인 참회나 성찬식 금지 등의 처벌방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권한이 확대되면서 1555년 공동체로부터 파문할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1560년대 이후 제네바에 칼뱅의 영향력이 확고해진 시기부터 컨시스토리는 이런 권한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작업에 정진했다. John Witte Jr. and Robert M. Kingdon,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Courtship, Engagement and Marriage*, vol. 1 (Grand Rapid and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pp. 67-68.

65) 위트와 킹던은 제네바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점인 1546년(제네바 결혼법령 발표), 1552년(프랑스 출신 이민자 유입과 파문권 확보를 위한 갈등), 그리고 1557년(파문권을 확보한 칼뱅의 전성기)을 기준으로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항목과 판결 내용을 분류했다. 위트와 킹던이 성과 결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안으로 분류한 항목은 간통, 혼외정사, 부도덕한 성행위, 강간, 성적 공격, 약혼을 둘러싼

뱅의 여성관과 가정관이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⁶⁶⁾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상정된 안건과 그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칼뱅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운영할 원칙으로 가부장제를 내세웠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이러한 속성은 가정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가장의 권한을 무엇보다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때 여성은 어디까지나 가장을 보조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했고, 가정의 일상이나 자녀의 미래를 관장할 독자적 권리를 지닐 수 없었다.⁶⁷⁾ 칼뱅이 자녀의 결혼 같은 중대사를 정할 때 오직 아버지의 동의만을 필수적 요건으로 보았고, 어머니의 입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1547년 딸의 결혼을 주관한 어머니를 엄격히 처벌한 컨시스토리의 판결을 살펴보자.

1547년 4월 5일, 테베나와 그의 딸 막시마가 컨시스토리에 소환됨. 막시마는 어머니 테베나가 자신을 에티엔 드 로네라는 남성과 결혼시키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함. 에티엔 드 로네는 자신이 막시마와 결혼약속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증표로 어머니 테베나에게 나이프를 주었다고 주장함. 10살에 불과한 막시마는 에티엔과의 결혼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리옹에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판결) 컨시스토리는 에티엔과 막시마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 이 결혼을 인정하면 나쁜 선례가 남을 것을 우려함. [4월 12일 소 의회⁶⁸⁾는 막시마의 어머니 테베나를 3일 간의 금고형에 처함.]⁶⁹⁾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남편의 동의 없이 자녀의 결혼을 결정한 아내의 처신을 중범죄로 보고 이를 사법부에 이관, 금고형에 처하게 했다는 점은

갈등, 부부나 가정 내 불화, 유산, 세례와 관련한 논쟁,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부모에 대한 불복종, 가정폭력, 방기, 타 종교인과의 결혼, 이혼 등인데, 그들은 이런 사안이 컨시스토리에 상정된 전체 안건 중 60% 이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Ibid.*, pp. 71-77. 특히 pp. 75-76의 도표를 참조할 것.

66)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기본 사료로 Robert Kingdon, Thomas A. Lambert and Isabella M. Watt eds, *Registres du consistoire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tome I-V (Genève: Droz, 1996-2010)을 들 수 있다. 현재 1542년부터 1555년까지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회의록 전권이 출간되어 있다.

67)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Jeffrey R. Watt, "Women and the Consistory in Calvin's Geneva,"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4, no. 2. (Summer, 1993), pp. 429-439.

68) 소 의회(le petit conseil)란 제네바의 사법기구로, 컨시스토리에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을 넘겨받아 사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Witte and Kingdon, *John Calvin's Geneva*, pp. 68-69.

69) *Ibid.*, pp. 193-194.

칼뱅이 가정에서 가장의 결정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⁷⁰⁾ 일부 학자들은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가정폭력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 것 등을 지적하며 남녀평등에 있어 칼뱅이 다른 종교개혁가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⁷¹⁾ 이는 여성에 대한 존중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의 독보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가장에게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이라 해석하는 편이 적절하다. 칼뱅에게 가부장이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대리한 존재로, 지극한 존경과 복종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⁷²⁾

가장이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 만큼, 가장의 의지는 때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승인한 최초의 이혼으로 기록된 피에르와 베누아트 아모(Pierre and Benoit Ameaux) 부부의 경우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⁷³⁾ 피에르 아모는 소 의회 위원에 선출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제네바 출신 부르주아였는데, 그는 1543년부터 1545년까지 아내인 베누아트와 이혼하겠다는 내용의 청원을 십여 차례 거듭했다. 피에르 아모는 컨시스토리에 자신의 아내 베누아트가 신을 모독하며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지 않는 자세를 보인다고 고발했고, 이를 근거로 아내와 헤어지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이혼을 이론적으로 인정했지만 간통의 혐의가 인정될 때만 이를 받아들여줄 것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아모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⁷⁴⁾

70) 대부분의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에서 부모의 동의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 구절을 거론했지만, 칼뱅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인한 아브라함의 사례를 거론하며 자녀의 결혼에서 아버지의 동의만을 절대적인 조건으로 내세웠다. John Witte Jr.,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Child Marriage and Parental Consent in Calvin’s Geneva,” *The Journal of Religion*, vol. 86, no. 4 (October 2006), pp. 589-593.

71) Witte and Kingdon, *John Calvin’s Geneva*, p. 56.

72) Jean Calvi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1, pp. 401-402.

73) Robert 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5), pp. 31-70.

74) 피에르의 아내 베누아트는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녀는 컨시스토리에 소환되었을 때 신의 사랑은 남녀 간 자유로운 성관계를 가능케 한다고 진술하는 등 혼란스러운 발언을 거듭했다. 컨시스토리는 베누아트의 처신을 의심하며 그녀가 간통을 범했을 증거를 추적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에르 아모의 첫 청원 당시 이혼은 성립되지 못했다. *Ibid.*, pp. 33-46.

그러나 1544년, 아내 베누아트는 갑자기 자신의 간통 혐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남편과의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선언했다. 피에르와 베누아트 아모의 이혼 사례를 연구한 킹턴은 가장인 피에르가 아내 베누아트를 집에서 내쫓고 그녀가 결혼 당시 가져온 지참금에 대한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아내를 압박했으며, 이런 정황이 베누아트에게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추론했다.⁷⁵⁾ 베누아트の高백 이후 아모 부부의 이혼은 성립했고, 피에르는 1년 뒤 다른 여성과 재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성공했다. 피에르와 베누아트 부부의 이혼 과정을 통해, 제네바 공동체에서 남성은 가장으로서 원치 않는 결혼을 이혼으로 이끌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을 지니고 있었으며, 컨시스토리 역시 이를 추진했음이 단적으로 입증된다.

이처럼 중세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저항하고 영적인 자유와 평등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의 일선에 나섰던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인간에게 가장 익숙한 통제 수단 중 하나인 가부장제에 손을 내밀었다. 루터와 칼뱅이 주창한 영적 평등과 자유의 원리는 여성의 현실적, 사회적 조건을 재고하는 차원과 연결되지 못했고, 여성은 여전히 본성적으로 열등한 존재라 취급되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은 종교개혁이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회 속에 단단히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루터파 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권위에 순응하는 법을 학습하는 공간이 되었고, 칼뱅파 종교개혁을 통해 가정은 소명에 의거한 위계질서를 충실히 지탱하는 기반으로 재조직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정 내 여성의 위상은 오히려 위축되었다. 다수의 역사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개혁 진영의 가부장들은 가톨릭 지역의 가부장보다 더 많은 권리와 지배권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파악했으며,⁷⁶⁾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이 전파된 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가톨릭 사회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악해졌다고 분석했다.⁷⁷⁾

75) *Ibid.*, p. 53.

76)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p. 281.

77) 데이비스는 종교개혁 이후 16세기-18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는 꾸준히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특히 가톨릭 신앙의 내용 중 수녀원이나 성녀 등의 존재가 여성적 신성이나 리더십을 구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개혁 신학 자체가 더 근대적이거나 여성에게 호의적이라

제 2 절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종교개혁 진영의 대응

종교개혁 시대 가부장제와 부권주의적 경향이 재확립되었다는 사실은 동시대 활동한 여성 개혁운동가들에 대한 종교개혁 진영의 대응양상 속에서 다시금 입증된다. 종교개혁가들의 다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성들 중 일부는 깊은 종교적 성찰을 바탕으로 종교개혁의 대의에 공감한 후, 자신의 신학적 견해를 공공연히 표방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운동에 동참하고자 시도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종교적 주장을 설교나 출판의 형태로 공론화했고, 개혁운동을 탄압하는 공권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슈트라스부르크의 카타리나 쉬츠 켈(Katharina Schütz Zell, 1497-1562), 바이에른의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Argula von Grumbach, 1492-1563), 그리고 제네바의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ère, 1495-1561) 등은 여성이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적 신념에 지극히 충실했던 이들의 삶은 이후 개혁운동 진영 내부에서 철저히 부정당하고 말았다.

먼저 카타리나 쉬츠 켈에 대해 살펴보자. 슈트라스부르크 출신인 그녀는 1521년 경 루터의 글을 읽고 프로테스탄트로 개종, 1523년 유명한 설교자이자 종교개혁가 마티아스 켈과 결혼했다. 개혁운동가들이 성직자의 결혼을 이론적으로 지지하기는 했지만, 아직 루터조차도 결혼을 망설이고 있던 1520년대 초,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나름 알려진 가문 출신인 카타리나가 사제와 결혼한 사건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카타리나 본인은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동시에 ‘교회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성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변호했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을 집필해 『나의 남편 마티아스 켈에 대한 변명』이라는 저작을 출판했다.⁷⁸⁾

는 해석 역시 전면 부정했다. Natalie Zemon Davis, “City Women and Religious Change,” p. 94.

78) Katharina Schütz Zell, “Katharina Schütz’s Apologia for Master Matthew Zell, Her Husband,”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ed. and trans. by Elsie McKe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6), pp. 62-82.

카타리나 첼은 이 글에서 성직자도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마티아스와 결혼하였다고 주장했고, 성직자와의 결혼은 자신에게 믿음 속에서 살아나가겠다는 결심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목회자가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공포와 반대가 넘치고 있고, 여전히 목회자들은 결혼하지 않고 여성과 관계하는 일이 혼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까닭에, 나는 스스로 사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결혼을 한 의도는 모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이를 장려하고 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내 남편 역시 신의 영광을 더 전하고 그 자신의 구원을 공고히 하며 또한 모든 신도들의 구원을 돕기 위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중략) 나는 이 결혼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 두 사람의 영혼을 위해 유익하며 나아가 모든 이들의 영혼과 마음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길 바랍니다.⁷⁹⁾

카타리나 첼은 일개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출판하는 적극적 태도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종교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성별에 구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나아가 카타리나 첼은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깨우친 프로테스탄트라면 이를 널리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표방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네 소관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나귀도 예언자가 미처 보지 못한 천사를 알아보고 입을 열어 말을 했는데⁸⁰⁾, 인간씩이나 된 내가 진리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중략) 바울은 ‘여성들은 침묵하라’고 말했지만,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성도 여성도 없다’⁸¹⁾고 말했음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에게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성령을 부어 주리니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⁸²⁾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중

79) *Ibid.*, pp. 77-79.

80) 민수기 22장 23-33절의 내용. 예언자인 발람에게 나타난 천사를 발람보다 나귀가 먼저 알아보고 나귀가 발람에게 이를 경고한 일화를 뜻한다.

81)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략) 나는 다윗을 깨우쳤던 나단이나 세레 요한과 같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예언자 발람에게 말했던 당나귀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⁸³⁾

이처럼 카타리나 쉴은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곧 ‘그 거짓이 진실이라고 반쯤 고백하는 것’⁸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카타리나 쉴은 자신의 종교적인 깨달음과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수동적 위치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했고 이를 기꺼이 행동으로 옮겼다.⁸⁵⁾

하지만 카타리나 쉴의 윗글은 슈트라스부르크 시 의회의 명령으로 압수되고 출판이 금지되었다. 책이 출판된 지 열흘 만의 일이었다. 슈트라스부르크 시 당국은 성직자의 결혼으로 수많은 논란이 생기는 가운데, 여성이 이런 논란에 일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 성직자의 결혼을 옹호할 때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할 경험자의 글이므로 그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발언은 그 진위나 수준에 관계없이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여겨졌고, 정치권이나 교회세력은 이를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이다.⁸⁶⁾

카타리나 쉴 외에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글로 남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했던 여성 개혁운동가들은 예외 없이 사적으로는 남편과 가족, 공적으로는 교회 당국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혔다. 카타리나 쉴과 동시대인이었던 바이에른 출신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⁸⁷⁾ 그녀는 루터파 교리를 신봉한 대학생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그를 비판한 대학당국과 교수⁸⁸⁾에게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큰 논쟁을 일

82) 사도행전 2장 17절의 내용.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의 이 내용은 1522년 루터가 여성이 교회에서 침묵해야 하느냐를 논할 때 여성의 발언을 긍정하면서 인용한 바로 그 구절이기도 하다.

83) Katharina Schütz Zell, “Katharina Schütz’s Apologia,” pp. 81-82.

84) *Ibid.*, p. 64.

85) Kirsi Irmeli Stjerna, *Women and the Reformation* (Oxford: Blackwell Pub., 2009), p. 130.

86) Elsie McKee, “Introduction for Katharina Schütz’s Apologia,” *Church Mother*, p. 62.

87)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는 바이에른에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던 폰 슈타우프(von Stauff) 가문 출신으로, 잉골슈타트(Ingolstadt) 대학 학생이던 아르자치우스 제호퍼(Arsacius Seehofer)가 루터파로 몰려 단죄당한 ‘제호퍼 사건(Seehofer Affair, 1523)’에 직접 개입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의 생애와 저작은 Peter Matheson, ed. and trans.,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inburgh: T&T Clark, 1995).

으켰다. 바이에른은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종교개혁을 금지하던 곳이었으므로 그룸바흐의 이런 행동은 극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그룸바흐에 대해 종교개혁 진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룸바흐와 서신을 주고받았고 직접 만나기까지 한 루터는 그녀에 대해 ‘개인적인 존중’을 표했지만 결코 ‘공식적으로’ 그녀의 글을 추천하지 않았다. 여성의 몸으로 대학의 유명한 학자를 공격한 그룸바흐의 행동은 종교개혁 진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 그룸바흐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곧 여성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 여겨졌고, 그룸바흐가 종교개혁에 동참한 방식은 조용히, 확산되지 않고 문혀야 마땅한 행동으로 취급되었다. 결국 종교개혁 초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그룸바흐의 팜플렛은 곧 소리 없이 종교개혁의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⁸⁹⁾

칼뱅 종교개혁의 성지인 제네바에서 활동한 마리 당티에르 역시 위의 두 여성과 유사한 운명에 처했다.⁹⁰⁾ 종교개혁 사상에 깊이 동조해 수녀원을 박차고 나온 당티에르는 목숨을 건 여정 끝에 제네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성직자인 앙투안 프로망(Antoine Froment)과 결혼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녀원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당티에르는 제네바 유일의 프란체스코 수녀회 원장이던 잔 드 쥐시(Jeanne de Jussie, 1503-1561)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⁹¹⁾ 당티에르는

88)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가 비난한 교수는 다른 아님 요한 에크(Johann Eck)로,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와 공개적으로 대립한 루터의 호적수였다. Kirsj Irmeli Stjerna, *Women and the Reformation*, p. 76.

89) Albrecht Classen, “Footnotes to the German Canon: Maria von Wolkenstein and Argula von Grumbach,” *The Politics of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eds. by J. R. Brink, Allison Coudert and Maryanne Cline Horowitz (Kir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9), pp. 146-147.

90) 마리 당티에르(Marie Dentièrre, 1495-1561)는 프랑스의 투르누아(Tournai) 출신으로, 고향의 아우구스티누스 파 수녀원에 소속되어 있다가(일부 자료는 그녀가 수녀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종교개혁 사상에 감명 받아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 당티에르의 생애와 저술은 Marie Dentièr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ed. and trans. by Mary B. McKinle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4).

91) 잔 드 쥐시 역시 자신의 관점을 책으로 출판, 제네바 종교개혁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Jeanne de Jussie, *Le Levain du calvinism, ou commencement de l'heresie de Genève. faict par reverende soeur Jeanne de Jussie, lirs religieuse a Sainte Claire de Genève, et après sa sortie Abbessse*

이후 제네바의 종교개혁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저술로 이름을 날렸으나 이 저작은 곧 유통이 중지되었고, 최근까지도 당티에르 본인의 저작임을 의심받곤 했다.⁹²⁾

칼뱅은 당티에르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으나, 당티에르의 강한 성격과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아 그녀를 비난했다. 칼뱅은 종교개혁의 동지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티에르의 남편 프로망이 아내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당티에르가 “술집을 비롯해 길거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설교한다”면서 정면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칼뱅의 훈계에 대해 당티에르는 이를 ‘폭압(tyrannie)’이라고 칭하며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모두의 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공박했지만, 칼뱅은 “나는 이 여성을 마땅히 그래야 할 방식으로 다룬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⁹³⁾ 칼뱅이 보기에 당티에르의 신학적 야망과 남성 성직자들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태도는 혼란스럽고 참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이다.⁹⁴⁾

카타리나 첼,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마리 당티에르 등 최근 재조명받고 있는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운명은 모두 하나같이 그녀들의 지적 수준이나 종교개혁적 가치가 아닌 ‘성별’에 의해 좌우되었다. 루터와 칼뱅 등 대표적인 종교개혁가들은 이들의 종교적 발언에 강경하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결코 이를 기꺼워하지 않았다.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은 이처럼 프로테스탄트의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자신의 종교적 자각과 정체성을 표현할수록 오히려 프로테스탄티즘이 제시한 이상적인 여성, 즉 가부장에 복종하는 겸손하고 수동적인 여성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모순적 상황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제도화될수록 더 견고해졌다. 1525년 농민전쟁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위험한 경고로 여겨졌고, 종교개혁 진영

au convent d'Aryssi (Chambery: Les Frères Du Four, 1611).

92) Marie Dentière, *La Guerre de Genève et sa délivrance: fidèlement faite et composée par un marchand demeurant en icelle. A tous ceux qui desirent sçavoir et entendre de la guerre et délivrance de la ville de Genève* (Genève, 1536).

93) Marie Dentièr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p. 19.

94) Kirsi Irmeli Stjerna, *Women and the Reformation*, p. 144.

에서 그리스도 교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게 되었는데, 여성의 글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과 검열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⁹⁵⁾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져서, 일부 종교개혁 진영은 여성이 글을 읽는 행동 자체까지 검열하기에 이르렀다. 1543년 영국 교회법은 여성의 종교적 토론을 금지했고, 낮은 신분의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는 권리를 박탈했으며, 신분이 높은 여성이라도 소리 내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교개혁과 여성 간의 역설을 증명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⁹⁶⁾ 16세기 중반 이후 정치권과 교권이 힘을 모아 민중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며 사회규율화에 몰두하는 시기가 되면, 여성의 목소리는 옹고 그름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심을 사기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을 추동한 영적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은 물론 가정 내에서 여성의 능동적 역할을 존중하는 차원과 결합되지 못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여성은 열등한 본성과 미숙한 판단력을 지닌 믿음직스럽지 못한 대상이었고,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의 명령에 기꺼이 몸을 굽혀야 할 존재에 불과했다. 종교개혁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부장제 원리를 도입했으며, 사회규율화 과정을 통해 근대 유럽의 부권주의적 경향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개혁운동가의 활동은 종교개혁가들에게 어색하고 위태로운 시도라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카타리나 첼,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 그리고 마리 당티에르가 하나 같이 종교개혁 진영 내에서 오히려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이를 입증한다. 결국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는 제도권 교회의 비판 속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었고, 역사적으로 별다른 반향을 남기지 못한 채 미완의 실험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 일부 여성들이 이신칭의론과 만인사제주의 사상에 깊게 공감하고 여성의 종교적 권리와 의무를 성경을 통해 정당화하려

95) 아르굴라 폰 그룸바흐가 쓴 8편의 편지는 1523년과 1524년 출판된 후 복사본이 3만여 권이나 유통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런 인기를 통해 사람들이 그룸바흐의 주장을 받아들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히려 그룸바흐가 ‘틀렸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아가 여성 저자라는 특이성 때문에 그녀의 팜플렛이 더 널리 회자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Peter Matheson, “Breaking the Silence: Women, Censorship, and the Reforma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7, no. 1 (Spring, 1996), pp. 107-109.

96) Merry E. Wiesner,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p. 217.

고 시도했던 작업은 그 자체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여성 개혁운동가들은 교권에 의해 제시된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종교개혁 사상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유하는 적극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에게 종교개혁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회적 비난과 위협까지 감당해야 했던 능동적 체험의 장(場)이 되었다. 여성 개혁사상가들에 대한 의미부여와 재평가는 극히 최근에만 시작되었지만, 이는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본다.

여성 개혁운동가들이 교권의 가르침에 매몰되지 않고 종교개혁이라는 혁명적 사건에 주체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본 논문의 주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이해할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 가톨릭의 장자를 자처한 프랑스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일종의 반역이라 치부할 정도로 강경하게 탄압하였고, 그 와중에 칼뱅파로 개종한 이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남녀의 구분 없이 강력한 행동력과 결단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위그노 여성들은 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종교개혁가들이 여성에게 강제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특히 파리를 비롯한 북부 지방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은 여성 개혁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조금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프랑스 종교개혁이 지닌 특수한 속성과 이 속에서 여성이 처하게 된 현실에 대해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프랑스 종교개혁과 위그노 여성의 위상

제 1 절 위그노, 이단과 반역의 굴레

1557년 9월 4일 늦은 밤, 파리 생 자크 가(街)의 작은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소르본(Collège de Sorbonne) 바로 뒤에 위치한 이 집의 주인은 샤르트르 성당의 참사회원인 베르토미에 형제(Pierre et Jacques Berthomier)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동료이자 파리 고등법원 소속 변호사였던 그라벨(Taurin Gravelle)에게 집을 빌려준 참이었다. 야심한 시각에 비밀리에 열린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수백 명에 달했고, 상당수의 여성과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보였다. 자정이 지났을 때, 조심스럽게 진행되던 모임은 순찰대원들의 급습을 받았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돌을 던지거나 집기를 끌어내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행되어 감옥에 갇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목은 ‘이단’이었지만, 수감된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진리’라 불렀다.

1557년 파리 한 복판에서 벌어진 생 자크 거리의 사건(l'affaire de St. Jacques)은 16세기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집회를 단속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연행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생 자크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한 역사학자 베스(N. Weiss)는 이 사건으로 검거된 백삼십여 명의 명단을 제네바 고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해 그들의 신원과 이후 처분에 대해 추적했다.⁹⁷⁾ 이단이라는 죄목 아래 연행당한 이들의 처분은 가혹한 것이었다. 비밀집회의 주동자였던 그라벨을 포함, 교사이던 클리네(Nicolas Clinet) 등 십여 명은 한두 달 뒤 바로 화형에 처해졌는데, 화형자 중에는 그라브롱 부인(Mme de Graveron, Philippe de Luns)이라는 여성도 포함

97) 생 자크 거리 사건(l'affaire de St. Jacques)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N. Weiss, “Épisodes de la Réforme à Paris: l'assemblée de la rue Saint Jacques, 4-5 septembre 1557,” *Bulletin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tome 13 (Juillet-Septembre, 1916), pp. 195-235.

되어 있었다.

생 자크 사건으로 검거된 인물을 망라한 베스의 명단을 보면, 연행당한 인원 총 백삼십 명 중 여성은 삼십 명이었고, 이중 귀족 여성은 스무 명에 달한다.⁹⁸⁾ 그라브롱 부인은 생 자크 거리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당한 여성 중 유일하게 화형에 처해진 인물이었다. 그라브롱 부인은 스물 둘 정도의 어린 과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등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판사들은 ‘나이와 성별을 감안해 볼 때’ 그녀가 곧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라브롱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결국 그라브롱 부인은 혀를 자른 후 목을 조른 뒤, 얼굴과 발에 불을 붙여 화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는 1557년 9월 27일 파리의 모베르 광장(Place de Maubert)에서 집행되었다.⁹⁹⁾

생 자크 사건은 파리에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닌 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이 얼마나 가혹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열성적으로 매진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또한 생 자크 사건은 비밀리에 조직된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에 상당수의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며, 프랑스에서 여성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그라브롱 부인의 경우처럼 강력한 신념과 굳은 의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프랑스 종교개혁에 능동적으로 동참했던 귀족여성들은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진로와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부터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수한 상황과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파리 프로테스탄트 공동체가 담당한 역할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98) 베스의 명단에 등장한 삼십 명의 여성 중 스무 명의 이름에 귀족을 뜻하는 ‘dame’이나 ‘damoysselle’ 등 경칭이 표기되어 있다. 해당 명단에 기록된 남성들 중 신원이 밝혀진 이들 대부분이 부르주아라는 점을 볼 때,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여성들 중 귀족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Ibid.*, pp. 200-204.

99) 그라브롱 부인의 죽음은 프랑스 순교자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장 크레스팽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죽음을 감당한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Jean Crespin, *Histoire de vrai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euangile, qui de leur sang l'ont signée, depuis Jean Hus iusques au temps present* (Genève: Crespin, 1570), pp. 483-484.

프랑스 개혁운동은 칼뱅의 사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프랑스 칼뱅파는 위그노(huguenots)¹⁰⁰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프랑스의 위그노주의는 프로테스탄트 사상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 무척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정치권과 교권이 결탁했던 비텐베르크나 제네바의 종교개혁이나, 전 국가단위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던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의 개혁운동은 가톨릭을 수호하는 왕권의 거센 탄압에 맞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종교개혁은 중앙 정치세력과 분리되어 지역 단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전개되었고, 해당 지역의 정치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적응방식을 보였다.

프랑스 종교개혁의 두 축은 일 드 프랑스(Ile de France)와 노르망디(Normandy) 등 북부지역과 미디(Midi) 지방¹⁰¹ 등 남부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지역의 개혁운동은 성격과 발전과정 측면에서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프랑스 남부지역, 그중에서도 ‘개혁 교회 초승달 지역(Croissant réformé)’이라 불리던 지방은 인근의 나바르-베아른(Navarre-Béarn) 왕국¹⁰²과 함께 칼뱅파 전래 초기부터 프랑스에서 중

100) 위그노(les huguenots)라는 용어는 1560년 앙부아즈 화의(Conjuration d'Amboise)가 결렬된 후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어원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하나는 독일어 eidgenossen (conjure/confédéré)라는 말이 프랑스화된 것이라는 견해로, 이 말은 원래 1520년대 제네바에서 사보아 공작의 지배에 반대했던 일파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위그노라는 말은 제네바라는 ‘이단’의 근원인 도시와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란의 정신까지 연계된 이중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 다른 해석 역시 부정적인데, 개혁파 일원들을 저주받은 자들, 또는 유령들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르 지방에 전해오는 설화에 따르면 Huguet, 또는 Hugon de Tours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유령이며, 어둠의 세력과 밀접한 잔인한 괴물이다. 이 전설의 기원은 샤를마뉴 시대 투르 지방의 백작이었던 잔인하고 악명 높은 위그(Hugues)라는 사람에게서 기인한 듯하다. 이런 어둠의 유령과 프로테스탄트 세력을 연결시킨 이유는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이 비밀리에 모여 집회를 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던 프랑스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에서 어둠의 제왕 위공(Hugon) 왕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는 것이다. 베즈나 아그리파, 파스쿠아 등 동시대의 사람들은 위그노라는 말의 기원을 주로 이 쪽으로 해석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위그노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모욕적인 감정을 담고 만들어졌고, 마치 프로테스탄트들이 가톨릭을 ‘교황주의자들(papiste)’이라고 불렀듯이 위그노라는 말도 가톨릭들이 프로테스탄트를 격하시킬 때 쓰던 단어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560년대가 되면 위그노라는 말은 급속도로 일반화되고 부정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스스로를 ‘위그노’라고 곧잘 호칭하게 되었다. 특히 위그노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분야 외에도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을 하나로 묶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를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5-6.

101) 미디(Midi)란 프랑스 지역구분 상 아키텐(Aquitaine), 미디 피레네(Midi-Pyrénées), 랑그독-루시옹(Languedoc-Roussillon),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Azur), 코르시카(Corsica), 그리고 론-알프스(Rhône-Alpes)의 남부지대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프랑스 남부 지방을 일컫는 별칭이다.

102) 나바르-베아른(Navarre-Béarn) 지역은 앙리 드 나바르의 어머니 잔 달브레에 의해 가톨릭이 금

교개혁을 지탱한 중심축이었다.¹⁰³⁾ 프랑스 남부는 ‘또 다른 프랑스’¹⁰⁴⁾라고 불릴 정도로 언어적, 문화적, 정치적 경험상 프랑스 북부와 구분되며,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늦게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자적 지방색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¹⁰⁵⁾ 프랑스 남부는 전체 위그노 교회 중 육십 퍼센트 이상, 신도 중 칠십오 퍼센트 이상이 분포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프랑스 북부를 압도했으며, 생 바르텔레미 학살 이후 프랑스 북부 위그노 세력이 급격히 축소된 이래 프랑스 내 프로테스탄티즘을 유지, 보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¹⁰⁶⁾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 프랑스 남부에서 진행되던 종교개혁은 그 속성상 정치 엘리트와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사이의 연대에 기반을 둔 제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띤다. 비교적 늦게 프랑스 왕국에 편입

지되고 칼뱅파를 국교로 선포한 곳으로, 16세기 초에는 아직 프랑스령이 아니었으나, 앙리 4세의 즉위 이후 프랑스에 편입되었다. 베아른에서 벌어진 종교개혁의 성격에 대해서는 Mark Greengrass, “The Calvinist Experiment in Béarn,”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eds. by Andrew Pettegree, Alastair Duke and Gillian Lewi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pp. 119-142.

103) 프랑스 서쪽 프아투(Poitou)에서 동쪽 도피네(Dauphine) 지역을 양 끝으로 하여 남쪽으로는 랑그독(Languedoc)에 걸친 지역은 소위 ‘개혁 신앙 초승달 지역(Croissant réformé)’이라고 불리며 위그노 세력의 핵심거점이 되었는데, 특히 몽도방(Montauban), 카스트르(Castres), 밀라우(Millau), 몽펠리에(Montpellier), 님(Nîmes) 등 도시 중심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번성했다. Philip Conner, *Huguenot Heartland: Montauban and Southern French Calvinism during the Wars of Religion* (Aldershot: Ashgate, 2002), pp. 1-4.

104) 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espace et histoire*, vol. 1 (Paris: Flammarion, 1986), p. 86.

105) 아키텐, 랑그독, 프로방스 등 프랑스 남부 지방은 알비 십자군(La croisade des Albigeois, 1208-1229) 이래 툴루즈 백작 레이몽(Raymond VII de Toulouse)이 사망한 뒤 1271년 프랑스에 편입되었지만, 각 지역마다 독립된 정치세력이 존재했고, 결국 15세기 이후에야 프랑스 국왕이 직접 다스리는 지역이 되었다. 더구나 프랑스 남부는 카타 파, 왈도 파 등 다양한 이단세력의 중심지로, 가톨릭교회의 장악력 역시 북부의 그것과는 구별되었다. 실제로 프랑스 남부에서 왈도 파 세력은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1541년 왈도파 공동체 중 다수는 종교개혁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기도 했다. 프랑수아 1세는 왈도파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는데, 1545년 4월 19-20일 왈도파를 상대로 한 학살이 자행되어 삼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랑스 남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프랑스 북부와 여러 차원에서 구별되었으며, 이단 적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폭력이 자행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종교개혁 사상이 침투하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Janine Garrisson, *Protestants du midi: 1559-1598* (Toulouse: Privat, 1991).

106) 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착과 분포에 대해서는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74-77.; 자세한 통계자료는 Samuel Mours, *Les Églises réformées en France: tableaux et cartes* (Paris: Librairie protestante, 1958).

된 남부의 여러 지역들은 여전히 지방 귀족들과 도시 부르주아의 독자적 영향력이 강했고, 파리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왕실에 쉽게 포섭되지 않고 자 하는 정치적 긴장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해당 지역 도시 엘리트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종교적 대안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은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치세력이 적극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수용하는 형태를 띠었고, 정치적 독자성과 체제 안정을 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남부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정치세력과 교회조직이 연대하여 제도화 작업과 사회규율화 작업을 수행하는 형태, 즉 루터의 비텐베르크나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 양상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¹⁰⁷⁾

이에 비해 프랑스 북부의 개혁운동은 자발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위그노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프랑스 왕실이 가톨릭을 수호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을 이단으로 여기며 탄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왕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프랑스 북부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은 교회 뿐 아니라 왕실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다. 이런 양상은 왕국의 수도이자 가톨릭 신학의 중심지인 파리 대학 신학부가 위치한 파리의 경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¹⁰⁸⁾

프랑스 왕권이 위그노 운동을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가톨릭 정체성을 수호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당시 프랑스 왕권의 위상과 가톨릭교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왕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통과 현실적 권력을 지닌 집단 중 하나였다. 특히 프랑스의 왕은 이론적으로는 ‘왕의 두 신체 이론’에 입각, 그 자체로 국가와 동일시되었으며, 현실적으로는 공적 기능을 지닌 관직을 왕의 소유물로 여길 정도로 국가 운영 역시 왕 개인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¹⁰⁹⁾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 왕국은 프랑수아 1세 이래 광범위한 관료조직을 지닌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확

107) Bernard Hours, *L'Église et la vie religieuse dans la France moderne, XVIe-XVII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0), pp. 87-91.

108) Denis Richet, “Aspects socio-culturels des conflits religieux à Paris dans la seconde moitié du XVIe siècle,” *Annales. Économies, société, civilisations*. 32e année, no. 4 (1977), pp. 765-770.

109) 임승휘, 「프랑스 절대왕정의 권력과 행정구조」, 최갑수 외 공저,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pp. 39-43.

실히 발전시키고 있었다.

프랑스 왕권 확립에 있어 가톨릭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동시대 영국이 왕권 확장과 교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교회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고 종교개혁에 편승한 것과는 달리,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국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프랑스 가톨릭교회가 왕권을 후원하는 사상적 전통을 갈리칸주의(Gallicanisme)라고 부른다.¹¹⁰⁾ 갈리칸주의란 프랑스 국왕이 세속 사회에서 자주적 권리를 지니며 교황은 프랑스 내정에 대해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갈리칸주의 지지자들은 교황의 내정간섭을 제한하기 위해 성직자와 국왕이 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톨릭교회가 왕권을 지지하고 교황의 개입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가톨릭 체제 내부에 남아있는 것이 국가의 영향력 확대와 왕권강화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¹¹¹⁾

파리 고등법원(Parlement de Paris)과 파리 대학 신학부(Faculté de Théologie de Université de Paris)는 왕권과 가톨릭교회가 연대해 서로를 강화시키는 프랑스 특유의 가톨릭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실천한 대표적인 집단이었다. 파리 고등법원은 이름과는 달리 프랑스 북부 지역 전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을 담당한 기관으로, 갈리칸주의를 신봉하며 왕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만큼, 프랑스 종교개혁을 저지하는 핵심 기구가 되었다.¹¹²⁾ 고등법원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중 중대

110) 프랑스 가톨릭교회는 대표적인 공의회주의 사상가 장 제르송(Jean Gerson 1363-1429)을 필두로 프랑스 주교 연합체의 결정권이 교황의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사상적 전통을 키워왔다. 프랑스 왕실은 프랑스 가톨릭교회의 이런 움직임이 교황의 내정간섭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 보고 공의회주의자들과 연합, 로마 교황청과 거리를 두려고 시도했다. 샤를 7세는 1438년 부르 국사조칙(國事詔勅; Sanction Pragmatic de Bourges)을 반포하여 프랑스 내 주요 성직을 선출제로 결정하며 성직자들이 성직록을 얻을 때 교황에게 내는 초임세(Annates)를 폐지하는 등 프랑스 공의회주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 법령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인 차원에서 프랑스 기본법으로 간주되었다. 프랑스 가톨릭 교권과 왕권이 연대해 교황에 저항하고 내부적 독립성을 강화하던 프랑스 특유의 경향인 갈리칸주의는 17세기 보쉬에(Bossuet)에 의해 한층 정교하게 이론화되어 프랑스 교회운영의 기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Wallace Klippert Ferguson, *Europe in Transition, 1300-1520*, 이연규, 박순준 공역, 『서양근대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서울: 집문당, 1989), pp. 597-598.

111) Pierre Chaunu, *Le Temps des Réformes: histoire religieuse et système de civilisation. La crise de la chrétienté, L'éclatement (1250-1550)* (Paris: Fayard, 1975), pp. 488-491.

112) 고등법원(Parlement)은 구체제 시기 최종 종심법정(終審法廷)으로, 국왕 칙령을 등기(enregistrement)하고 재판을 통해 이를 집행하는 프랑스 사법체계의 핵심기관이었다.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 왕국 삼분의 일을 관장하는 전국적 사법기구로, 왕국 영토 확장의 도구이자 중앙집권국가 형성에 결정적

한 사안을 ‘심각한 범죄(les cas énormes)’¹¹³⁾라고 부르며 엄히 처벌해왔는데, 파리 고등법원은 프랑스에 칼뱅파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모든 종교개혁적 시도에 이 항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고 종교개혁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이었다.¹¹⁴⁾

파리 고등법원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억압하는 실제적 수단이라면, 파리 대학 신학부는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을 상징하는 집단으로 종교개혁에 저항하는 신학적 논리를 제공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 최고의 스콜라 신학자를 배출한 파리 대학 신학부는 중세 가톨릭 질서의 사상적 보루로, 중세 내내 가톨릭교회의 기준에 맞는 정통(orthodoxe)이 무엇인지 학문적으로 이론화할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다. 1520년 대학의 종신 감독관(syndic)에 임명된 노엘 베다(Noël Bédard, 1470-1537)의 지휘 아래, 파리 대학 신학부는 루터의 사상을 학문적으로 반박하거나 종교개혁 사상을 담은 서적을 검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톨릭 신학에 저항하는 모든 시도를 원천봉쇄하고자 노력했다.¹¹⁵⁾ 왕권과 고등법원, 그리고 파리 대학 신학부로 구성된 삼자간 공조체제는 프랑스 북부, 특히 파리에서 종교개혁을 조직적으로 탄압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또한 파리 시민들이 가톨릭 신앙을 정체성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매개로 사용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⁶⁾ 파리 시민들은 구원이란 개인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었고, 따

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성재, 「구체제 시기 고등법원의 구성과 역할」,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pp. 69-71.

113) ‘심각한 범죄’에는 이단, 언어나 행동을 동반한 신성모독, 마녀, 영아살해, 동성애, 배우자 살해, 근친상간, 독살 등이 포함된다. William Monter, *Judging the French Reformation: Heresy Trials by Sixteenth Century Parlement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9), pp. 7-17.

114) 이단법정은 파리 고등법원 내 설치되어, 이단심판과 처벌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던 기관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단법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탄압의 기세가 오히려 꺾이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몬터는 1540년에서 1560년 사이 이단관련 처벌에서 사형은 약 10%에 그치고 있어 사형 등 극형은 상징적인 효과가 강할 뿐 실질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교세를 직접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는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Ibid.*, pp. 116-145.

115) Léon Christi, “Luther et la Faculté de Théologie de Paris,”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ome 32. no. 120 (1946), pp. 63-77.

116) 파리 시민들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왕국과 수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노트르담에서 거대한 미사를 올리고 성만찬을 나누거나, 파리의 수호 성인 생트 주느비에브(Sainte Geneviève)의 성유물을 들고 파리 시내를 일주하곤 했다. Barbara B. Diefendorf, *Beneath the Cross: Catholics and Huguenots in Sixteenth Century Pari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1), pp. 28-29.

라서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집단의 평화가 깨질 뿐 아니라 집단 전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지니고 있었다.¹¹⁷⁾ 따라서 위그노들은 파리 공동체의 구원을 가로막는 용납될 수 없는 존재로 취급되었고, 결과적으로 파리 시민들은 위그노에 대한 공격을 공익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라 해석하게 되었다. 파리 시민의 이런 망탈리테는 프랑스 종교전쟁이 왜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같은 격렬한 폭력을 동반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¹¹⁸⁾

결과적으로 프랑스 북부, 특히 파리의 위그노들은 갈리칸주의에 근거한 왕권과 이를 집행하는 고등법원에 대한 반역자이자 파리 대학 신학부로 상징되는 종교적 전통을 부인한 이단이며, 파리 시민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막는 ‘페스트’¹¹⁹⁾로 낙인찍혀, 격렬한 탄압과 폭력, 학살의 피해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위그노에게 가해지던 이런 엄청난 압력을 고려하면, 파리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것은 분명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로 파리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이들의 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 더구나 파리를 필두로 프랑스에서 진행된 개혁운동은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교세를 확장하며 활발한 신학적 토론까지 이루어질 정도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117) 파리에서 열리던 많은 축제 중 파리의 공동체의식과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연계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로 성체축일 축제(*Corpus Christi*, *Fête-Dieu*)를 들 수 있다. 성체축일 축제는 길드와 평신도회(*confrérie*)에 소속된 모든 조합원들에게 성만찬을 행하는 의식이었는데, 이런 공동체 행사를 통해 파리 시민들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가 구원의 단위라는 사고방식을 내면화하게 되었다. John Bossy, *Christianity in the West, 1400-1700*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p. 72.

118) 많은 학자들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은 물론 프랑스 종교전쟁 과정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이 행해진 이유로 정치적 반감보다는 종교적 공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ck P. Holt, “Putting Religion Back into the Wars of Relig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8, no. 2 (Autumn, 1993), pp. 524-551.

119) Anne-Marie Brenot, “La peste soit des Huguenots. Étude d’une logique d’exécration au XVI^e siècle,” *Annales: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 vol. 11, no. 4 (1992), p. 553-554.

제 2 절 선민의식과 순교자 정서의 확립

파리 위그노 공동체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성장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된 과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은 보통 세 단계 진행양상을 보이는데, 첫 단계는 1520-30년대 르페브르 데타플(Jacques Lefèvre d'Étaples, 1455-1536)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복음주의(Évangéliste) 운동 단계,¹²⁰⁾ 두 번째는 1534년부터 1572년까지 칼뱅과 신앙의 도입으로 위그노 집단이 형성되고 왕권의 탄압에 맞서 양자의 갈등이 내전으로 확장된 시기, 마지막으로 1572년 생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1598년 낭트칙령까지의 시기로, 학살로 인해 격화된 후기 종교전쟁이 앙리 4세의 즉위와 낭트칙령 반포로 마무리된 단계로 구분된다. 파리의 개혁운동은 주로 두 번째 단계의 현상이므로, 1534년부터 1572년까지 프랑스 종교개혁의 진행상황과 위그노의 교세확장을 검토하면서 그 동력이 된 파리 위그노의 종교적 정체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프랑스 종교개혁 첫 번째 시기인 1520년대에서 1530년대까지, 당시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는 복음주의 운동 등 가톨릭 관행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강조하던 새로운 흐름에 관대한 편이었다.¹²¹⁾ 그러나 1540년대 칼뱅주

120)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은 프랑스의 대표적 휴머니스트이자 신학자이다. 르페브르 데타플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복음주의 운동 세력은 모(Meaux)의 주교였던 기욤 브리소네(Guillaume Briçonnet, 1472-1534)의 초청을 받아 그 지역 교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직접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을 총칭해서 ‘모 그룹’이라고 부른다. 르페브르 데타플의 신학적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데타플은 성경을 매개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통해 직접 교류할 수 있으며, 복음서에 대한 지식을 지적인 수준 이상으로 발전시켜 신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존재감에 공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 데타플은 전형적인 휴머니스트였지만, 에라스무스보다 더 신학적인 사고에 능했고, 믿음과 성경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루터와도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선행을 강조하고 인간의 영적 노력의 가능성을 믿는 등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루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르페브르 데타플을 중심으로 한 모 그룹의 복음주의운동은 당시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누이인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 de Navarre, 1492-1549)의 후원을 받았고, 이는 프랑수아 1세가 상당 기간 가톨릭교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닌 종교사상가들을 탄압하지 않고 묵인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e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18-19.

121) 절충주의적이고 주지주의적이라고 평가받는 프랑스 복음주의운동도 이후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1530년 르페브르 데타플이 프랑스어 번역판 성경을 출판했기 때문이었다. 교회의 중재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을 이단시하던 파리 대학 신학부는 이에 정면으로 반발했고, 결국 모 그룹은 고등법원의 탄압 대상이 되었다. 누이 마르그리트 때문에 모 그룹을 지원해주던 프랑수아 1세는 당시 1525년 파비 전투의 패배 이후 포로로 잡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잃은 모 그룹 소속 사상가들은 결국 슈트라스부르크로 도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의의 프랑스 유입은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놓게 되었다. 라틴어와 독일어로만 소개되던 루터의 신학에 비해, 프랑스 출신 칼뱅이 집필하고 프랑스어로 출간된 『기독교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라틴어 초판 1536, *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프랑스어 초판 1541)의 도입은 프랑스 내 새로운 종교적 대안을 바라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게 되었다. 1단계 프랑스 종교개혁이 복음주의적 대안을 지녔던 학자나 루터파를 받아들인 소수 강경파 집단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에 비하면, 2단계 종교개혁 시기의 중심은 칼뱅파 신앙에 따라 설립된 교회를 중심으로 뭉친 ‘위그노(huguenots)’ 공동체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은 본격적인 종교 탄압의 시대가 개막되는 결과를 낳았다.

프랑스 왕권은 신속하게 위그노 공동체 탄압에 나섰다. 1534년과 35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자보 사건(*l'affaire des placards*)¹²²⁾으로 종교개혁 사상에 대해 이미 경각심을 느끼고 있던 프랑수아 1세는 1540년 퐁텐블로 왕령(*l'ordonnance de Fontainebleau*)을 반포, 이단을 “신성한 왕권과 왕 개인에 반하는 범죄”¹²³⁾라 선언했다. 이는 가톨릭에서의 이탈을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까지 해석하겠다는 의미였다. 이후 프랑스 종교개혁 진영에 대한 탄압은 점차 가속화되어, 1542년 서적 검열이 제도화되고 1543년에 금서 목록이 작성되었으며, 1551년 샤트브리앙 칙령(*l'édit de Châteaubriant*)에서는 “성스러운 사도가 터를 닦은 교회의 통일을 막고 있는”¹²⁴⁾ 나라에서 만들어진 책을 수입하거

룹은 와해되었다. *Ibid.*, pp. 28-29.

122) 1차 대자보 사건(*l'affaire des placards*)은 1534년, 2차 사건은 1535년에 일어났는데, 앙투안 마르쿠르(Antoine Marcourt, ?-1561)라는 ‘루터파’ 신도가 가톨릭 미사를 공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프랑스 전역에 게시하고 이후 성체성사를 공격하는 소책자를 작성, 반포한 사건을 뜻한다. 그동안 복음주의적 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지지를 표하던 프랑수아 1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루터파 신학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여기고 파리 고등법원과 파리 대학 신학부와 동조해 종교개혁 가담자를 적극적으로 탄압하게 되었다. 이후 프랑수아 1세는 직접 검열을 강화하는 칙령을 내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화형 당했으며, 칼뱅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망명길에 올랐다. *Ibid.*, pp. 37-41.

123) 퐁텐블로 왕령에는 정치적 배경도 존재한다. 프랑수아 1세는 1530년대까지는 칼 5세와의 대립 때문에 루터파 제후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했으므로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1538년 이후 이런 정치적 제휴가 끝나면서 1540년 프랑수아 1세는 프로테스탄티즘을 전면 탄압하는 퐁텐블로 칙령을 반포하게 된다. Bernard Hours, *L'Église et la vie religieuse*, p. 83.

나 이를 소지한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기관이 1547년 앙리 2세에 의해 설치된 ‘이단법정(일명 화형법정, chambre ardente)’이다.

왕권이 프로테스탄티즘을 본격적으로 억압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위그노 세력은 소규모 내부 공동체의 역량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성장했다. 『기독교강요』가 도입된 지 이십여 년 후인 1560년 초, 칼뱅파로 개종한 프랑스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약 십 퍼센트인 이백만 명을 상회하게 되었다.¹²⁵⁾ 교세의 확장을 목도한 정치권도 이제는 위그노들을 이단으로 몰아 극형이라는 수단으로만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도달하였다.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프랑스 내부에 가톨릭교회를 통해 종교적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반증한다. 프랑스 위그노들 중에는 프랑스 남부의 상황처럼 정치적 이유로 개종한 이들이 많았지만, 프랑스 북부, 특히 파리에서 개종한 이들은 대부분 종교적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위그노 중 대다수는 상당한 교육수준을 지닌 부르주아 또는 귀족 출신이었고, 이들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 좀 더 손쉽게 구하게 된 서적을 통해 칼뱅파 사상을 접하고 새로운 구원개념을 통해 영적 불안감을 해소할 길을 찾고자 했다.¹²⁶⁾ 더구나 칼뱅파 사상은 그 속성상 신학적 논쟁보다는 종교개혁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전달하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프랑스 내부에서 새로운 종교적 대안에 따라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회구하던 이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인 교리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¹²⁷⁾

124)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 63.

125) 16세기 중반 프랑스의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엇갈리고 있다. 동시대 작성된 베즈의 기록에 따르면, 1562년 프랑스에는 2150개의 칼뱅파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과장된 수치이며, 위그노 공동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았다고 보는 편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1560년대 초로, 이때 위그노의 수는 본문에 적시한 대로 이백만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별로 구체적인 신도명단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리 등 주요 지역의 위그노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126) Denis Crouzet, *La Genèse de la réforme française, 1520-1562* (Paris: Sedes, 1996), pp. 346-358.

127) 프랑스 종교개혁은 새로운 신학논쟁보다는 가톨릭과 다른 종교적 형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통해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결과

제네바가 프랑스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과 프랑스어로 작성된 칼뱅의 저작과 설교가 프랑스인들에게 쉽게 수용되었다는 점,¹²⁸⁾ 그리고 칼뱅의 적극적 선교의지도 위그노 교세 성장에 큰 몫을 담당했다. 칼뱅은 『기독교강요』의 초판을 프랑수아 1세에게 헌정할 정도로 조국 프랑스에 대한 강력한 선교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칼뱅은 프랑스 선교를 위해 1555년 제네바 목사회(Compagnie des pasteurs)를 조직, 프랑스에 칼뱅주의를 전파할 목사를 파견하거나, 1559년 프랑스 선교를 위한 목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신학교를 만들기도 했다.

칼뱅파로 개종한 프랑스인들은 개인적인 신앙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제네바 모델에 의거한 칼뱅파 개혁교회(l'église réformée française)를 설립했다.¹²⁹⁾ 그런데 이런 개혁교회의 성립은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가 직접 제네바 측에게 목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거나, 프랑스 공동체에서 직접 목사가 될 후보생을 선발, 제네바 등지에서 교육을 받게 한 후 그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등 자발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¹³⁰⁾ 1555년 9월 프랑스 파리에 최초의 칼뱅파 개혁교회가 세워진 이래,¹³¹⁾ 1550-60년대에

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구체적인 종교의식과 형식에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당시 프랑스에 유입되었던 많은 칼뱅파 서적 중 칼뱅파 교회의 성무일지(calendrier, almanach)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를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Max Engammare, *L'ordre du temps: l'invention de la ponctualité au XVIe siècle* (Geneve: Droz, 2004), pp. 127-180.

128) 16세기 중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프로테스탄트 관련 서적을 인쇄하던 유명 인쇄업자 크레스팽(Jean Crespin), 에스티엔(Robert Estienne), 바디우스(Conrad Badius) 등이 제네바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제네바에 자리 잡고 칼뱅의 『기독교강요』나 설교 등은 물론, 시편집(le psautier, 시편의 내용을 번역하거나 찬송으로 만든 것)과 성무일지 등을 프랑스어로 출간, 작은 판본으로 만들어 프랑스 지역에 판매하였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56-60.

129) 프랑스에서 위그노 신도들은 칼뱅파 모델에 의거해 세워진 교회를 '조련된 교회(Église Dressée), 혹은 '이식된 교회(Église Plantée)'라고 불렀다. 트루아(Troyes) 지역의 교회건설은 '조련된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연구로 Penny Robert, *A City in Conflict: Troyes during the French Wars of Relig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96), pp. 52-75.

130)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관심을 갖고 제네바에 목회자 파견을 요청한 지역으로 노르망디, 포아투, 가스코뉴, 랑그독, 일 드 프랑스, 오를레앙 등지를 들 수 있다. 제네바에서는 1555년부터 1562년까지 약 이백 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프랑스에 파견하였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60-61.

131) 당시 격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세례와 성찬식 등 종교의례를 정식으로 받고자 하는 위그노들의 갈망 때문이었다. 가톨릭 성체성사와 미사를 거부한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의례에 맞춰 예배를 진행하고, 개혁교회의 원리에 따라 세례와 성찬식을 운영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1555년 9월 멘(Maine)에서 온 라 페리에르(Sieur de La Ferrière)가 자신의 아들에게 개혁교회신앙에 맞추어 세례를 주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계기로, 파리의 개혁

는 프랑스에서 천 이백에서 천 칠백 개 정도 공동체에 ‘개혁 교회’가 건설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내부의 종교적 의지와 외부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 당시 위그노 세력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되었다.¹³²⁾

1560년대 위그노 세력은 이렇게 확장된 교세를 바탕으로 내외적 조직 체계 정비에 나섰다. 프랑스에 자리 잡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교회 단위로 장로, 집사, 컨시스토리 등 내부 조직을 발전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각 지역에 설립된 모든 교회들을 연대해 총괄할 상부 조직을 구성하였다.¹³³⁾ 프랑스 모든 교회가 참석해 열리는 국가적 규모의 가장 큰 집회를 전국 시노드(synode national de France)라고 불렀는데, 그 첫 회의는 1559년 5월 25일에서 29일 파리에서 비밀리에 개최되었고, 이후 프랑스 칼뱅파 조직의 체제와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는 핵심적 조직체로 존속하게 되었다.¹³⁴⁾ 프랑스 칼뱅파 조직은 전국 시노드에서 자신들의 신앙내용을 고백하는 신앙고백(Confession de Foi)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규칙을 결정하는 규율집(Discipline Ecclésiastique)을 제네바의 직접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구성, 결의하였다.¹³⁵⁾

신앙공동체는 비밀 회합을 열어 장 르 마송(Jean Le Maçon, 별칭 La Rivière)을 목사로 선출하고 컨시스토리 임원을 구성하였는데 그것이 프랑스 내에서 건립된 칼뱅파 교회의 첫 출범이었다. 이후 1555년 다섯 개의 교회가 더 생기고(Angers, Meaux, Poitiers, Loudun, Arvert) 1556년에는 여섯 개 교회가 더 생기는 등 프랑스에서 칼뱅파 신앙에 근거한 개혁교회의 수는 점차 증가하였다. *Ibid.*, p. 72.

132) Bernard Hours, *L'Église et la vie religieuse*, pp. 87-93.

133) 장로라는 속인이 교회 조직 전반에 강력하게 참여하고 모든 교회가 모여 회의를 갖는 이런 개혁 교회의 시스템을 장로-시노드 체제(presbyto-synodal systeme)라고 불렀다. 이는 프랑스뿐 아니라 칼뱅파가 전파된 모든 지역 교회구성의 근간을 이루는 체제라 할 수 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88-91.

134) 1차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규모에 대해서는 열두 개 교회 대표가 모였다는 설에서 칠십 개 교회 대표가 모였다는 설까지 다양하나 비교적 소규모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닷새 간 이 시노드를 이끈 사람은 파리의 교회 목사인 모렐(Francois de Morel) 이었는데 여기 참석한 가장 유명한 인물로 칼뱅파 사상이 앙투안 상디외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시노드는 칼뱅파 교회의 회합은 물론 존재 자체도 불법화된 상황에서 시도된 것이므로 비밀리에 열린 집회였다. 이후 프랑스 전국 시노드는 1659년까지 모두 스물아홉 번 소집되었고, 1661년 루이 14세의 즉위 이후 공식적 운영이 중지되었다. *Ibid.*, pp. 72-73.

135) 칼뱅은 처음부터 프랑스 개혁파 전국 시노드의 작업이 비현실적이라 치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칼뱅은 내심 그들이 본인이 작성한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제네바 신앙고백, 또는 베즈가 1559년 작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 중 하나를 채택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 시노드는 독자적 역량을 발휘, 총 사십 개 항목에 이르는 프랑스 신앙고백을 확정했다. 이는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전조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이후 1571년 라 로셴에서 열린 전국 시노드에서 베자의 지휘아래 칼뱅의 제네바 신앙고백과 프랑스 신앙고백이 결합된 최종 완성판이 등

지역 공동체의 요청을 통해 제네바에서 목사를 초청하고, 자발적으로 교회 조직을 세우고 장로를 선출하며, 비밀리에 전국 규모의 시노드를 조직하고 신앙고백과 규율집을 정비하는 등, 개혁교회 정착과정에서 프랑스 위그노들이 보여준 의지와 추진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단으로 박해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개혁교회는 제네바에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상을 가다듬고 조직을 성장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당시 프랑스 전국 시노드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평신도 연합체를 교회권력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하고 발전적인 사상적 논의까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¹³⁶⁾

프랑스 종교개혁 수용과정에서 드러난 위그노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성격이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 곳은 바로 왕국의 수도 파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파리는 국가적 탄압의 중심으로 많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했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는 규모도 작았고, 1563년 앙부아즈 칙령(*l'édit d'Amboise*)¹³⁷⁾에 의해 그 존재를 인정받기 전까지 비밀리에 운영되던 지하 조직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리는 프랑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발전하며 쇠퇴하는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특별한 기억을 간직한 도시로, 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의 현실적, 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규모와 속성, 그리고 그들을 개종으로 이끈 동기

장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다. 해당 내용은 *Ibid.*, pp. 84-87. 문건의 내용은 Olivier Fatio, ed., *Confession et catéchisme de la foi réformée* (Genève: Labor et fils, 1986), pp. 111-128.

136) 위그노 사상가 장 모렐리(Jean Morély, 1524-1594)는 컨시스토리의 권위주의를 경계하고 지방 시노드와 전국 시노드가 지닌 위계적 속성을 비판하면서, 이들은 단지 자문기관에 그쳐야 하고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562년 모렐리는 이 주장을 담은 저서 『그리스도교적 규율과 정제에 관하여』(*Traicté de la discipline et police chretienne*)를 출판했는데, 이는 칼뱅과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공화적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 모렐리는 과문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여러 차례 시노드의 안건으로 등장하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장 모렐리의 사상에 대해서는 Philippe Denis et Jean Rott, *Jean Morély et l'utopie d'une démocratie dans l'église* (Genève: Droz, 1993).

137) 앙부아즈 칙령은 제 1차 종교전쟁의 종식과 함께 반포된 칙령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합법화했으며, 각 지역마다 특정 도시를 지정, 그 곳에서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앙부아즈 칙령 이후 파리에서 위그노 예배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Mack P. Holt,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pp. 50-56.

남성	여성	신분		직업	
472명	56명	성직자	1%	사제	1%
		귀족	9%	귀족	9%
		제3신분	72%	고위관직보유자	4%
				하위관직보유자	22%
				상인	15%
				수공업자	31%
		총 528명		파악불가	18%
기타	13%				

[표 1] 1564년-1572년 간 파리에서 이단으로 체포된 이들의 성별, 신분, 직업분포를 찾는 일은 사료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파리 위그노 공동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 디펜도르프(Barbara B. Diefendorf)는 1564년부터 1572년까지 파리에서 이단으로 체포된 사람 528명의 신상명세를 통해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조명해보려 시도했다. 이들의 직업과 성별을 분석한 결과, 중소 상인, 수공업자 등 부르주아의 비율이 높았고,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았으리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여성의 수도 적지 않았다. 도시 부르주아 지식층이 프랑스 종교개혁에 가담한 핵심 계층이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비교해 볼 때, 파리 위그노들의 직업 분포나 계층 관계, 교육수준은 다른 지역의 위그노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¹³⁸⁾

그러나 디펜도르프는 파리 위그노들은 다른 지역 위그노에 비해 종교적 동기에 의해 개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개종 이후에도 뚜렷한 ‘선민의식’과 ‘순교자 정신’을 보이는 등 다른 지역 위그노들과 구분되는 망탈리테를

138)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은 무척 도시적인 현상으로, 위그노 공동체 구성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갖춘 부르주아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1]에 나타난 디펜도르프의 파리 위그노 분석 결과 역시 당시 프랑스의 일반적 경향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또한 검거된 이단 중 파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비율은 30% 정도였으며, 대부분은 일 드 프랑스나 프랑스 전역에서 파리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 파리의 유동적 속성이 드러난다. 또한 체포된 사람의 거주지가 파리 전 지역에 걸쳐 고루 퍼져 분포하고 있는 점을 봐서 특정 지역에만 공동체가 있었다기보다는 파리 전 지역에 작은 공동체 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Barbara Diefendorf, “Les divisions religieuses dans les familles parisiennes avant la Saint-Barthélemy,” *Annales,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 vol. 7, no. 1 (1988), pp. 56-63.

지니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그노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극심했던 파리에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에, 이런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티즘에 감화되어 개종한 파리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신으로부터 종교적 사명을 받은 ‘선택된 자(les élus)’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파리 위그노들은 신으로부터 선민이라는 “씨앗”을 받은 이상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이 믿음의 씨앗을 키워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여겼다.¹³⁹⁾ 따라서 파리 위그노들은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강건한 종교적 정체성을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⁴⁰⁾

파리의 위그노들의 종교적 망탈리테를 이론화한 디펜도르프는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정서를 파악하기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힘든 작업이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파리는 왕권과 고등법원, 파리 대학 신학부의 공조 체제 속에 프랑스 어떤 지역보다 강력한 탄압이 떨어진 도시였고, 이런 현실적 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파리 위그노들은 다른 지역 위그노보다 더 강력하고 능동적인 종교적 정체성을 키워야 할 상황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칼뱅을 비롯한 제네바 종교개혁가들은 파리를 비롯, 박해에 처한 위그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다.

종교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그노 공동체가 활용한 가장 핵심적 도구는 다른 아닌 종교서적이었다.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저작 출판과 유통의 황금기는 1560년에서 1565년까지인데, 이 시기 프로테스탄트 저작의 출판물 수는 가톨릭 진영의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¹⁴¹⁾ 이런 프로테스탄트 저술 중 가장 많이 출판되고 유통된 저작 중

139) 이는 칼뱅의 신학에서 기본이 되는 성화(sanctification) 개념과도 상통한다. Barbara B. Diefendorf, *Beneath the Cross*, p. 122.

140) *Ibid.*, pp. 112-123.

141) Andrew Pettegree and Matthew Hall, “The Reformation and the Book: A Reconsideration,” *The Historical Journal*, vol. 47, no. 4 (Dec., 2004), p. 804. 페티그루(Andrew Pettegree)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인쇄물의 유통에 대해 연구한 학자이다.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Huguenot Voices: The Book and the Communication Process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Greenville: East Carolina Univ. Press, 2000); *The French Book and the European Book World* (Leiden: E. J. Brill, 2007).

하나로 시편집(psautier, psalter)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위그노들은 특히 시편에 음보(音譜)를 붙여 찬송가로 만든 시편찬송집(metrical psalter)을 선호했는데, 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행본의 형태로 만들어 보급한 선구적 인물은 다름 아닌 칼뱅이었다.

칼뱅은 제네바에 부임하기 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목사로 활동할 때 마로(Clément Marot, 1496-1544)가 불역한 시편을 접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감명을 받아 이를 찬송으로 만든 후 1539년 제네바에서 출판하였다. 마로와 칼뱅이 합작한 이 시편은 “개혁신앙의 영성을 지키는 핵심 텍스트가 되었고 칼뱅과 교회의 전투성을 고취시키는 결정적 도구”¹⁴²⁾로 활용되었다. 칼뱅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시편찬송이 교회 신도들을 연합하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였는지 직접 경험한 바 있다.¹⁴³⁾

위그노 공동체에서 프랑스어 시편과 시편찬송집은 큰 인기를 끌었고, 시편을 찬송하는 행위는 위그노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징표로 여겨졌다. 위그노 공동체에서 시편의 역할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프랑스 위그노들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을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약성서의 다윗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 미약한 능력과 조건 때문에 온갖 역경을 겪지만 끝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승리를 쟁취하는 인물이기때, 위그노들은 자신의 상황을 다윗에 투영하면서 고난에 맞설 힘과 용기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¹⁴⁴⁾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에서 시편을 활용한 사례는 각종 기록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1551년 리옹에서 인쇄업에 종사하던 직원들은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중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편을 찬송하며 성당을 습격,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고,¹⁴⁵⁾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군대는 출정에 앞서 시편을 찬송하며 전투에

142) Barbara B. Diefendorf, *Beneath the Cross*, p. 137.

143) Andrew Pettegree and Matthew Hall, “The Reformation and the Book: A Reconsideration,” pp. 805-806.

144) Barbara Pitkin, “Imitation of David: David As a Paradigm for Faith in Calvin’s Exegesis of the Psalms,”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4, no. 4 (Winter, 1993), pp. 849-861.

145) Natalie Zemon Davis, “Strikes and Salvation at Lyon,”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pp. 4-5.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다듬곤 했다. 또한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첫 남편 장 드 파는 시편 2편을 읽다가 위그노로 개종하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한 위그노적 정체성을 제 3차 종교전쟁에 참전하며 직접 실현하다가 전사하기도 했다.¹⁴⁶⁾

시편 외에 위그노 공동체에서 인기를 끌었던 또 다른 종교적 저술은 순교자의 일대기를 엮는 모음집이었는데, 대표적인 저작으로 장 크레스팽(Jean Crespin, 1520-1572)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죽음을 감당한 여러 순교자들의 이야기』(*Le Livre des martyrs qui est une recueil de plusieurs martyrs qui ont endure la mort pour le nom de Notre Seigneur Jesus-christ*, 초판 1554, 7판 1570)를 들 수 있다. 크레스팽은 프랑스 출신이지만 칼뱅파로 개종한 후 박해를 피해 제네바로 망명했으며, 그곳에서 인쇄업에 투신, 상당한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순교자의 일화를 엮은 크레스팽의 저작은 1554년 처음 발간된 이래 1570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정, 개편되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크레스팽의 저작은 단순히 순교자의 일화를 엮은 사례집의 성격을 탈피하여 가톨릭교회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기록한 저술로 발전해나갔다.¹⁴⁷⁾ 크레스팽은 프랑스에서 위그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고무하기 위해 해당 저작을 집필했고, 따라서 단순한 풍문이나 지나치게 과장된 사례들도 개의치 않고 저술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저작의 내용을 사료로 활용하려면 상당한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¹⁴⁸⁾

그러나 크레스팽의 저술에 등장하는 순교 이야기는 당시 파리 위그노들에게 요청되었던 종교적 정체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가늠하는 잣대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순교자를 다룬 저작의 사회적 기능을 분석한 셰파드슨(Nikki Shepardson)은 당시 프랑스 위그노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와 그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해석하는 데 순교자의 이미지

146) 장 드 파의 개종사례는 논문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147) Nikki Shepardson, *Burning Zeal: The Rhetoric of Martyrdom and the Protestant Community in Reformation France, 1520-1570* (Cranbury: Lehigh Univ. Press, 2007), p. 62.

148) 크레스팽의 저술이 지닌 사료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David Watson, *The Martyrology of Jean Crespin and the Early French Evangelical Movement, 1523-1555*, Ph. D. thesis of University of St Andrews, 1997, pp. 13-41.

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파리 위그노들에게 탄압과 박해는 일상 속에 공존하는 현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동지가 화형당하는 순교의 현장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다. 세파드슨은 위그노들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아래 순교자들을 폭군에 저항하여 신의 섭리를 실현한 존재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크레스팽의 저작은 위그노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이며 이를 위해 기꺼이 저항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키우는 수단이 되었다.¹⁴⁹⁾

파리 고등법원 판사인 안 드 부르(Anne de Bourg, 1521-1559)의 순교 사례는 파리 위그노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하는 증거이자 폭군에 대한 저항의지를 다지는 근간으로 활용했는지 입증하는 대표적 경우라 할 수 있다. 안 드 부르는 오를레앙에서 법학교수를 지낸 지식인으로 파리 고등법원 판사로 재임 중,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고등법원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고 자신의 개혁신앙을 밝힘으로서 화형에 처해진 인물이다. 안 드 부르는 당시 프랑스 내 선교를 위해 순교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던 칼뱅¹⁵⁰⁾을 비롯, 각종 위그노 저술에 자주 소개되던 순교자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¹⁵¹⁾ 크레스팽 역시 1570년 발간된 『순교의 역사』에서 안 드 부르의 사례를 고등법원에서의 심문과 세 차례의 청원, 신앙고백, 그리고 죽기 전 남긴 연설 등 세 단계에 걸쳐 자세히 소개했다.¹⁵²⁾

149) Nikki Shepardson, *Burning Zeal*, p. 62.

150) 칼뱅은 1530년대 중반부터 이미 순교자라는 테마를 설교 주제로 사용했으며, 특히 프로테스탄트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에 대해 강경하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칼뱅은 특히 국가적 탄압이 두려워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사람들을 니고데모 파(nicodemites)라고 부르며, 이들을 비난하는 저작을 쓰기도 했다. (*Excuse à messieurs les Nicodemites*, 1544). 칼뱅은 특히 프랑스의 경우 신앙을 외면화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감안, 이런 애매한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순교자의 일화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69-70.

151) 안 드 부르는 판사라는 신분으로 칼뱅과 대의를 주장하며 순교했기 때문에, 왕권이 신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때 관료 등 사회 지도층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칼뱅과 저항 논리를 구성할 때 무척 적절한 사례였다. 켈리(Donald Kelley)는 안 드 부르의 사례가 공론화되는 과정을 보면 위그노의 담론이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저항과 행동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발전하는 양상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Donald R. Kelley, "Martyrs, Myths, and the Massacre: The Background of St. Bartholomew,"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7, no. 5 (Dec., 1972), pp. 1332-1340.

152) Jean Crespin, "Anne de Bourg, Conseiller au Parlement de Paris," *Histoire de vrai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évangile*, pp. 526-536.

크래스팽의 기록에 따르면, 안 드 부르는 가톨릭교회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이탈하였으며, 이를 극복할 방법은 이신칭의론 등 개혁신앙의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본인이 그리스도교 신자이며, 단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맞추어 살고 또 죽고자 함을 밝힌다. (중략) 교황을 비롯해 인간들이 정한 법률 중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가 많이 존재한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 정한 규칙들을 잘못 해석하거나 온갖 미신적 요소를 첨부해놓았다. 오늘날 교황주의자들의 오류는 이렇듯 셀 수 없다. 이는 모두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그리스도 교인들은 이런 규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 (중략) 성부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신 결과, 인간은 영생을 얻을 기회를 다시 찾게 되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종교의 근간이라 생각하기에, 지금 개혁교회의 입장에 찬성하며, 교황청의 체제와 규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의 그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¹⁵³⁾

이처럼 이신칭의론과 성경중심주의를 기반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교황을 강력히 거부하는 태도는 안 드 부르의 신앙고백 뿐 아니라 파리 위그노들의 개종 경험을 다룬 자료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 역시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며 위그노 목사들의 설교에서 그 대안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¹⁵⁴⁾

위그노 믿음이야말로 올바른 그리스도교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고 설파한 후, 안 드 부르는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뜬 올바른 위그노 교도라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활용, ‘적(敵) 그리스도의 왕국’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나는 관료라면 단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교회에 관련된 사안이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미신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모든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

153) *Ibid.*, pp. 531-532.

154) 기 아르발레스트의 개종과정은 논문 4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서라면 죽음에 이르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¹⁵⁵⁾

안 드 부르의 순교 사례를 통해 크래스팽은 위그노들이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활용해 올바른 신앙을 전파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처럼 크래스팽의 저술은 파리 위그노들이 안 드 부르처럼 강인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채 박해에 대항하기를 요청하는 종교적 지침서로 활용되어, 파리 및 프랑스 전역에 널리 유통되었다.¹⁵⁶⁾

파리의 위그노들은 박해와 탄압에 맞서 시편찬송집과 순교자의 이야기를 다룬 저술에서 추구하던 강인한 종교적 신념을 갓출 것을 요청받았다. 파리 위그노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파리 위그노 중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을 겪고도 여전히 개종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종교를 인생의 중심에 둘 정도의 견고한 위그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572년 8월 24일 시작되어 파리를 피로 물들인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Massacre de St. Barthélemy)은 파리 위그노들의 종교적 심성을 시험하는 최악의 관문이었다. 제 3차 종교전쟁 이후 가톨릭과 위그노 진영의 화합을 위해 거행된 앙리 드 나바르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결혼은 파리에서 이천 명, 지방에서 삼천 명 이상의 위그노들을 죽음으로 이끈 학살의 전조가 되었다.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엄청난 폭력을 동반한 극적인 경험으로 파리 위그노 공동체를 뒤흔들었고, 결국 프랑스 종교개혁의 성격을 재규정하기에 이른다.¹⁵⁷⁾

생 바르텔르미 학살에 직면한 파리 위그노들에게는 순교, 망명, 가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이때 안 드 부르가 지녔던

155) Jean Crespin, "Anne de Bourg, Conseiller au Parlement de Paris," *Histoire de vrai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évangile*, p. 533.

156) Denis Crouzet, *La Genèse de la réforme française*, pp. 433-438.

157)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프랑스 내 위그노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이후 프랑스 위그노들 사이에서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교회와 연대한 프랑스 왕국까지 전면 부정하는 과격파들의 입지가 확대되었다. Mack P. Holt, *The French Wars of Religion*, pp. 82-97.

수준의 높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녔던 이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고 해외로 망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미처 이런 수준의 종교적 성취를 지니지 못했던 위그노들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압도적 폭력에 굴복하였고, 결국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실제로 많은 수의 위그노들은 학살과 내전의 위협에 굴복해 가톨릭 신앙으로 재개종했고, 결국 최전성기였던 1550-60년대 이백만 이상이던 위그노의 수는 16세기 말 절반 정도로 반감되기에 이르렀다.¹⁵⁸⁾

프랑스 위그노의 절대적 숫자가 차츰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칼뱅과 전래 초기 위그노들이 보여준 역동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의지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입증하며, 동시에 17세기가 되도록 프로테스탄티즘 진영에 남아있던 위그노라면, 칼뱅과 종교개혁가들이 시편 찬송집이나 순교자 이야기를 통해 고취시키려던 강력한 종교적 결단력과 행동력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바로 이런 종류의 위그노였다. 종교적 각성으로 탄압과 학살의 순간까지 버텨내야 했던 파리 출신 위그노들의 상황은 모두 어려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의 처지가 가혹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시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에게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다는 것은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과 이를 실천하는 적극적 자세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폭력과 학살이 난무하던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여성의 위상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역할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위그노 공동체에서 여성은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었다.

158) 16세기 중반과는 달리 17세기 위그노 신도의 수와 교회의 규모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17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의 인구분포를 연구한 베네딕트에 의하면, 1660년에서 1670년 사이 이 프랑스 칼뱅파 교회의 수는 696개에 불과했으며, 위그노 신도의 수는 팔십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프랑스 개혁운동은 16세기 중반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오십여 년도 미처 지속되지 못한 채 급격히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Philip Benedict, *The Faith and Fortunes of France's Huguenots, 1600-85* (Aldershot: Ashgate, 2001), pp. 39-50. 특히 p. 42의 도표 참조.

제 3 절 역설의 극복: 위그노 여성의 과제

프랑스에서 칼뱅과 종교사상의 전파와 위그노 공동체 형성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로엘커(Nancy Roelker)는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면서, 프랑스 귀족여성 중 가족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일군의 여성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위그노로 개종시켰고, 위그노 귀족여성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의 각종 국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¹⁵⁹⁾ 또한 블래스델(Charmarie Jenkins Blaisdell)은 칼뱅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 귀족 여성들의 참여를 기대했고, 이를 독려하기 위해 그들과 꾸준히 편지를 교환했음을 밝힌 바 있다.¹⁶⁰⁾

하지만 종교개혁 진영은 여성들이 지닌 개혁 의지가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독자적 행동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위그노라는 종교적 정체성 때문에 소위 여성의 본분인 가정을 도외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무척 경계했던 것이다.

칼뱅의 서신은 종교개혁가들이 위그노 여성을 상대할 때 나타난 이중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술한 것처럼 칼뱅은 프랑스 고위 귀족 여성들에게 서신을 보내 위그노적 대의를 위해 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칼뱅은 위그노로 개종한 귀족여성이 가톨릭교도인 가장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 신앙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며 호소했을 때, 이들에게 가정을 지킬 것을 항상 단호하게 요구했다. 칼뱅이 보기에 가톨릭을 믿는 남편의 반대 때문에 심한 학대를 당하거나, 사회적 탄압에 휘말려 체포당할

159) Nancy L. Roelker,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2, no. 4 (Spring, 1972).

160) 칼뱅은 18명의 프랑스 귀족여성들과 편지를 교환했고, 이중 현재 육십여 통 이상이 남아있다. 칼뱅과 서신을 주고받은 프랑스 귀족여성으로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잔 달브레, 그리고 루이 12세의 딸이자 페라라 공작부인이었던 르네 드 프랑스(Renée de France, Duchesse de Ferrara, 1510-1574) 등을 들 수 있다. 칼뱅은 이런 대귀족 여성들뿐 아니라 지방영주의 부인 등 중간계층 귀족여성들에게 편지를 받고 이에 답장을 보내기도 했고, 익명을 고수한 몇몇 여성들과 서신을 주고받기도 했다. Charmarie Jenkins Blaisdell, "Calvin's and Loyola's Letters to Women: Politics and Spiritual Counsel in the Sixteenth Century," *Calviniana: Idea and Influence of John Calvin*, ed. by R. V. Schnucker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pp. 235-236.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여성은 신이 정한 본분인 가정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이다.¹⁶¹⁾

종교적 신념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칼뱅의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례로 1559년 칼뱅이 제네바 목사회에 보낸 의견서를 들 수 있다. 1552년 귀족으로 보이는 익명의 위그노 여성은 제네바 목사회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가톨릭 신자인 남편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편을 떠나 제네바로 망명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다.¹⁶²⁾ 1559년 칼뱅은 이 청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제네바 목사회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한 칼뱅의 답변은 분명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남편과 가정을 떠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누구보다, 그러니까 부모나 아이, 남편이나 아내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교가 자연의 섭리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게 된 아내는 두 배로 더 노력하여 남편이 진리의 편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략) 우리에게 문의를 한 부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인은 최대한 다정하고 공손하게 남편을 섬기며, 자신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남편을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만일 남편의 폭력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모를까, 일신상의 안전이 보장된 상태라면 부인의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하는 바입니다.¹⁶³⁾

161) 칼뱅은 대귀족 여성들과도 편지를 교환했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이나 일반 귀족여성들과도 서신왕래가 있었다. 그중 몇몇 편지에는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체포되거나 혹은 남편과 가족의 심한 반대 속에 위협을 당한다는 점을 호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 사례로 가혹한 박해를 견디다가 미망인이 된 여성인 퐁 부인(Mme du Pons)에게 보낸 편지(1553년 11월 20일의 편지, Jules Bonnet ed., *Letters of Jean Calvin*, vol. 2 (New York: Presbyterian Board of Publ., 1858), pp. 436-439)와 1557년 생 자크 거리의 위그노 회합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했던 여성인 랑티니 부인(Mme de Rentigny)에게 보낸 편지(1558년 4월 10일의 편지, Jules Bonnet ed., *Letters of Jean Calvin*, vol. 3 (New York: Presbyterian Board of Publ., 1858), pp. 416-418) 등을 들 수 있다. 칼뱅은 이 편지에서도 신앙을 위해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62) "Lettre d'une dame inconnue à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France, le 24 juin 1555," Robert McCune Kingdon and Jean-François Bergier eds., *Registres de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Genève au temps de Calvin*, vol. 1 (Genève: Droz, 1964), pp. 138-140.

이처럼 칼뱅은 결혼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므로, 그리스도교가 이에 위배되는 행동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아내는 가장에게 복종하면서 그를 위해 헌신할 소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칼뱅은 학대를 받고 감금되었으며,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던 위그노 여성¹⁶⁴⁾에게 결혼을 통해 맺어진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며 이에 순응할 것을 그리스도교의 이름으로 충고했다.¹⁶⁵⁾

이런 칼뱅의 사고방식은 프랑스에 세워진 위그노 교회세력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여성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워 남편의 권위에 대항하려는 행동은 남편의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박해와 탄압을 받더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 시노드와 컨시스토리의 판결 역시 이런 경향을 꾸준히 반복했다. 프랑스 개혁교회 지도자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마치 신의 말씀에 복종하듯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설교했으며, 위그노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반발을 보일 때 이를 하나같이 억누르는 자세를 취했다.¹⁶⁶⁾

그러나 프랑스 북부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여성들은 칼뱅 등 종교개혁가와 프랑스 개혁교회가 여성에게 강요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영위해서는 위그노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프랑스 북부 여성들은 위그노가 된 이후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박해를 모두 감당해야 했고, 이에 굴복하지 않고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발전시켜야 할 현실적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듯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히려 종교개혁 진영이 이상화한 여성의 모습을 넘어서야 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설에 맞서 프랑스 북부 위그노

163) Jean Calvin,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Ad fidem editionum principum et authenticarum ex parte etiam codicum manu scriptorum, additis prolegomenis literariis, annotationibus criticis, annalibus Calvinianis indicibusque novis et copiosissimis*, eds. by Johann Wilhelm Baum and August Eduard Cunitz, vol. 10 (Brunsvigae: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pp. 239-241.

164) "Lettre d'une dame inconnue a la Compagnie des Pasteurs. de France, le 24 juin 1555," p. 139.

165) Barbara Diefendorf, "Les divisions religieuses dans les familles parisiennes avant la Saint-Barthélemy," pp. 64-65.

166) Janine Garrisson, *Les Protestants au XVIe siècle*, p. 101.

여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의 역설적 긴장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마르그리트 르 리쉬(Marguerite le Riche)라는 파리 출신 위그노의 순교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순교사례는 샹디외(Antoine de la Roche de Chandieu, 1534-1591)¹⁶⁷⁾의 『탄압의 역사와 파리 교회의 순교자들』(*Histoire des persécutions et martyrs de l'église de Paris: depuis l'an 1577, jusques au temps du Roy Charles Neuvième*)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¹⁶⁸⁾ 그는 이 저서를 집필하면서 여러 명의 여성 순교자들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샹디외는 순교를 선택한 여성의 처신에 대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지 다각도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리에 서 순교를 당한 위그노 여성들은 대부분 개종을 선택하면서 남편의 반대에도 부딪쳤고, 가장의 뜻을 거스르는 한이 있어도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는 능동적 자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샹디외는 종교개혁가의 여성관에 근거, 여성은 남편의 뜻에 따라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관점을 고수했지만, 동시에 위그노 정체성을 지켜낸 여성 순교자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상찬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샹디외가 기록한 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순교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르그리트 르 리쉬는 파리 출신 위그노로, 서점을 경영하던 앙투안 리코(Antoine Ricaut)의 아내였는데, 종교개혁 교리에 관심이 있던 남편을 통해 개혁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마르그리트는 남편보다 더 본격적으로 위그노 신앙을 정립하게 되었고, 결국 가톨릭 미사는 미신이라고 주장하며 참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남편인 리코는 개혁신앙에 대해 흥미

167) 앙투안 드 샹디외는 법학자 출신의 위그노로, 제네바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파리 교회의 목사로 재직했으며,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샹디외는 프로테스탄트 신념을 반영한 역사서와 시집 등을 저술한 문학가로도 이름이 높는데, 그의 대표작 중 하나가 바로 『탄압의 역사와 파리 교회의 순교자들』이다. Antoine de la Roche de Chandieu, *Histoire des persécutions et martyrs de l'église de Paris: depuis l'an 1577, jusques au temps du Roy Charles Neuvième*, (Lyon, 1563).

168) 마르그리트 르 리쉬의 사례는 크레스팽의 『순교자들』은 물론, 앙투안 샹디외의 『파리 교회의 탄압과 순교자들의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마르그리트 르 리쉬에 대한 기록은 Jean Crespin, *Histoire de vrai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évangile*, pp. 522-523.; Antoine de la Roche de Chandieu, *Histoire des persécutions et martyrs de l'église de Paris*, pp. 337-342. 본문의 내용은 주로 샹디외의 기록을 참조했다.

를 느꼈을 뿐 개종할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마르그리트의 강경한 태도는 부부간 불화를 일으켰고, 결국 부활절 기간이 다가오자 마르그리트는 남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가출을 단행했다.

[마르그리트는] 남편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고 [미사에 참석하라고] 강요당했다.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마르그리트는 목숨을 건지고 화를 피하기 위해 부활절을 기해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 마르그리트는 [미사에 참석함으로써] 남편을 만족시키기보다, 집에서 도망침으로서 그녀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를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부활절이 지난 후, 마르그리트는 오래 가정을 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왔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짝지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이다.¹⁶⁹⁾

마르그리트는 부활절 미사에 불참하면서 위그노의 정체성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남편과 가정을 버리고 가출함으로서 여성의 소명에 어긋나는 행동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상디외는 마르그리트가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짝지어 주신 사람’이므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여성의 본분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디외는 마르그리트가 위그노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양자를 모두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는 부활절 미사에 불참했다는 사실이 담임사제를 통해 당국에 알려지면서 체포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상디외는 마르그리트가 “더 이상 적당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속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이 [개혁신앙을 지닌 이들이 모인] 회합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성찬식을 받았다”¹⁷⁰⁾고 고백하였고, 그 결과 마르그리트는 이단의 죄목 아래 체포되었다고 기록했다. 상디외는 마르그리트가 체포된 이후 부활절에 성찬식을 함께 치른 위그노 동료들의 이름과 회합 장소를 밝히려는 압력을 받고 심한 고문까지 당했지만, “오히려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냈다”¹⁷¹⁾고 기록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디외는 마르그리트가 강경한 종교적 신념과 탄압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169) Antoine de la Roche de Chandieu, *Histoire des persécutions et martyrs de l'église de Paris*, p. 338.

170) *Ibid.*, pp. 338-339.

171) *Ibid.*, p. 340.

고 상찬하였다. 마르그리트의 죽음을 묘사한 다음의 인용문은 상디외가 마르그리트를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구현한 존재로 상정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마르그리트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고 영혼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녀의 죽음을 지켜본 많은 이들은 ‘마르그리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기적과도 같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마르그리트는 군중 사이를 지나면서 마치 개신장군처럼 당당했고, 밝은 표정을 유지했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르그리트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을 통해 사람들은 마르그리트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¹⁷²⁾

마르그리트의 순교 사례는 파리 등 프랑스 북부에서 위그노로 개종했던 여성들이 사회적 탄압과 가정의 반대라는 심각한 위험을 감당해야 했음을 증언하는 한편,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적으로 본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에 안주할 수 없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마르그리트의 예에서 보이듯이, 투철한 위그노 정체성을 지닌 여성들은 자신의 신앙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고자 했지만, 무엇보다 종교적 정체성을 우선시하였고, 때로는 이를 지키기 위해 죽음까지 감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현실적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강력한 종교적 신념과 결단력을 키워야 했다. 결국 위그노 여성들 중 종교적 신념을 확고히 정립한 이들은 개종을 통해 필연적으로 갖추게 된 독자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학살과 내전의 현장에서도 발휘하였고, 그 결과 일부 위그노 여성, 특히 귀족출신 여성들은 프랑스 종교전쟁 당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위그노 귀족여성들이 프랑스 종교개혁에서 맡은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연구한 로엘커는 일부 위그노 귀족여성들은 프랑스 종교전쟁 시기 지도자라고 불려도 과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위상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¹⁷³⁾

로엘커가 분석한 위그노 귀족여성의 활약상은 다음과 같다. 로엘커는 프

172) *Ibid.*, p. 341.

173) Nancy L. Roelker,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pp. 395-402.

랑스 종교개혁의 핵심 국면을 1520년대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 시기(제 1세대), 1550년대에서 1572년에 걸친 위그노 공동체 조직화와 종교전쟁 발발 시기(제 2세대), 1572년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후기 종교전쟁 시기(제 3세대)로 구분한 후, 각 시기에 활약한 귀족여성들을 소개했다. 로엘커가 거론한 귀족 여성 중 제 1세대 복음주의 운동 시기를 대표하는 선구적 인물은 바로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Marguerite de Navarre, 1492-1549)인데,¹⁷⁴⁾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는 개혁신앙에 대한 관심을 동시대 대귀족 여성들에게 전파하여 콜리니(Coligny) 가문¹⁷⁵⁾이나 콩테 가문(Condé)¹⁷⁶⁾ 등 프랑스의 유력 가문이 위그노 진영에 참여하게 만드는 전기를 제공했다.

1550년대에서 1572년에 걸친 프랑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대 여성들은 위그노 여성들의 체득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기질을 종교전쟁의 현장에서 발휘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종교개혁 2세대 위그노 귀족여성의 구심점이 된 인물은 잔 달브레(Jeanne d'Albret, 1528-1572)인데,

174)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는 프랑수아 1세의 누이로,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으며 본인 역시 『헵타메론』(*Heptameron*, 초판 출간 1558) 등 여러 저작을 남겼다.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지적 역량과 종교적 헌신은 에라스무스 등 여러 휴머니스트로부터 인정받을 정도였는데, 그녀는 특히 프랑스 복음주의 운동에 관심을 보이며 르페브르 데타플과 기욤 브리소네 등을 후원하기도 했다.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종교적 후원에 관해서는 Barbara Stephenson, *The Power and Patronage of Marguerite de Navarre* (Burlington: Ashgate, 2004), pp. 149-184.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 생애 전반에 대해서는 Patricia Francis Cholakian and Rouben Charles Cholakian, *Marguerite de Navarre: Mother of the Renaissan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06).

175) 콜리니 가문(la maison de Coligny)은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역 일부를 다스리던 제후였지만, 15세기 이후 프랑스에 편입, 대귀족가문으로 번성하게 된다. 15세기 콜리니 가문의 수장이던 가스파르 1세는 프랑스 총군사령관(connétable) 안 드 몽모랑시(Anne de Montmorency)의 누이인 루이즈 드 몽모랑시(Louise de Montmorency)와 결혼했는데, 루이즈 드 몽모랑시는 위그노로 개종하지는 않았으나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와 궁정에서 교류하면서 개혁신앙에 대해 깊은 호감을 보였다. 루이즈 드 몽모랑시의 아들인 가스파르 콜리니 2세(Gaspard II de Coligny)와 오데(Odet de Coligny, cardinal de Châtillon)는 이후 위그노로 개종했다. 가스파르 콜리니 2세는 위그노 진영의 군사지도자로 명망을 떨쳤고, 1572년 8월 22일 파리에서 암살,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의 전조가 되었다.

176) 콩테 가문(Condé)은 부르봉(Bourbon) 가문의 방계로, 루이 드 부르봉-콩테(Louis Ier de Bourbon-Condé, 1530-1569)에서 기원했다. 루이 드 부르봉-콩테는 나바르의 왕 앙투안 드 부르봉의 동생이며, 후일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드 나바르의 삼촌이기도 하다. 루이 드 콩테는 제 1차 종교전쟁에서 제 3차 종교전쟁까지 위그노 진영의 수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그는 마들렌 드 말리(Madelaine de Mailly, Comtesse de Roye)의 딸인 엘레오노르(Eléonore de Roye)와 결혼했는데, 장자인 앙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위그노 지도자가 되었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특히 동생 샤를은 추기경이 되었으므로 이후 가톨릭 동맹은 그를 왕위계승자로 만들려 시도하기도 했다.

그녀는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딸이자 후일 앙리 4세가 되는 앙리 드 나바르(Henri de Navarre, 1553-1610)의 어머니이기도 하다.¹⁷⁷⁾ 잔 달브레는 제 3차 종교전쟁 시기 외교술과 선전 역량을 발휘, 위그노 진영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¹⁷⁸⁾ 잔 달브레 외에도 제 1차 종교전쟁을 종결시킨 앙부아즈 화의를 합의하는 데 공헌한 마들렌 드 말리(Madeleine de Mailly, Comtesse de Roye, ?-1567)¹⁷⁹⁾와 제 2차 종교전쟁에서 중재역을 담당했던 자클린 드 로앙(Jacqueline de Rohan, Marquise de Rothelin, 1520-1587)¹⁸⁰⁾의 경우는 위그노 귀족여성들이 종교전쟁에 능동적 주체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로엘커가 3세대이자 마지막 세대로 분류한 생 바르텔르미 학살 이후 후기 종교전쟁 시기 여성들은 1세대나 2세대 여성들에 비해 조직력이나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위그노 집단 자체의 역량 문제이기도 한데, 특히 1590년대 이후 상당수의 귀족들이 앙리 4세를 본받아 가톨릭으로 재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축된 위그노 세력의 정신적 수장은 개종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앙리 4세의 여동생 카트린 드 부르봉(Catherine de Bourbon, 1559-1604)¹⁸¹⁾이었다. 물론 본 논문의 주인공

177) 잔 달브레는 1560년 공개적으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고, 이후 자신이 다스리던 나바르와 베아른 지역의 교회를 칼뱅파 교리에 입각해 재편했다. 잔 달브레는 베아른 교회의 신앙고백과 규율집을 독자적으로 정비하고, 나바르 지역의 언어인 바스크어로 신약성서를 번역하는 작업을 후원하거나, 칼뱅파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잔 달브레의 정치와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Evelyne Berriot-Salvadore, Philippe Chareyre et Claudie Martin-Ulrich ed., *Jeanne d'Albret et sa cour* (Paris: Honoré Champion, 2004).

178) Nancy L. Roelker,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pp. 401-403.

179) 마들렌 드 말리는 루이즈 드 몽모랑시가 첫 결혼에서 얻은 딸로, 제 1차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독일 지역 프로테스탄트 군주들의 후원을 얻어내는 외교 교섭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마들렌의 딸 엘레오노르(Eleonore, Princesse de Condé)는 콩테 가문의 수장인 루이 드 콩테와 결혼했으며, 역시 외교적 임무를 맡곤 했다.

180) 자클린 드 로앙은 장 칼뱅과 기욤 파렐 등과 교류하면서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고, 개혁신앙으로 개종해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을 개방, 일종의 위그노 피신처로 만들기도 했다. 자클린 드 로앙은 위그노 신앙을 이유로 파리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신앙을 지켰다. 본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는 자클린 드 로앙의 성에 찾아가 그곳의 목사에게서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배우기도 했다. 논문 4장 2절 참조.

181) 카트린 드 부르봉은 잔 달브레의 딸이자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였다. 철저한 칼뱅파 신앙을 지켰던 카트린 드 부르봉은 앙리 드 나바르가 프랑스 왕이 된 이후 나바르와 베아른 지역을 다스렸고, 낭트 칙령 공인과 반포를 위해 위그노 진영을 설득하기도 했다. 카트린 드 부르봉은 사촌인 샤를 드 부르봉(Charles de Bourbon-Soissons)과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앙리 4세는 정치적 이권이 없는 이 결혼을 반대하고 그녀를 가톨릭동맹의 지도자인 샤를 드 로렌(Charles III, duc de Lorraine)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카트린에게 개종을 강요했다. 그러나 카트린 드 부르봉은

인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역시 3세대를 대표하는 귀족여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¹⁸²⁾

프랑스 귀족여성들이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¹⁸³⁾ 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배경은 신분의 고하에 관계없이 위그노 여성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고수하고 개혁신앙의 대의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키워야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탄압이 극심했던 프랑스 북부의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형성한 내면적 강인함과 외부적 추진력 때문에 오히려 위그노 진영에서 여성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역설을 인식했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전개과정, 그리고 파리 위그노 공동체의 종교적 속성과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의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위그노들을 국가에 대한 반역자이자 이단이며 사회적 합의를 깨트리는 존재로 여겨 탄압했고, 프랑스 북부, 특히 파리 위그노 공동체는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깊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독자적 생명력을 이어나갔다. 프랑스 북부 파리 지방에서 위그노로 개종한 사람들은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 개종 자체를 신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징표로 보고 순교를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을 체화했다. 이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은 이에 동참한 위그노들에게 강경한 종교적 신념과 용기를 요청하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는 위그노로 개종한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프랑스 위그노

칼뱅과 신앙을 지키며 개종을 거부했다. 카트린 드 부르봉은 논문의 주인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와 서신교환을 할 정도로 깊은 친분을 유지했다.

182) 이 시기 가톨릭으로 개종하지 않고 위그노 진영에 남은 귀족가문으로 비롱(Biron), 로쉬푸코(Rochefoucauld), 라 포스(LaForce), 리외(Rieux), 그리고 본 논문의 주인공이 속한 모르네(Mornay) 가문을 들 수 있다. Nancy L. Roelker,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p. 403.

183) 블래스달은 귀족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이 종교개혁 진영이 주장한 성경중심주의를 수월하게 받아들일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지적한다. Charmarie Jenkins Blaisdell, "Calvin's Letters to Women: The Courting of Ladies in High Place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3, no. 3. (Autumn, 1982), p. 68. 로엘커는 만인사제주의가 여성들에게 자아개발과 독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공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ancy L. Roelker,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pp. 403-413.

여성들은 제도권 교회로부터 적극적으로 신앙을 표출하기보다 순종적 아내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충고를 받았지만, 프랑스 북부, 특히 파리 지역 위그노 여성들은 탄압과 학살에 맞서는 과정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이상시한 수동적인 여성의 삶에 안주해서는 위그노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다. 위그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이 여성에게 부여한 소명에 따를 수 없다는 모순에 부딪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리 위그노 여성의 삶은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의무 사이에 놓인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응할 것인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조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논문의 핵심 주제인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만나보기로 하자. 논문의 4장과 5장을 통해 고찰할 아르발레스트의 삶과 그녀가 이룬 가정의 모습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놓인 역설을 한 명의 위그노 여성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논문 2장에서 논증한 종교개혁가들의 여성관과 3장에서 분석한 위그노 여성의 위상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미시적으로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아르발레스트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 발전, 계승

제 1 절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Charlotte Arbaleste, 1550-1606)는 1550년 3월¹⁸⁴⁾ 파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Guy Arbaleste)는 젊은 시절부터 프로테스탄티즘에 관심을 보였으나, 어머니 마들렌 슈발리에(Madeleine Chevalier)는 끝까지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였다.¹⁸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위그노로 개종했는데, 그녀는 무엇보다도 ‘위그노의 교황(pape des huguenots)’이라는 별칭을 지닌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다.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사상적 차원에서 전 방위 활동을 펼쳤던 인물로, 후에 앙리 4세가 된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이자, 친구이며 멘토이기도 했다.¹⁸⁶⁾ 또한 모르네는 최근 연구결과에 의

184)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가장 최근 편집본을 출간한 나딘 쿠페르티-쉬르는 아르발레스트가 1548년 2월 1일 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점은 사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내용과 차이가 있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첫 결혼식이 1567년 생 미셸의 날, 즉 9월 29일에 열렸고, 당시 자신은 17세 반이라고 기록했다. (해당 내용은 Madame de Mornay,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édition revue sur les manuscrits, publiée avec les variantes et accompagnée de lettres inédites de M. et Mme du Plessis Mornay et de leur enfants*, ed. by Henriette de Witt, tome 1 (Paris: Chez Mme Ve Jules Renouard, 1868), p. 50. 이하 *Mémoires_1868-1869* 라 약기.) 그렇다면 아르발레스트는 1550년 3월생이 된다. 나딘 쿠페르티-쉬르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 편집본의 서문에서 아르발레스트가 1548년 2월 1일 생이라 정확히 명시하면서도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Charlotte Duplessis-Mornay, *Les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ed. by Nadine Kuperty-Tsur (Paris: Honoré Champion, 2010), p. 13. (이하 *Mémoires_2010* 라 약기.) 필자는 회고록 기록에 근거하여 아르발레스트를 1550년 3월 생으로 표기하였다.

185) 아르발레스트 가문은 파리의 중간귀족(*seconde nobless*)으로,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는 블뤼엥(Melun)의 자작이자 라 보르드(la Borde)의 영주로, 파리 회계법원(*chambre des comptes*)의 법정장(*président*)을 역임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 마들렌 슈발리에에는 에스프뤼엔(Esprunes)과 비노(Vignaux)에 영지를 지니고 있던 귀족의 후손이다.

186) Nadine Kuperty-Tsur, “introduction,” *Mémoires_2010*, p. 10.

해 모나르코마크(monachomaque)¹⁸⁷⁾ 계열의 대표적 저작인 『반폭군론』(*Vindiciae contra tyrannos*, 1579)의 저자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데¹⁸⁸⁾, 이를 비롯해 출간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성체성사에 관하여』(*Traité de l'Euchariste*, 1598) 등 논쟁적 글쓰기를 통해 위그노적 대의명분을 강력하게 천명한 사상가로도 이름이 높다.

유명한 남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비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별다른 공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조용히 남편을 내조한 전형적인 16세기 여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뜻 평범하게 보이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프랑스 종교개혁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작성한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때문이다.

회고록(mémoires)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관점을 통해 동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의미하며,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한 장르로 알려져 있다. 회고록은 사회적 현상을 기술한다는 점에서 일견 역사서술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위인전에 등장할 만한 예찬이나 변명은 물론 심지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문학적 표현까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회고록은 ‘모든 글쓰기 양식이 교차되는 분기점’이라 불리기도 한다.¹⁸⁹⁾

장르적 모호함에 덧붙여 회고록의 해석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회고록의 필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글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회고록의 필자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적 신념을 표방하는 것은 물론, 상당히 많은 경우 개인적 고통이나 좌절에 대한 보상

187) ‘모나르코마크’란 ‘국왕 시해파’라는 의미로, 16세기 프랑스 위그노들이 발전시킨 국왕에 대한 저항논리를 의미한다. 국왕시해파 정치사상의 개념과 대표 저작에 대해서는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 연구』, vol. 15 (2006), pp. 5-28.

188) 『반폭군론』은 모나르코마크 정치사상의 가장 핵심적 저서로, 위그노 사상을 내세워 폭군에 대한 저항은 종교적으로 올바르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반폭군론』은 1579년 유니우스 부르투스(Junius Brutus)라는 저자에 의해 바젤에서 라틴어로 출간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1581년 불어 번역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모르네에 대해 심도 깊은 저작을 낸 도시(Daussy)는 『반폭군론』의 문체, 사고방식, 당시 주위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평가한 뉘앙스 등등을 검토한 후, 모르네가 『반폭군론』의 저자일 수 있다는 강력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 (1572-1600)* (Genève: Droz, 2002), pp. 229-257.

189) Marc Fumaroli, “Les Mémoires du XVIIe siècle au carrefour des genres en prose,” *XVIIe Siècle* (1971), pp. 94-95.

심리를 얻고자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렇듯 회고록 필자의 시각은 철저히 주관적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회고록은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과 서술 방향에 있어 명백히 편향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회고록은 필자의 직접 경험에 근거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작성된 공식적 역사서보다 더 생생한 직접적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⁹⁰⁾

따라서 회고록에 대한 연구는 공적 기억에 대해 사적으로 기술한다는 회고록의 이중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결국 회고록을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술이 작성된 시대적 배경과 필자가 속한 집단의 망탈리테를 파악해야 하며, 필자가 회고록을 작성한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작성된 회고록은 주로 ‘권력’과 ‘종교’라는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혈통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도 관직보유를 통해 국가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이후 귀족계층에 편입되어 ‘법복귀족’이라 불리게 된다. 권력에 접근하는 길이 다양해지면서, 봉토를 지니고 전사로 활동했던 전통적인 대검귀족들은 회고록을 통해 이런 현상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고, 신흥귀족들은 자신들의 직분이 국익에 부합함을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위상을 정당화하기도 했다.¹⁹¹⁾

또한 프로테스탄티즘의 도입과 내전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종교적 신념과 왕에 대한 복종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은 16세기 프랑스 회고록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 가톨릭 저자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은 위그노 세력을 비판하며 프랑스의 가톨릭 전통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프로테스탄트가 작성한 회고록은 위그노 정체성을 근거로 기존 권력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계를 내세웠다.¹⁹²⁾

190) Nadine Kuperty-Tsur, *Se dire à la Renaissance. Les Mémoires au XVI^e siècle* (Paris: Vrin, 1997), pp. 9-11.

191) 16세기 프랑스 대검귀족들 중 회고록을 남긴 대표적 인물로 Philippe de Commines, Olivier de la Marche, Guillaume de Villeneuve, Blaise de Monluc 등을 들 수 있고, 법복귀족의 정당성을 설파한 대표적인 회고록 저자로 Claude Grouart(1551-1607)를 들 수 있다.

192) 프로테스탄트 진영을 대표하는 회고록의 저자로 Agrippa d'Aubigné(1550-1630)를, 가톨릭 진영에서는 Philippe de Hurault(1528-1599)를 들 수 있다. 16세기 프랑스 회고록의 대표적 저자 명단은 Nadine Kuperty-Tsur, *Se dire à la Renaissance*, pp. 196-198.

16세기 프랑스 위그노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은 가톨릭교도의 회고록과 비교해볼 때 저자의 관점과 글의 체계에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 위그노 회고록의 저자는 철저하게 종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했으며, 상대적으로 회고록 저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은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편이다. 두 번째로, 위그노 회고록의 저자는 대부분 강력한 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회고록의 저자는 자신의 개종경험이나 ‘선민’으로서 확신을 얻었던 일화들을 소개하며, 위그노들이 프랑스 사회에서 받는 탄압과 고통을 선민의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위그노 회고록의 저자는 예정론을 토대로 개인의 세속적 운명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세계관 아래 자신의 삶과 경험을 재구성했다. 가톨릭 신앙을 지닌 회고록의 저자는 자신이 겪은 세속적 실패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희망했지만, 위그노 저자는 정치적 실각이나 현실적 고통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감당해야 한다는 자세를 취했다.¹⁹³⁾

본 논문의 핵심 사료인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은 이러한 위그노 회고록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저술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은 본인이 아닌 자신의 남편에 대해 저술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동시대 회고록과 구분된다. 그렇다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은 1584년부터 1605년까지 21년에 걸쳐 작성된 기록인데, 필사본 분량은 2절판(in-folio) 206장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¹⁹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은 아들에게 회고록을 헌정한다는 서문 격의 편지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집필

193) *Ibid.*, pp. 38-39.

194)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필사본은 세 가지 판본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소르본 대학 도서관 소장본[manuscript n.360]인데,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관련된 서류와 편지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의 일부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문의 인장이 찍혀 있다. 소르본 판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모르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내용은 본문에, 그리고 가족사에 관련된 내용은 각주 양식으로 첨부되어 있다. 두 번째 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cote 10629-5602]되어 있는데 소르본 판과 같은 내용이지만 글씨체가 달라 보통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드 폰트네(Elisabeth de Fontenay)가 후대에 필사한 것이라 추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 판본은 상티이 박물관 내 도서관 소장본[cote 4-CL-034]인데, 소르본 판본과 거의 흡사한 형식이며, 글씨체도 소르본 판본과 동일하다. 이 판본은 최근에서야 발견되었는데, 인장이 너무 많이 찍혀있고 번져 있어서 해독하기 용이하지 않은 편이다. Nadine Kuperty-Tsur, “Introduction,” *Mémoires* 2010, pp. 14-16.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너는 아직 젊다. 내 아들이. 젊은 시절에는 온갖 다양한 환상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항상 시편의 다음 구절을 기억해라: “젊은이여, 어디에서 길을 물어야 할까? 맞다. 너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너를 마구 휘두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너를 이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나는 너에게 주기 위해 그리고 항상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내 손으로 직접 지침서를 썼다. 이 책은 네 아버지의 사례를 담은 것이고, 나는 네가 항상 이 책을 곁에 두기를 바란다. 바로 너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말이다.¹⁹⁵⁾

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인생이라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주는 일종의 지침서였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과 남편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르네의 인생역정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들려주어 아들도 아버지처럼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용감하게 삶을 헤쳐 나가라고 설득하고자 했다.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도입부는 그녀가 지닌 위그노적 세계관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본문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정당성과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일종의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는데, 그녀는 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겉보기와는 상관없이 신의 은총을 깨닫게 만드는 방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의 인생은 악의 한 가운데를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 때로는 폭력이 삶을 움켜쥐도록 내버려두시기도 한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를 따르도록 지도하신다는 징표이다. (중략) 이런 불가해한 모순 속에서 우리는 거짓된 악과 참된 선의 존재를 알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고통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은 모든 특혜에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중략) 이렇듯 불안함과 절박함, 때

195) Charlotte Arbaleste, “Lettre dédicatoire de Charlotte Duplessis-Mornay à son fils Philippe,” *Mémoires_1868-1869*, p. 3.

로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모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¹⁹⁶⁾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니라 모르네가 개혁신앙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종교적 사명에 얼마나 투철하게 매진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모르네의 생애와 활동을 위그노 세력의 운명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있으며, 모르네가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의 정착과 확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고 이를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기술되었다.

회고록의 서문과 도입부를 통해 회고록의 집필 목적에 대해 밝힌 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의 주인공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생애와 활동을 시대 순으로 자세히 기록해 나갔다.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의 구성은 모르네의 출생, 유년시절과 교육배경, 개종절차 등을 다룬 도입부, 아르발레스트와 결혼 이후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모르네의 성공담, 그리고 주군이던 앙리 드 나바르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뒤 모르네가 정치적으로 실각, 고난과 좌절을 겪게 된 비극을 설명한 뒤, 회고록을 헌정했던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글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구성은 16세기 회고록이 지닌 전형적 서술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 2] 참조)

그렇다면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는가? 지금부터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출판과 개정 과정을 정리하며 본 회고록이 역사가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르발레스트와 동시대 위그노들은 본 회고록의 존재는 알고 있었으나 이를 공적으로 출판하거나 유통시킬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¹⁹⁷⁾

196) *Mémoires_1868-1869*, pp. 7-8.

197) 당시 위그노들 역시 이 회고록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르네의 비서로 그에 대한 전기를 작성한 다비드 드 리크는 전기를 작성할 때 모르네의 출생에서 1606년까지 내용에 관해서 거의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그대로 답습했다. 그러나 동시대 위그노들은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자체를 출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1623년 모르네가 사망한 이후 유명한 위그노 목회자 다이에(Jean Daillé)는 1624년에서 1652년에 걸쳐 모르네의 저술과 논문, 편지를 네 권의 책으로 엮어

도입		1549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출생과 가문 소개		
		1549-1567	개종과정과 교육 배경		
		1568-1572	여행(제네바, 독일, 이탈리아, 플랑드르)		
		1572-1574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 아르발레스트의 개인사		
전개	성공담	1574-1576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만남과 결혼		
		1576-1584	1576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이 됨	
			1577	영국 외교사절 파견	
			1578	플랑드르 외교사절 파견	
			1582	전국 시노드 참가	
			1584	나바르 재무총관 임명	
		1585-1592	1585	가톨릭동맹 전쟁 발발	
			1587	쿠틀라 전투(Bataille de Coutras)	
			1588	소뮈르 총독에 임명	
			1589	앙리 3세의 죽음,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 논쟁 심화	
			1590-1592	각종 외교 업무	
	고난기	1593-1599	1593	앙리 드 나바르의 개종 개종에 대한 앙리 드 나바르의 변명	
			1594-1598	가톨릭 세력 및 위그노 세력에 대한 외교 교섭 및 설득 작업	
			1598	낭트 칙령 반포 『성체성사에 관하여』 출간	
		1600-1605	1600	퐁텐블로 논쟁	
			1601-1604	모르네의 정치적 실각, 집필 활동 부이옹 공작의 반역사건으로 앙리 4세가 모르네에게 도움 요청.	
			1605	정치적 복권 가능성. 아들 필리프의 죽음.	
종결		1606	1606	모르네 부부의 회한과 극복	

[표 2]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 전체 구성

출판했는데, 해당 선집에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누락되어 있다.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적극 참조한 것으로 알려진 리크의 전기는 David de Licques, *Histoire de la vie de Messire Philippe de Mornay* (Leyde: Chez B&A. Elsevier, 1647).

그러나 19세기 들어 프랑스에서 크게 유행한 회고록 출판의 흐름을 타고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1824년 오기(Pierre René Auguis)와 폰트넬(Armand-Désiré La Fontenelle)에 의해 처음으로 출간되었다.¹⁹⁸⁾ 19세기 프랑스에서 회고록 출판이 활성화된 이유는 과거 프랑스의 역사를 복기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때문인지 당시 출판된 회고록은 개인사적 관점을 삭제하거나 압축하여 연대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모르네에 대한 역사적 사료를 총망라한다는 의미에서 열두 권의 전집 중 첫 권으로 출간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첫 번째 편집본 역시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¹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은 역사적 사료로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아르발레스트는 종교전쟁의 일선에서 활동했던 모르네의 부인이라는 위치 덕분에, 종교전쟁의 정치적 상황과 위그노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에게 주어진 방대한 자료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확히 활용하고 참조하여 생동감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 성공하였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종교전쟁 시대 어떻게 살았으며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하는 훌륭한 자료”²⁰⁰⁾라는 평가 속에서 모르네의 생애나 프랑스 내전 시기 위그노 집단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로 취급되어왔다.²⁰¹⁾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본은 1868-69년 드 위트(Henriette de Witt)에 의해 출간되었는데, 이 개정판은 아르발레스트 회고

198)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의 첫 현대판 편집본은 모르네의 편지와 저작을 총망라한 열두 권 전집의 첫 권에 해당된다. Philippe Duplessis-Mornay, *Mémoires et correspondance de Duplessis-Mornay, histoire de la réformation et des guerres civiles et religieuses en France, sous les règnes de Charles IX, de Henri III, de Henri IV et de Louis XIII, depuis l'an 1571 jusqu'en 1623*, eds. by Pierre René Auguis and Armand-Désiré La Fontenelle, 12 vols. (Paris: Crapelet-Chevaleret et wurtz, 1824). 이하 *Mémoires_1824*로 약기.

199) Nadine Kuperty-Tsur, *Se dire à la Renaissance*, pp. 14-15.

200) Nadine Kuperty-Tsur, “introduction,” *Mémoires_2010*, p. 24.

201)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톨릭 진영의 정치적 활동과 종교적 망탈리에에 집중되어 왔고, 위그노 진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역시 프랑스 종교전쟁을 소개하는 데 있어 참고의 대상이 되었을 뿐, 이를 단독으로 다룬 저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위그노 진영과 모르네의 역할에 대한 연구사적 배경은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15-23.

록을 단독으로 다룬 첫 번째 출판본이다. 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자이자 자신 역시 프로테스탄트였던 드 위트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의 저작을 편집하거나 번역하는 작업을 다수 진행했는데, 그 작업의 일부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재출간했다고 밝혔다.²⁰²⁾ 이를 위해 드 위트는 첫 편집본에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고, 오류를 수정했을 뿐 아니라,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와 자녀들의 편지, 그리고 1584년 몽토방에서 벌어진 가발논쟁에 대한 아르발레스트의 의견서 등도 함께 묶어 출간하였다. 드 위트의 편집본은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이 ‘여성’에 의해 작성된 글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모르네가 아닌 아르발레스트 본인과 그녀의 가족을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분석되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은 잔 달브레와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의 경우를 포함 서너 편에 불과하며,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고위귀족이 아닌 여성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수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²⁰³⁾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비롯, 여성에 의해 작성된 회고록에서 화자의 성별

202) 두 번째 편집본은 1868년에서 69년에 걸쳐 두 권으로 출판되었는데, 1권은 회고록의 내용을, 2권은 회고록 뒷부분과 모르네의 서간문 등을 수록하고 있다. 편집자는 앙리에트 드 위트(Mme de Henriette de Witt)로, 그녀는 유명한 프랑스 정치가이자 역사가이며 프로테스탄트였던 프랑수아 기조(Francois Guizot)의 딸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 두 번째 편집본을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편집본인 *Mémoires* 2010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3)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이 작성한 회고록으로는 가톨릭 진영의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Marguerite de Valois)의 회고록, 그리고 위그노 진영의 잔 달브레(Jeanne d'Albret)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기록이 전한다. (잔 달브레의 회고록은 한때 진위논쟁에 휘말렸으나, 최근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잔 달브레의 회고록이 위조되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Paul Van Dyke, “Les Prétendus mémoires de Jeanne d'Albret,” *Revue historique*, vol. 129, no. 1 (1918), pp. 76-88.) 그러나 동시대에 왕족 등 대귀족 출신이 아닌 여성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거의 유일하다. 프랑스 여성 저자와 그들이 남긴 글에 대한 소개로는 Anne R. Larsen and Colette H. Winn eds., *Writings by Pre-revolutionary French Women* (New York: Garland Pub., 2000). 최근 발견된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 칼뱅파로 르네 드 프랑스의 보호를 받았던 르네 뷔를라마치(Renée Burlamacchi, 1568 - 1644)가 이탈리아어로 쓴 회고록이 존재하며,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르네 뷔를라마치의 회고록은 Susan M. Broomhall and Colette H. Winn, eds. *Les Femmes et l'histoire familiale (XVIe - XVIIe siècle)* (Paris: Honoré Champion, 2008). 르네 뷔를라마치와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비교한 연구는 Susan Broomhall and Colette H. Winn, “La Représentation de soi dans les mémoires féminins du début de l'époque moderne,” *Tangence*, no. 77 (2005), p. 11-35.

은 회고록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나 잔 달브레의 회고록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정치적 인물로 규정하며,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개인적 경험에 대해 고백하거나 반추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²⁰⁴⁾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역시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남편인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아르발레스트 자신이 겪은 여성과 아내로서의 경험은 회고록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행간에 감춰져 있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종교전쟁 시대를 조망하는 도구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데 비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개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⁰⁵⁾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통해 종교개혁 시대 여성의 경험과 글쓰기 작업을 연구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등장했고, 2010년 쿠페르티-쉬르(Nadine Kuperty-Tsur)는 이런 관점 아래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을 재출간했다.²⁰⁶⁾ 현재 아르발레스트와 그 회고록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글쓰기’라는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까지 아르발레스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²⁰⁷⁾

204) Nadine Kuperty-Tsur, *Se dire à la Renaissance*, pp. 39-43.

205) 1980년대 이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종교적 헌신의 상징으로 여겨져 프로테스탄트 측에서 종교개혁 시대 여성을 소개하는 전기집이나 일화집에 종종 등장하였다. 이런 시각에서 아르발레스트가 소개된 자료는 James Anderson, *Ladies of the Reformation: Memoirs of Distinguished Female Characters belonging to the Period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Germany, Switzerland, France, Italy and Spain*, vol. 2 (London: Blackie, 1857), pp. 450-486. 실제로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두 번째 편집자인 드 위트 역시 이런 시각에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평가하였다. Henriette de Witte, “Notice sur Mme de Mornay et sur ses mémoires,” *Mémoires_1868-1869*, pp. I-LVII.

206) 세 번째 편집본은 16세기 회고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쿠페르티-쉬르에 의해 2010년 출간되었다. 앙리에트 드 위트의 두 번째 편집본과 쿠페르티-쉬르의 세 번째 편집본을 비교해 본 결과, 두 판본 모두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원문에 충실했고, 철자 표기 등도 16세기 원칙에 준해 표기하는 등 내용 상 큰 차이가 없었다. 단지 쿠페르티-쉬르는 회고록 본문에 소제목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207) 아르발레스트의 글쓰기 행위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Catharine Randall, “Shouting Down Abraham: How Sixteenth Century Huguenot Women Found Their Voice” *Renaissance Quarterly*, vol. 50, no. 2 (Summer, 1997), pp. 411-413를 들 수 있다.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세 번째 편집자인 쿠페르티-쉬르는 이런 시각에서 회고록을 조망하고 있으며, 아르발레스트를 다룬 세 편의 단독논문도 발표하였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Nadine Kuperty-Tsur, “introduction,” *Mémoires_2010*, pp. 22-23. 또한 2004년 프랑스 소뮈르에서 모르네에 대한 대규모 컨퍼런스(Actes du colloque de Saumur, 13-15 mai 2004)가 열렸는데, 이때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소개하는 네 편의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은 Hugues Daussy et Véronique Ferrer eds., *Albineana 18: Servir Dieu, le Roi et l'État.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Paris:

실제로 아르발레스트의 글쓰기는 남편인 모르네를 회고록의 소재로 삼아 당시 칼뱅과 여성에게 금기시되던 글쓰기 행위를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칼뱅과는 문학적 표현이나 상상력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지니고 있었고, 오로지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글쓰기 작업만을 종교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전통을 고수해왔다.²⁰⁸⁾ 남성의 글쓰기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여성의 글쓰기는 일종의 금기에 해당했다. 칼뱅과 사상가들은 여성이 지적인 탐구를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글을 쓰는 일 등은 그녀들에게 주어진 소명, 즉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뿐이라고 여겼다.²⁰⁹⁾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남편을 지지하고 가정을 돌본다는 여성의 소명을 글쓰기의 영역으로 끌어들었다. 즉 회고록의 소재로 자신이 아니라 남편을 내세웠고, 회고록 집필의 목적을 개인적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내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정했던 것이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칼뱅과의 비판을 넘어 여성의 글쓰기 행위를 신의 소명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위그노 여성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공간 내부에서 가정을 매개로 자신의 언어를 활용하는 법을 발견해 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무엇보다도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회고록을 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전술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은 여성에 대해 가부장 질서 속에서 가정에 충실하며 수동적으로 살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논문 3장에서 고찰한 것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은 아무리 여성이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위그노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 적대적인 역사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여성들

Honoré Champion, 2006), pp. 565-628. 이상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다룬 단독 논문은 십여 편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아르발레스트에 관한 단독 저서는 그녀의 회고록 번역본을 제외하면 출간된 바 없다.

208) Catharine Randall, "Shouting Down Abraham," pp. 411-413.

209) 대표적인 위그노 작가인 아그리파 도비네(Agrippa d'Aubigné, 1552-1630)는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상대로 논쟁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여성의 지식은 결국 "마음을 부풀게 해서 가사 일을 싫어하게 만들고, 배우지 못한 남편을 알보는 오만함을 키우는 바람에 가정 내에서 갈등과 부조화만 자라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Ibid.*, pp. 420-424.

은 위그노가 되기 위해 강한 신념을 내면화하며 적극적 행동력과 추진력을 갖춘 보다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역량을 종교전쟁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혼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한 종교개혁은 동시대 유럽 다른 지역 여성들이 겪은 종교개혁이나 심지어 프랑스 위그노 남성이 경험한 종교개혁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필자는 그 대표적 사례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를 분석하고자 하며, 회고록에 담긴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경험하고 실천한’ 종교개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체험한 종교개혁은 동시대 위그노 여성이 겪었던 종교개혁이 어떤 것이었는지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를 제공한다. 물론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진영의 대표적 정치가이자 이론가인 모르네의 아내이자 귀족 출신이라는 배경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르발레스트의 종교개혁은 일반 민중의 경험과는 유리된 차별적인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잔 달브레나 르네 드 프랑스처럼 독자적인 힘과 영향력을 지닌 대귀족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책 없이 가정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 역할에 매진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시 평범한 여성의 일상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르발레스트의 삶은 오즈먼트가 칼뱅과 신도의 삶에 대해 말한 것처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멀고도 고통스러운 순례의 과정”²¹⁰⁾으로 해석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모든 칼뱅과 신도에게 인생은 험한 순례였지만, 프랑스 위그노 여성이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유난히 더 고통스럽고 가혹한 것이었다. 아르발레스트 역시 탄압과 학살, 그리고 전쟁이라는 당시의 폭력적 현실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만났다. 아르발레스트는 1572년 파리에서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모르네와 결혼 후에는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는 비극까지 겪었다. 또한 아르발레스트는 그녀를 사치스러운 귀족여성이라 파악한 프로테스탄트 목사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등,

210)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p. 380.

여성과 종교개혁 사이에 놓인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순간마다 아르발레스트는 “폭력이 삶을 움켜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믿으며 자신에게 닥친 각종 고난에 적극적으로 맞섰다.²¹¹⁾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한 명의 위그노 여성이 구원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최선을 다해 정진했던 일종의 순례기로 해석될 여지를 지니고 있다. 4장에서 필자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기본 사료로 삼아 아르발레스트가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 발전, 계승해간 과정을 차례로 개괄한 후, 아르발레스트가 어떻게 신의 의지와 구원을 확신하며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해나갔는지 분석해보겠다. 이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를 통해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어떻게 ‘전유’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제 2 절 생 바르텔레미 대학살과 위그노 정체성의 확립 (1550-1576)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태어난 1550년, 파리 고등법원에는 이단만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1547년 창설된 이단법정은 화형법정이라 불리며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색출해내고 이들을 화형의 불길로 정화하겠다는 의지에 불타고 있었다. 1545년 이후 1550년까지 파리에 서는 프랑스 왕실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기치를 세운 이래 가장 많은 수의 화형이 집행되었다.²¹²⁾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테오도르 베즈는 이단법정을 “매일매일 불을 토하는 도가니”라고 묘사하며 신의 은총이 파리에 내리기를 기원하기도 했다.²¹³⁾

211) *Mémoires*, 1868-1869, p. 7.

212) 파리 고등법원이 이단의 죄목 아래 화형을 선고한 수는 1534-1535년 대자보 사건 시기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1545-1549년 이단 법정의 설치를 전후해 다시 증가한다. 1523년에서 1560년 사이 파리 고등법원은 총 검거자의 10%인 500여 명에게 화형을 선고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64-65.

213) Théodore de Bèze, *Histoire ecclésiastique des églises réformées au royaume de France: en laquelle est descrite au vray la renaissance & accroissement d'icelles depuis l'an MDXXI*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로 개종을 결심할 당시 파리에서는 이렇듯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격렬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파리한 복판에서 위그노로 개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고, 따라서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에 등장하는 위그노들은 개종을 한다면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 한때 깊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정작 샤를로트 본인의 개종 시기와 동기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누락되어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와 샤를로트의 첫 남편 장 드 파(Jean de Pas)의 개종과정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파리 출신 위그노들이 개종 전에 겪었던 정신적 갈등과 이를 극복한 방식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개종은 모두 종교적 번민에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가톨릭교회에 대한 불신과 가톨릭 구원관에 대한 회의를 통해 가톨릭 신앙에 의문을 느꼈다. 기 아르발레스트는 젊은 시절 이탈리아와 독일을 여행하다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로테스탄트 설교를 접했고,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몇몇 사상가들의 논쟁을 보고 가톨릭교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²¹⁴⁾ 한편 장 드 파는 로마를 여행하던 중 “로마 교황이 사순절에도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허가장을 돈을 받고 발행해주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달걀 하나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후 “새로운 종교적 진리를 찾고 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에 시달리게 되었다.²¹⁵⁾ 이처럼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경우는 16세기 프랑스에서 기존의 가톨릭 신앙을 통해 정신적 안식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심리상태에 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은 가톨릭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개종을 쉽게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는 개종을 결심하기 전 파리 위그노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진

iusques en l'année MDLXIII, leur reiglement ou discipline, Tome I. (Remy, 1580), p. 100.

214) *Mémoires_1868-1869*, p. 48.

215) *Mémoires_1868-1869*, p. 51.

리라고 믿으면서도, 개종을 하면 사회적 명성과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고 갈등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번민을 불러일으켰다. 기 아르발레스트는 당시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거느린 한 가정의 가장으로 파리 회계법정(chambre des comptes de Paris)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등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다.²¹⁶⁾ 또한 장 드 파 역시 프랑수아 2세의 시동으로 지내며 왕세자의 각별한 총애를 받은 덕분에 어린 나이에 피카르디 지방 루아(Roye)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적 출세가 보장된 인물이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장 드 파가 “개종을 한다면 목전에 놓여있는 출세를 포기해야 할뿐더러 거꾸로 탄압의 불길에 휩싸인 프랑스에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인식했고, 이런 현실 속에서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몸져누울 지경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²¹⁷⁾고 적고 있다.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경우처럼 파리 위그노들은 개종 전 정신적 방황을 겪었고, 이를 넘어서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체험한 후 비로소 프로테스탄트로서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었다. 기 아르발레스트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 신의 계시를 발견할 단초를 찾았고, 장 드 파는 성경을 통해 종교적 확신을 얻은 후 개종했는데, 이들은 모두 개종의 순간 자신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여겼다. 기 아르발레스트의 경우, 위그노 지도자인 콩데 공(Prince de Condé, Louis I de Bourbon, 1530-1569)과 친분이 있었고, 그의 부탁으로 1563년 기 아르발레스트의 영지 라 보르드에서 위그노식 예배와 성찬식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당시 콩데 공과 정면 대립하던 가톨릭 수장 기즈(Duc de Guise, Francis de Lorraine, 1519-1563)를 자극했고, 기 아르발레스트는 기즈에게 위협당하는 처지에 빠졌다.²¹⁸⁾ 샤를로트의 회고록에서는 기 아르발레스트가 “자신이 위그노로 확실히 개종하겠다고 결심하기 전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²¹⁹⁾이라 확신하고 직접 위

216) *Mémoires_1868-1869*, p. 48.

217) *Mémoires_1868-1869*, p. 51.

218) *Mémoires_1868-1869*, p. 49.

219) *Mémoires_2010*, p. 99.

그노 목사들을 찾아가 교리를 배우고 난 후 개종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⁰⁾

한편, 장 드 파는 성경을 통해 종교적 확신을 얻은 후 개종하게 되는데, 그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바로 시편이었다. 장 드 파는 시편 2편을 읽다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적”²²¹⁾한다는 구절을 통해 “권력을 지닌 자들이 진정한 진리를 거부하는 일은 흔하며, 자신을 총애하는 군주도 이런 잘못에 빠져있다”는 각성을 얻었고 이를 통해 개종을 결심했다.²²²⁾ 개종한 장 드 파는 궁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위그노 신앙을 전파시킬 방법을 궁리했는데,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장 드 파가 궁정에서 카트린 드 메디치를 보필하던 귀족여성들의 도움을 받아 모후에게 직접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소개하거나, 은밀하게 앙부아즈 사건(Conjuration d'Amboise, 1560)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²²³⁾ 장 드 파는 이후 종교전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위그노 대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1569년 제 3차 종교전쟁에서 전사하였다.²²⁴⁾

기 아르발레스트와 장 드 파의 개종과 위그노 정체성 확립과정은 3장 2절에서 전술한 파리 위그노들의 망탈리테를 그대로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파리 위그노들은 기 아르발레스트처럼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여기며

220)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아버지가 자클린 드 로앙(Jacqueline de Rohan, Mme la marquise de Rothelin, 1520-1587)의 집에 머물던 고데(Gaudet)와 미르몽(Miremont)이라는 목사에게 교리를 배웠다고 적고 있다. *Mémoires_1868-1869*, p.48. *Mémoires_2010*, p.100. 자클린 드 로앙에 대해서는 3장 3절 각주 180번 참조.

221) [시편 2편 1절-6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꿰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시라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나 하시리로다. 시편 2편은 신이 세운 시온의 왕국과 잘못된 권력이 이끄는 세속 왕국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 비유는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장 드 파는 당시 프랑스 왕권의 행동은 거짓된 권력에 휘둘리는 세속 왕국의 전형이라는 각성 아래 개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귀족 출신 위그노들은 프랑스를 좌우하는 거짓된 권력의 실체가 로렌 가문이라고 생각했고, 왕비의 인척이자 외국 세력의 손아귀에서 왕을 구해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프랑수아 2세의 납치를 시도한 앙부아즈 사건을 일으켰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 의하면 장 드 파 역시 앙부아즈 사건에 개입한 바 있다. 앙부아즈 사건 당시 위그노 귀족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는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의 정치이론」, pp. 10-11.

222) *Mémoires_2010*, p. 102.

223) *Mémoires_2010*, p. 102-103. 회고록의 이 구절은 카트린 드 메디치 곁에 머물 정도로 높은 신분의 귀족여성들 중 위그노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224) *Mémoires_2010*, p. 107.

선민의식을 지니게 되었고, 장 드 파의 경우에서 보이듯 성경, 특히 시편을 개종의 중요한 매개로 활용했다. 이처럼 파리 위그노들은 목사나 교회의 지도에 이끌려 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위그노 신앙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국 탄압이 횡행하던 파리에서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실천하려면 기 아르발레스트나 장 드 파처럼 확고한 종교적 의지와 각오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경우 아버지의 영향 속에서 위그노로 개종했고, 첫 남편 장 드 파의 행적을 곁에서 보면서 위그노 정체성을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개종의 순간 아버지나 첫 남편이 겪었던 수준의 심한 정신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듯하며,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겪기 전 그녀의 종교적 신념이 과연 어떤 수준이었는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1572년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은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에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시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장 드 파의 사망으로 과부가 된 후 세 살 난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 당시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유산상속을 위해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²²⁵⁾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에게 위그노 신앙을 전수했던 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잃고 어린 딸의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었고, 학살이라는 최악의 시간을 오직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의지해 극복해야만 했다. 이처럼 생 바르텔르미 학살은 아르발레스트에게 위그노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고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였으며,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주인공 삼아 서술한 부분이 생 바르텔르미 학살이라는 점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225)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대학살이 일어나기 오 년 전인 1567년 장 드 파와 혼인하여 파리를 떠나 스당(Sedan)으로 이주했었다. 1568년 12월 샤를로트는 스당에서 딸 쉬잔(Suzanne de Pas)을 낳았지만, 장 드 파는 태어난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1569년 5월 전사하고 만다. 19세의 나이로 딸 하나를 거느린 과부가 된 샤를로트는 일 년 뒤인 1570년, 기 아르발레스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상속을 위해 스당의 생활을 정리하고 파리로 귀환, 생 앙토니 가(街)에 거처를 마련해서 딸 쉬잔을 키우는 한편 파리의 위그노 귀족 여성들과 친교를 맺으며 지내고 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당시 교류했던 여성들로 콩티 공작부인(Princess de Conti,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콩데 공의 동생인 루이스 부르봉의 부인), 부이옹 공작부인(Duchess de Bouillion, 본명은 프랑수아 부르봉으로 스당공국을 다스리던 부이옹 공작의 부인), 로트린 백작부인(본명은 자클린 드 로양, 기 아르발레스트가 칼뱅파 교리를 배웠던 목사를 후원해주던 여성) 등이 있다. *Mémoires* 2010, p.107.

1572년 8월 24일 아침, 파리에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르발레스트가 제일 처음 느낀 감정은 바로 ‘공포’였다. 아르발레스트는 하녀를 통해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이후 자신의 외삼촌이자 위그노 신도였던 에스프뤼엔(seigneur d’Esprune)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포에 질린 아르발레스트는 어린 딸과 함께 가까운 친척인 페루즈(M. de Perreuze)의 집으로 피신했다. 아르발레스트는 친척집 저택 천정 위 다락방에 숨어 “거리에서 사람들이 학살당하며 울부짖은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고, “학살자들의 손에 떨어진다면 나도 내 딸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다.²²⁶⁾

학살이 진행되면서 아르발레스트는 두려움을 넘어서 극심한 소외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학살이 생각 이상으로 길어지자,²²⁷⁾ 아르발레스트의 어머니이자 가톨릭 교도였던 마들렌 슈발리에에는 아르발레스트의 형제들에게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할 것을 권유했고, 샤를로트를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결국 모두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만 위그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르발레스트는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되든 차라리 파리를 떠나겠다”고 결심했고, 학살이 일어난 뒤 십일 일 째 되던 9월 4일, 아르발레스트는 어린 딸을 어머니에게 맡긴 후 하녀로 변장하고 세느 강을 통해 파리를 탈출했다.²²⁸⁾

“살아있기보다는 죽은 것 같은”²²⁹⁾ 얼굴로 자신을 설득하던 어머니, 가톨릭교도로 되돌아간 형제들, 세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딸 등을 모두 버리고 오직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홀로 파리를 탈출한 아르발레스트의 모습은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겪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일부 위그노들이 지닌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위그노 정체성과 이를 실천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키웠고, 이를 통해 가족과 헤어

226) *Mémoires_1868-1869*, p. 62.

227) 학살이 시작된 후 열흘 동안 아르발레스트는 페루즈의 집을 비롯, 어머니의 하녀와 결혼한 대장장이의 집, 어머니의 친구였던 탕보노 부인(Mlle de Tambonneau)의 집, 그리고 탕보노 부인의 하인이자 잠곡상을 하던 사람의 집을 찾아다니며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Mémoires_1868-1869*, pp. 62-64.

228) *Mémoires_1868-1869*, p. 64. / *Mémoires_2010*, p.111.

229) *Mémoires_1868-1869*, p. 63.

진다는 소외감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파리를 탈출하다가 생 바르텔레미 학살 경험 중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 아르발레스트가 탄 배가 군인들의 불심검문에 걸렸고, 군인들은 신분증이 없었던 아르발레스트를 위그노로 의심하며 익사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것이다. 아르발레스트는 근처에 사는 지인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줄 것이라 군인들을 설득했고, 결국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외할머니의 친구인 부아즈농(M. Voysenon)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를 알아 본 부아즈농 부인은 무척 놀랐다. 나는 부인에게 “하나님이 부인을 보내 내 목숨을 살려주도록 만든 것 같다. 부인의 도움이 없다면 난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며 간청했다. 부아즈농 부인은 군인들에게 내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그 집안은 훌륭한 가톨릭이며 내 삼촌도 주교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군인들은 친척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 여자도 가톨릭 신도냐고 재차 물었다. 부아즈농 부인은 과거엔 저 여자도 분명히 가톨릭이었지만 지금은 모르겠다고 둘러댔다. 한 시간 정도 실랑이를 한 후, 군인들은 나를 보며 “저 여자가 과하게 질려 있는 걸 보니 꼭 위그노 같은데 물에다 던져버리자”고 말했다. 하지만 부아즈농 부인은 “나는 위그노가 아니지만 요즘 며칠 동안 너무 무서워서 계속 떨고 있다”고 달랬다. 군인 중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요즘 힘들다”며 나를 배로 다시 돌려보내주었다. 군인들은 나에게 “네가 남자였다면 이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로 돌아온 뒤에 나는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다른 군인들이 찾아와 사람들의 짐을 뒤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만일 내가 배에 있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²³⁰⁾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을 죽이려던 군인의 심경 변화 때문에 간신히 목숨을 구했으며 자신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녀는 이를 신의 은총이 임한 결과라 해석했다. 아르발레스트의 생 바르텔레미 학살 경험을 연구한 크루제(Denis Crouzet)는 이 에피소드야말로 아르발레스트가 “가장 큰 시험에 들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때 굳건한 신앙을 정립”한 계기가 되었으며, “신비로운 은총의 힘”을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분석했다.²³¹⁾

230) *Mémoires_1868-1869*, p. 66. / *Mémoires_2010*, p. 112.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아르발레스트는 이후 파리에서 자신을 도와 준 탕보노 부인의 하녀 행세를 하며 정처 없는 여정을 이어갔다. 아르발레스트는 이브리(Ivry), 외할머니의 본가인 에스푸윈, 아르발레스트 가문의 영지인 라 보르드 등을 찾아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라 보르드에 도착한 후 일요일이 되자 [오빠는] 집으로 신부를 보내 나를 개종시키려 했고 나는 이에 반항하며 많이 울었다”며 착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²³²⁾ 결국 아르발레스트는 마지막 정착지로 스당(Sedan)²³³⁾을 선택했다. 아르발레스트가 파란만장한 여정을 마무리하고 스당에 도착한 때는 11월 1일, 파리의 학살에서 몸을 피한 지 두 달 여 만의 일이었다.²³⁴⁾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그 이후 두 달여의 방황은 아르발레스트에게 공포와 불안을 극복하고 신의 은총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아버지 기 아르발레스트와 첫 남편 장 드 파가 개종을 결정하기 전 정신적 방황의 시기를 겪었다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맞아 홀로 방황했던 극적 경험을 통해 프랑스에서 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한 결단력이 필요하며 이를 행동에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체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생 바르텔르미 학살 경험에 대해 “이런 수많은 고난의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인간적 희망이 스러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음을

231) Denis Crouzet, *La nuit de la Saint-Barthélemy: un rêve perdu de la Renaissance* (Paris: Fayard, 1994), pp. 76-77.

232) *Mémoires_1868-1869*, p. 70.

233) 스당은 당시 프랑스령이 아니라 독립된 공국(principauté)이었는데, 스당의 제후였던 앙리 로베르 드 라 마르크(Henri Robert de la Marck)와 그의 아내 프랑수아즈 드 부르봉-방돔(Françoise de Bourbon-Vendôme)은 1562년부터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하고 1563년 위그노 신앙과 예배를 스당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1562년 바시 학살 이후 종교전쟁이 일어나자, 스당은 프랑스 위그노의 대표적 피난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 앙리 로베르를 계승한 앙리 드 라 투르 도베르쥬(Henri de La Tour d'Auvergne)는 계속해서 프랑스 위그노의 핵심으로 활동했고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와도 친교가 깊었다. 스당은 이후 앙리 드 라 투르의 아들 프레드릭 모리스 (Frédéric Maurice de La Tour d'Auvergne)의 통치 시기까지 프랑스 왕실과 계속 대립했지만 1642년에 프랑스령으로 편입되었다.

234) 아르발레스트는 이후 스당의 군주인 부이용 공작 부부의 도움을 받아 부이용 공작의 주치의였던 베르다빈(Verdavayne)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Mémoires_1868-1869*, p. 71.

느끼게 된다”고 술회했다.²³⁵⁾ 이처럼 생 바르텔레미 학살의 경험은 아르발레스트에게 공포와 두려움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겠다는 열정”을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던 것이다.²³⁶⁾ 즉 아르발레스트에게 생 바르텔레미 체험은 진정한 위그노로 거듭나는 재탄생의 순간이라 할 수 있겠다.

생 바르텔레미 학살을 통해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한 아르발레스트는 피난지인 스당에서 평생의 반려가 될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아르발레스트의 종교적 신념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다.²³⁷⁾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1574년 여름 스당에서 처음 만났는데, 모르네 역시 생 바르텔레미 학살을 피해 영국으로 도피했던 고통스런 기억을 지닌 투철한 위그노였다.²³⁸⁾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여가를 나누는” 등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는데,

235) *Mémoires_1868-1869*, p. 43. / *Mémoires_2010*, p. 96.

236) *Mémoires_1868-1869*, p. 71. / *Mémoires_2010*, p. 115.

237)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는 당시 백생 프랑세(Vexin Français) 라 불리던 지역 중 뷔(Buhy) 출신으로, 현재 뷔는 일 드 프랑스 발 두아즈(Val d'Oise)에 해당한다. 필리프는 아버지 자크 드 모르네(Jacque de Mornay)와 어머니 프랑수아즈 뒤 벡-크레스팽(Françoise du Bec-Crespin)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필리프는 어머니 프랑수아즈의 영향 아래 위그노로 개종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필리프의 부계 가계도는 소개하지 않고 모계는 외조모부까지 소개했는데, 이는 모르네의 모친 가문이 모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기 때문인 듯하다. 필리프의 아버지 자크 드 모르네는 전형적인 대검귀족으로, 48세까지 전장에서 활약했다고 하며, 어머니 프랑수아즈는 29세에 남편을 잃고 슬하 여덟 명의 자식을 키우며 그들을 모두 위그노로 만들었다. 둘째 아들이던 필리프는 원래 삼촌인 베르탱 드 모르네(Bertin de Mornay)가 지닌 2만 리브르 상당의 성직록을 물려받을 예정이었고, 그 때문에 귀족 자제로서는 드물게 파리로 유학, 콜레주(collège de Lizieux, collège de Boncourt)까지 다니며 고등교육을 받았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을 보면 모르네는 히브리어를 배우고 각종 고전을 섭렵할 정도의 높은 교육수준을 지녔던 것으로 보이며, 18세 이후에는 당시 귀족 자제들의 관행이었던 유럽 여행에 나서, 제네바, 프랑크푸르트, 파도바, 베네치아, 로마, 헝가리 보헤미아 지방, 네덜란드 등을 5년에 걸쳐 주유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모르네는 독어와 영어 등 각종 외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으며, 이는 후일 그가 외교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모르네의 교육과 여행, 개종 과정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p. 9-37.

238)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모르네가 겪었던 생 바르텔레미 학살의 경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모르네는 당시 대표적 위그노 지도자 가스파르 콜리니의 측근으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학살 하루 전 콜리니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을 알게 된 모르네는 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같이 머물던 어머니를 피신시켰다. 학살이 벌어진 직후, 모르네는 거주하던 집 지붕 아래로 숨어 간신히 생명을 구했고, 변장을 한 채 신분을 숨기고 파리를 탈출했다. 하지만 모르네는 이미 그 당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위그노였기에 탈출 도중 폭도들에게 잡혀 강에 끌려가서 죽을 위험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후 모르네는 고향인 뷔(Buhy)에 잠시 머물다가 프랑스 국내에 남아있기 위험하다고 느껴 영국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파리에서 스당까지 가는 데 두 달이나 걸렸던 아르발레스트와 달리, 모르네는 학살이 일어난 후 열흘 만에 영국으로 탈출했다. 모르네의 생 바르텔레미 학살 체험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38-44. / *Mémoires_2010*, p. 92-98.

아마도 이는 두 사람이 생 바르텔르미 학살과 스당으로의 피신 등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와의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 여겼던 듯하다. 당시 모르네는 종교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참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고, 독일 프로테스탄트 군주들과 긴밀히 연락하기 위해 스당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스당을 떠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첫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은 아르발레스트 역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군인이 결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²³⁹⁾ 하지만 “거의 매일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낸 지 여덟 달”이 지난 후 결국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정식으로 청혼했고, 아르발레스트는 이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²⁴⁰⁾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양측 부모 모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공개적으로 약혼문서를 작성, 공증을 받았고 이듬해인 1576년 1월 3일 결혼했다.²⁴¹⁾

모르네와의 결혼은 아르발레스트에게 홀로 방황하던 불안한 생활을 청산할 계기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한 차원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이 “대수학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는”²⁴²⁾ 취미를 즐겼다고 기록할 만큼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르발레스트의 학문적 지평은 당시 위그노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상가 중 하나였던 모르네와의 결혼을 통해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모르네가 집필한 다양한 신학

239) 모르네는 전략적 이유로 스당을 피난처로 택했는데, 스당은 프로테스탄트가 허용되던 곳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이주해온 위그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독일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접경지대에 위치해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외부 칼뱅파 세력의 연결통로 역할을 담당했었다. 모르네는 스당에서 독일 등 외국과 프랑스 위그노 세력을 연결하는 각종 정치적 계획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스당에 모여 있던 위그노들과 친교를 쌓았고, 이때 만든 인맥은 모르네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따라서 모르네 연구자 도시는 모르네의 스당 행을 ‘전략적 피난’이라고 불렀다.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106-109. 아르발레스트의 증언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 83.

240) *Mémoires_1868-1869*, p. 87. / *Mémoires_2010*, pp. 128-129.

241) 아르발레스트는 결혼식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이는 모르네가 결혼 이후 바로 전쟁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성대한 예식을 치를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두 사람의 결혼식 직후인 2월부터 제 5차 종교전쟁이 본격화되었고, 모르네는 결혼식을 올린 직후 스당에서 조직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떠났다.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112-117.

242) *Mémoires_1868-1869*, p. 83.

관련 저서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심지어 모르네에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²⁴³⁾ 또한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성경을 읽고 이에 대해 명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기록했는데,²⁴⁴⁾ 이처럼 아르발레스트가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항상 성경을 내세우는 프로테스탄트적 자세를 갖추게 된 것은 개인적 성향에 더해 모르네와의 지적 교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파리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 아래 위그노가 되고,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한 후, 모르네와의 결혼을 통해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까지, 아르발레스트는 인생 초반 이십오 년의 경험을 통해 독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한 명의 위그노 여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아르발레스트가 얼마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여성이었는가 하는 점은 모르네의 전기작가인 다비드 드 리크²⁴⁵⁾가 아르발레스트를 평한 다음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나는 당시에 [아르발레스트처럼] 모든 덕성을 고루 갖춘 여성을 본 적이 없다. 이견 과장 없는 진실이다. 그녀는 총명한 정신의 소유자였고, 여성이라는 성별이 무색할 정도로 강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갖추고 있었다. 힘 있고 저명한 이들이 그녀를 두려워할 정도로 악행에는 엄격했지만, 가난한 이에 대해서는 박애의 마음이 넘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르발레스트는 신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든 희생하겠다는 불

243)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1년 전인 1575년, 모르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저술해보라는 부탁을 했다. 이에 모르네는 세네카의 편지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의 글을 모아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이 바로 『삶과 죽음을 다룬 이야기들: 모르네와 여러 저자들의 기록 모음집』(*Excellens traitez et discours de la vie et de la mort. Recueillis par Ph. de Mornay: De diuers auteurs de Mornay, Platon, Ciceron, Seneca, s. Cyprien, s. Ambroise*)인데, 이 저작은 1575년 출판된 뒤 여러 차례 판본을 거듭했고 이후 모르네의 대표 저서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일화에서 보이듯,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전부터 상당한 학문적 수준을 지니고 있었고, 모르네와의 결혼은 이를 더 강화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회고록에서 해당 저술에 대한 내용은 *Mémoires_1868-1869*, p. 89.

244) 아르발레스트가 성경에 깊게 의지했다는 언술은 회고록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후] 나는 별다른 치료책 없이 버텼고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다. 신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위안을 삼게 해주셨고, 성경을 통해 나에게 임제한 성령 때문에 나는 다시 안식을 얻었다.” *Mémoires_1868-1869*, p. 305.

245) 다비드 드 리크(David de Licque)는 모르네의 측근으로, 모르네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즉 1549년부터 1623년까지를 다룬 전기를 남겼는데, 전기의 앞부분은 아르발레스트의 기록과 거의 유사하지만, 아르발레스트 사후 소위르의 총독으로 활동한 모르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드 리크는 1616년 사망했기에, 그 이후 부분의 기록은 다이에(Jean Daillé)가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 35.

타는 열정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지닌 모든 덕성보다 더 뛰어난 점이였다.²⁴⁶⁾

아르발레스트가 이처럼 결단력과 용기, 행동력과 열정을 지닌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의 영광’을 믿는 독실한 신앙심과 ‘교회의 성장’을 바라는 위그노적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결국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선택을 통해, 아르발레스트는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능동적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아르발레스트의 기질은 이후 모르네와의 결혼 생활 내내 끊이지 않았던 시련과 갈등을 극복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으며, 그 과정을 통해 아르발레스트는 한층 더 강력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다.

제 3 절 몽토방 ‘가발논쟁’과 주체성의 구현 (1576-1585)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결혼한 1576년, 모르네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결정짓게 될 앙리 드 나바르를 만났고, 이후 그의 측근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앙리 드 나바르는 귀족으로는 보기 드물게 학문적 식견과 언어능력이 탁월했던 모르네를 중용, 주로 외교적 임무를 맡겼는데, 그 결과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초부터 모르네의 정치적 행보를 따라 유럽 각지와 프랑스 전 지역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모르네 부부는 1576년 결혼 후 1577년 영국, 1578년 플랑드르, 1584년 파리 남부 몽토방을 거쳐 1589년 소뮈르에 정착할 때까지 술한 이사와 여행을 되풀이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르발레스트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모르네의 아내라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전념하며 가정을 운영하는 임무에 적극적으로 매진했다. 먼저,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후 십 년 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자식을 낳고 키우는 데 전력을 다했다. 아르발레스트는 1576년 모르네의 영지 플레시스(Plessis)에서 둘 사이의 첫 딸 마르트(Marthe)를 출산했고, 1578년 영국 런던에서 둘째 딸 엘리자베스(Elisabeth)를, 1579년 플랑

246) David de Licques, *Histoire de la vie de Messire Philippe de Mornay* (Leyde: Chez B&A. Elsevier, 1647), p. 30-31의 내용을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 110 에서 재인용.

드르의 앙베르(Anvers)에서 큰 아들 필리프를, 1582년 플레시스에서 막내 딸 안(Anne)을 출산했다. 그 외에도 아르발레스트는 1580년(플랑드르), 1583년(루앙), 1584년(몽토방), 1585년(네락)에서도 임신과 출산을 계속했지만, 위의 네 명의 자녀 외에는 살아남지 못했다.

16세기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더구나 모르네 부부는 외교 임무 때문에 수시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원래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아르발레스트가 감당해야 했던 신체적 부담은 컸다.²⁴⁷⁾ 특히 1583년 아르발레스트는 루앙에서 쌍둥이를 사산하고 난 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해 유언장을 작성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²⁴⁸⁾ 이렇게 결혼 초반 무리한 탓인지 아르발레스트는 평생 크고 작은 병치레에 시달리게 되었다.²⁴⁹⁾

하지만 귀족의 아내인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아이를 낳아 가문을 이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 태어난 아이를 올바른 위그노로 양육해 개혁신교회의 충실한 신도로 만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다. 아르발레스트는 1583년 작성한 유언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만큼 [우리는]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교육시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도록 키워야 한다. 이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아르발레스트가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당시 프로테스탄트 여성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했으며, 이를 위해 온갖 위험마저 무릅쓸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한다.²⁵⁰⁾

출산 외에도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부부는 결혼 초 계속된 거듭되는

247) 결국 1587년 이후로 아르발레스트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았다. *Mémoires_1868-1869*, p. 123. 마지막 출산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 165.

248) *Mémoires_1868-1869*, p. 146. 당시 작성한 유언장 내용은 Mme de Mornay, “Confession de foi et testament de Mme de Mornay,” *Mémoires_1824*, vol. 2, pp. 257-269.

249)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여러 번 큰 병으로 고생한 경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아르발레스트는 병 치료를 위해 온천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고(*Mémoires_1868-1869*, p. 298.), 앙리 4세의 주치의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명을 건지기도 했다.(*Mémoires_1868-1869*, pp. 365-366.)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했는데,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거의 모든 편지에서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치료와 정양에 힘쓰라는 당부를 남기고 있다. 모르네의 서신은 논문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250) Mme de Mornay, “Confession de foi et testament de Mme de Mornay,” p. 263.

이사와 여행을 통해 여러 번 위험한 상황을 겪거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형편에 빠지기도 했다. 1577년 모르네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군대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요청하러 영국으로 가던 중 프랑스 해군의 공격을 받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²⁵¹⁾ 1578년 아르발레스트는 안트워프에 외교 사절로 파견된 남편과 합류하고자 플랑드르로 가던 도중 일행 전체가 페스트에 감염되는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²⁵²⁾ 잦은 이사는 부부에게 경제적인 고민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결혼 이 년 뒤인 1578년 플랑드르에 거주하던 시절부터 모르네 부부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았다. “우리 가족이 외국에 나와 있는 동안 프랑스 집안의 일들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뒤플레시스는 영국과 플랑드르에서 지내는 동안 개인적으로 빚을 많이 졌고, 이를 갚느라 쪼들리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아르발레스트의 회상은 이를 뒷받침한다.²⁵³⁾

임신 및 출산, 여행과 이사로 인한 위기 등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초기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가정경제의 실제적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던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안 살림을 걱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등 가정주부다운 고민을 토로했다.²⁵⁴⁾ 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식을 주셔서 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내 곁에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고 표현하며 이를 스스로 극복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²⁵⁵⁾ 나아가 아르발레스트는 주부로서 가정경제를 운영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남편 모르네의 공적인 업무 내역까지 자세히 파악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아르발레스트는 1584년 이후 모

251) *Mémoires_1868-1869*, pp. 114-116.

252) *Mémoires_1868-1869*, p. 123.

253) *Mémoires_1868-1869*, p. 127.

254)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1577년 영국행 특사로 선발된 뒤 정치적 음모에 빠져 파리에서 발이 묶였을 때 경제적 난관에 빠졌다고 호소했고(*Mémoires_1868-1869*, p. 108), 몽토방 정착 전 어지러운 살림을 정리하느라 고생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 (*Mémoires_1868-1869* p. 150.) 아르발레스트는 그 외 다수 부분에서 결혼 초기 복잡한 살림살이를 운영하느라 고생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당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유럽 전역을 떠돌고 있었기에 당시 아르발레스트는 성(城)을 관리하는 영주의 부인이 아니라 봉급을 받아 생활을 운영하는 관리의 아내로 살고 있었다. 모르네가 앙리 드 나바르의 재무총관이 된 이후, 모르네가 받은 급여는 1년에 1200-1600 크라운이었다고 한다. *Mémoires_1868-1869*, p. 170.

255) *Mémoires_1868-1869*, p. 127.

르네가 담당한 나바르의 재무총관(surintendant des finances)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뒤플레시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고, [재정업무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기에, 그 지위는 뒤플레시스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 뒤플레시스는 십사 년이나 이 공직에 봉사했지만, 그는 사적으로 동전 한 닢 가져다 쓴 적 없고, 빚을 갚거나 땅 한쪽이라도 사거나 한 적이 없다. 반대로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나바르 재정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을 조절했는지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바르 왕은 랑그독이나 도피네, 일(Isle) 이북의 기엔 지방에서 거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중략) 왕과 그의 가족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왕국 안팎의 여행비, 관료들에게 지불하는 봉급, 혈통귀족(gentlemen)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요새의 관리와 왕의 기병대, 화승총 부대의 유지비용도 [뒤플레시스의] 소관이었다.²⁵⁶⁾

모르네가 맡은 재무총관의 지위는 나바르 궁정의 핵심 업무에 속했으므로, 나바르 궁정에서는 이곳 출신이 아닌 모르네가 재정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많았다. 이런 비판에 대응해,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성실함과 청렴함을 강조하며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가정이라는 여성의 소명에 매진하면서 동시에 모르네를 통해 접한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해 관심을 잃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내의 본분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르발레스트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정서적 불안에 항상 시달려야 했다. 어린 자녀들을 잦은 이사와 여행에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부는 아이들의 양육을 시어머니인 프랑수아즈 벡-크레스팽(Francoise Bec-Crespin, Mme de Buhy)에게 맡겨놓은 형편이었다.²⁵⁷⁾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가족들

256) *Mémoires_1868-1869*, p. 171.

257) 아르발레스트가 장 드 파와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쉬잔은 아르발레스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주로 키웠던 것 같다. 아르발레스트는 가톨릭교도인 자신의 어머니가 쉬잔을 양육하는 것이 불안했는지 쉬잔도 자신의 시어머니의 손에 맡겼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Mme de Mornay, “Confession de foi et testament de Mme de Mornay,” p. 264.

과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특정 장소에 정착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바랐다”고 고백하고 있다.²⁵⁸⁾ 이미 다섯 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부부는 시간이 갈수록 잦은 이사로 불안해진 가정을 안정시키고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자 한 곳에 정착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584년 모르네가 나바르의 재무총관이 된 것을 계기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오랜 방랑을 청산하고 프랑스 남부 도시 몽토방(Montauban)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몽토방은 남부 프랑스의 대표적 위그노 도시로, 모르네의 근무지에서도 가까울뿐더러, 모르네가 참석하기로 되어있는 위그노 진영의 대규모 정치회동²⁵⁹⁾이 곧 몽토방에서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정착하기에는 여러모로 최적의 장소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에게 익숙한 프랑스 북부를 떠나 문화적으로 낯선 남부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으며, “영국이나 플랑드르로 갈 때도 별로 두렵지 않았는데 가스코뉴(Gascogne)에 가는 것에는 공포를 느꼈다”고 표현할 정도였다. 남부 프랑스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모르네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족들은 모두 함께 지내야 하며, 특히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자녀들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아내를 설득했다.²⁶⁰⁾

하지만 몽토방에서 아르발레스트는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자신의 위

258) *Mémoires_1868-1869*, p. 179.

259)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 진영을 대표해 1584년 몽토방 회의에 참여하였다. 몽토방 회의란 제 18차 ‘assemblée politique des réformés’를 의미하는데, 이 회합은 1562년 프랑스 남부 랑그독 지방 위그노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기원했다. 1572년 생 바르텔레미 학살 이후 정치적 응집력이 필요하다고 느낀 위그노 세력은 각 지역별로 대표자를 뽑아 전쟁 등 중대 사안을 의논할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assemblée politique des réformés라 불렀다. (assemblée politique des réformés는 현재 한국 학계에서 정확한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회합이 열린 도시의 이름을 붙여 몽토방 회의, 망트 회의 등으로 표기한다.) 이 조직은 철저히 정치적 목적 하에 운영되었고, 기즈 가문이 장악한 파리 중앙지도부에 반대하는 가톨릭 인사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이 조직은 주로 남부 프랑스 위그노들이 중심이 되었고, 따라서 일부 가톨릭 세력은 이들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위그노 국가를 세우려 한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assemblée politique des réformés는 1620년까지 모두 39차례 회합을 가졌고, 종교전쟁이 끝난 뒤에도 위그노 진영의 의견을 수합하고 결정하는 중요기구로 존속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 132.

260) *Mémoires_1868-1869*, p. 150.

그노적 정체성을 개혁교회 내부에서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교회의 담당목사와 심한 갈등을 겪었는데, 그 발단은 어찌 보면 사소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 때문이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에서 겪은 소위 ‘가발 논쟁’은 프랑스 북부와 남부 위그노 사이 상당한 간극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며, 동시에 프랑스 개혁교회가 지닌 여성에 대한 시각이 동시대 위그노 여성의 독립성을 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사건의 개요²⁶¹⁾는 다음과 같다. 몽토방에 이주한 뒤 도시의 핵심 가문 중 하나인 보낭콩트르(Bonencontre) 집안²⁶²⁾에 머물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1584년 목사인 미셸 베로(Michel Berauld)²⁶³⁾에게 머리 모양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는 경고를 받았다. 아르발레스트의 머리모양은 긴 머리를 묶어 올려 높임머리를 가발과 함께 고정시킨 스타일로, 당시 파리 궁정의 귀족 여성 사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식이었다.²⁶⁴⁾ 목사의 지적을 납득하

261)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몽토방에서 자신이 겪은 가발논쟁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아마도 아르발레스트는 아들에게 인생의 지침을 주겠다는 회고록 집필 목적과 해당 사건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듯하다. 이는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이 철저히 모르네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있고 아르발레스트의 개인사를 따로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신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에서 겪은 일에 대해 스스로 자세히 기록한 자료와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 컨시스토리에 보낸 편지 등이 남아있다. 해당 자료는 다음을 참조. Charlotte Arbaleste, “Mémoire rédigé par Mme de Mornay sur l’incident survenu entre elle et le consistoire de Montauban au sujet de sa coiffure,” *Mémoires 1868-1869*, pp. 276-305. 이하 “Coiffure”로 약칭.; “Lettre de Mme de Mornay au colloque réuni à Bruniquel près de Montauban,” *Mémoires 1868-1869*, pp. 306-310.

262) 보낭콩트르(Bonencontre) 가문은 알리에스(Alès), 바르동(Bardon), 브라삭(Brassac), 스크르비악(Scorbiac), 그리고 비코즈(Vicose) 가문 등과 함께 몽토방을 움직이는 십여 개 파위 엘리트 집안 중 하나였다. 이들은 모두 상인이거나 교육자, 공증인 등 부르주아 출신으로, 서로 결혼 등으로 연대해 있었으며, 몽토방의 행정과 사법,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고, 컨시스토리에 소속되어 교회 운영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사무엘 보낭콩트르는 낭트 칙령 이후 설치된 칙령법정(Chambre d’édit)의 법관으로 활동했을 정도의 명망가였다. Philip Conner, *Huguenot Heartland*, pp. 31-38.

263) 미셸 베로(Michel Berauld)는 1564년에서 1611년까지 오십여 년 가까이 몽토방에서 목사로 재직 한 인물로, 몽토방 교회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사이다. 르망(Le Mans) 출신 도미니칸 수도사였던 그는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한 뒤 랑그독에서 목회 수련을 받았고, 1564년 몽토방에 목사로 부임했다. 베로는 목사 급여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73년에서 1579년까지 7년간 목사직을 떠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몽토방 목사로 보냈다. 베로 가문은 이후 몽토방의 권력 중심층으로 부상했는데, 미셸 베로의 아들은 몽토방의 최고직인 수석 시행정관과 판사직을 역임했고, 위에 언급한 사무엘 보낭콩트르의 누이와 결혼하기도 했다. *Ibid.*, pp. 44-45.

264) 아르발레스트의 머리모양은 당시 귀족들의 전형적 스타일로,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자미상의 그림 <주아이외즈 공작의 결혼식 무도회 *Le bal des nocces du duc de Joyeuse*>에서 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이 무도회는 1581년 9월 24일 앙리 3세의 궁정에서 안 드 주아이외즈(Anne de Joyeuse)와 마르그리트 드 로렌(Marguerite de Lorraine)의 결혼을 기념해 열렸다. Joshua

지 못한 아르발레스트가 이에 순순히 따르지 않자, 베로 목사는 과감하게도 아르발레스트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전체를 성찬식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후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스캔들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베로 목사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머리모양은 물론, 생활양식 전반이 위그노의 기준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아르발레스트는 “내 행동이나 생활양식, 그리고 옷 입는 법이나 머리모양 등은 십오 년 동안 항상 동일했으며, 그리스도교 세계 각지의 칼뱅과 교회, 즉 스당이나 독일, 영국, 플랑드르,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유명하고 규모가 큰 교회에서 전혀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²⁶⁵⁾ 즉 결혼 후 유럽 여러 곳을 이주하며 살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머리모양이 사치스럽다는 몽토방 목사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⁶⁶⁾

실제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은 칼뱅의 관점이나 프랑스 위그노 교회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면 충분히 용납될 만한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칼뱅과 교회는 여성의 복장이나 머리모양을 통제해왔고, 화려한 치장이나 사치스러운 의복을 규제하고 검소한 차림을 할 것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귀족 여성이 평민과 구분되는 옷차림을 한 것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전통사회에서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은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징표였기 때문이다. 칼뱅 역시 이에 동의했고, 복장을 규제할 때 특정 항목을 금지시키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의도에 집중하라고 충고했다.

바울은 여성들이 검소하고 소박한 옷차림을 하도록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복장이란 모든 외형적 사안처럼 구원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권위를 지닌 사람들이 규칙을 만들어 과도한 부분을 제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법칙이 왜 생겼는지 그 목적을 살피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중략) 바울

Rosenthal, “L’affaire de la coiffure: l’autorité théologique et l’identité matrimoniale chez Mornay,” *Albinea* 18, p. 619, n. 16.

265) “Coiffure,” *Mémoires_1868-1869*, p. 277.

266) 모르네 역시 아내의 입장에 동의했는데, 특히 모르네는 “자신에게 경고하지도 않고 가족을 추문에 빠트린 [교회의] 태도는 사랑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의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목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 “Coiffure,” *Mémoires_1868-1869*, p. 282.

은 요란하게 치장한 머리카 보석, 금반지 등은 과도한 복장으로 여겨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금이나 보석을 완전히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적절한 수준에 그쳤는가, 그리고 이런 복장을 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치장을 하는 것이 음란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순결한 정신을 드러내는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²⁶⁷⁾

이때 칼뱅이 말한 ‘의도’란 바로 복장이 성적으로 도발적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였다. 원칙적으로 칼뱅과 교회가 여성의 외양을 규제한 가장 큰 이유는 화려한 복장이 성적 문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유럽 대부분의 칼뱅과 교회에서 동일하게 적용한 기준이기도 했다.

프랑스 위그노 교회 역시 칼뱅의 시각대로 성적 음란함의 유무에 따라 여성의 복장을 규제했다. 소뮈르의 목사였던 위쇠(Issac Huisseu)가 1667년 편찬한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 (*La Discipline des églises réformées de France*) 내용을 보면 복장 규제에 대한 위그노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은 1559년부터 1659년까지 스물아홉 차례에 걸쳐 열린 프랑스 전국 시노드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모아 정리해놓은 것인데, 그 중 15장인 「법규와 특수사례」 편에서 위그노 교회가 신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일상적 차원의 생활규범을 32개 항목으로 분류해놓았다.²⁶⁸⁾ 이 중 26항이 바로 옷차림과 머리모양에 대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항 : 신도들의 차림이 프랑스에서 일상적인 수준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른 것일 때, 이를 근거로 성찬식을 금지시킬 수 없다. 그러나 뚜렷하게 음란하다고 여겨지거나 방만한 복장,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 등 새로운 유행, 가슴을 깊게 파서 드러내는 복장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컨시스토리는 이런 문란한 차림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고, 반발하는 이들에게 성찬식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²⁶⁹⁾

267) John Calvin, *Calvin's Bible Commentaries: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by John King (Forgotten Books, 1847, 2007), p. 50.

268) 『프랑스 개혁교회 규율집』 15장에서 다룬 사안들은 가톨릭 종교관행을 따르는 행동, 즉 미사 참석, 마리아 숭배, 수사와의 교류, 가톨릭 교리를 담은 서적의 판매 등을 규제하거나, 종교를 희화화한 저술을 하거나 이를 출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치와 성적 문란을 단속하며 민중들 사이에 널리 퍼진 축제나 춤, 도박 등을 통제하는 것 등이다. Issac Huisseu, *La Discipline des églises réformées de France* (Genève, 1667), pp. 406-452.

머리모양과 복장에 대한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최종 결정 내용을 보면, 교회에서는 음란하거나 지나치게 눈에 띄는 화려한 차림을 규제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관행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규칙은 1561년 오를레앙에서 열린 전국 시노드에서 결의되었고, 이후 1581년 라 로셸 전국 시노드와 1596년 소뮈르 전국 시노드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²⁷⁰⁾ 그런데 프랑스 시노드에서 사회적 관행을 중시하라고 명기한 것은 결국 귀족들의 옷차림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했을 것임을 암시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프랑스는 가톨릭과 위그노가 공존하는 사회였고, 누구든지 쉽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수 있었으므로, 위그노 성직자들은 귀족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들의 일상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²⁷¹⁾

결론적으로, 칼뱅의 주장이나 프랑스 전국 시노드의 결정사항 등 프랑스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 가발처럼 귀족여성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던 머리모양을 이유로 성찬식을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아르발레스트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몽토방에서는 왜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을 문제 삼았던 것일까?

몽토방에서 복장에 대해 이렇게 강경한 규제가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를 파악하려면 몽토방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전래된 배경과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몽토방은 3장 1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지역 엘리트와 교회가 연대한 프랑스 남부 종교개혁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었다. 가톨릭 주교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몽토방의 부르주아 세력²⁷²⁾

269) *Ibid.*, p. 441.

270) *Ibid.*, pp. 441-442.

271) 프랑스처럼 위그노 세력이 소수파이고 위그노 귀족의 존재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에서 신분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는 귀족의 복장을 규제하기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칼뱅파가 보급된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양상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칼뱅파가 사치를 규제하고 검소한 복장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를 근거로 성찬식을 금지시키거나 파문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처한 사례는 프랑스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다. Philip Benedict, *Christ's Churches Purely Reformed: A Social History of Calvin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2002), pp. 460-489.

272) 몽토방은 14세기 주교관구가 된 이래 가톨릭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는데, 도시 운영의 핵심이던 부르주아 관료층은 실정을 일삼던 주교를 몰아내고 도시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 프로테스탄티즘을 적극 수용하였다. 몽토방은 1562년부터 오 년간에 걸친 치열한 분쟁 끝에 위그노 도시로 변모하였고, 이후 프랑스 종교전쟁 기간 중 툴루즈 군대의 공격에 맞서 세 번의 포위 공격을 버텨 낸 결과, 위그노의 남부 전선을 지키는 핵심 요새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Philip Conner, *Huguenot Heartland*,

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도시의 특권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몽토방을 장악한 도시 엘리트들은 적극적으로 칼뱅과 교회와 연대했고, 교회권력과 정치권력은 서로 상부상조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²⁷³⁾ 더구나 당시 종교전쟁 과정에서 남부 프랑스 지역 가톨릭 세력의 아성인 툴루즈와 세 차례에 걸쳐 힘든 전투를 벌였던 경험을 통해, 몽토방 위그노 지도자들은 마치 군대에서 내부단속을 하듯 철저하게 규칙을 적용하여 몽토방 주민들의 위그노적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1580년대 몽토방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강력한 사회규율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몽토방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던 프랑스 남부 도시 님(Nîmes)에서도 벌어지는데, 그 실례로 1589년 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분과 입술연지 판매를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다.²⁷⁴⁾ 몽토방을 비롯 프랑스 남부 몇몇 도시에서 시도한 강경한 사회규율화 정책 때문에 유럽 다른 곳이나 프랑스 기타 도시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이 몽토방에서는 성찬식을 금지시킬 정도의 사안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아르발레스트의 가발을 규제한 몽토방 교회의 판단이 과연 칼뱅과 이상을 철저히 구현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무리하게 제도화를 강행한 부작용인지 그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명령이 적절치 못하다고 여긴 아르발레스트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점이다. 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베로 목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목사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한 서신을 몽토방 컨시스토리에 보내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몽토방 컨시스토리에서 이 서신을 거부하자,

pp. 5-7.

273) 프랑스 남부의 종교개혁 진행과정에서, 다른 도시들의 경우 부르주아 관료층과 교회 사이에 권력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몽토방은 양자의 협조체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된 드문 사례라 평가받고 있다. *Ibid.*, pp. 86-88.

274) 프랑스 컨시스토리의 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Philippe Benedict, *Christ's Churches Purely Reformed*, pp. 470-472. 님 지방의 사회규율화 과정에 대해서는 Raymond A. Mentzer, Jr., "Disciplina nervus Ecclesiae: The Calvinist Reform of Morals at Nîme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8, no. 1 (Spring, 1987), pp. 89-116, 특히 p. 107.

아르발레스트는 컨시스토리에 직접 출석해 목사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파했으며, 그 후 몽토방 근처 브랭켈(Brinquel)에서 열린 콜로크²⁷⁵⁾에도 서신을 보내 베로 목사와 몽토방 컨시스토리를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만 근거하더라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청원을 반복한 셈인데, 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교회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다.²⁷⁶⁾ 이런 아르발레스트의 모습은 종교개혁가들이 미화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여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몽토방 교회 지도자들은 아르발레스트의 대응을 교회의 권위를 경시하고 부르주아 출신 목사의 결정에 반항한 귀족 여성의 편협한 불만이라 여긴 듯하다. 몽토방 컨시스토리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목사의 결정을 지지하며 아르발레스트에게 가발을 벗으라는 권고만 반복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문을 분석해보면,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위그노 정신에 따라 종교적 근거를 가지고 목사의 명령을 거부했고, 자신이 여성이거나 귀족이라는 점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아르발레스트가 가발을 쓰는 행동이 위그노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동이라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아르발레스트는 ‘성경’을 내세웠다. 아르발레스트는 성경을 모두 살펴봤지만, 가발을 쓰는 것을 금지한다는 구절은 없다고 지적했다.

275) 칼뱅파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은 교회와 신도 대표의 연합인 컨시스토리를 근간으로 하여, 컨시스토리에서 확정되지 않은 문제를 모아 지역별로 의논하는 콜로크(colloque), 콜로크에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들을 다시 논하는 지역 시노드(synode regionale)와 궁극적 판정이 내려지는 전국 시노드(synode nationale), 이렇게 네 단계 절차를 거친다. 칼뱅파 교회의 의사결정시스템에서는 특정 교회가 규모 면에서 월등하다 해도 다른 교회보다 우월하지 않고 상호 평등하다는 원칙이 준수되며, 교회 내에서도 목사가 장로나 컨시스토리 구성원에 비해 더 많은 특권을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e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88-91.

276) 몽토방 가발논쟁의 결과 베로 목사와 아르발레스트 중 누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아르발레스트는 세 차례의 청원 끝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시노드에 이를 재청원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시노드 기록에서는 아르발레스트의 청원 여부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1584년 몽토방에서 갈등이 벌어진 후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가족은 몽토방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네락(Nérac)으로 이주하였는데, 아르발레스트는 거주지를 옮긴 이후 가발에 대한 논쟁을 계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더 이상의 청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성경에 교회에서 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금지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찾아 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땅아 늘어뜨린 머리모양이나 진주장식, 또는 기타 화려한 치장에 대해 말한 부분이 나옵니다.²⁷⁷⁾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비틀어 올린 머리카락이나 금장식, 또는 요란한 복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²⁷⁸⁾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금이나 진주, 또는 다른 장식으로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은 보통 가발까지 쓰지 말라고 말한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²⁷⁹⁾

이처럼 성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아르발레스트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런 성경구절은 검소하게 살라는 뜻이지 세부적인 형식에 집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견해를 보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칼뱅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칼뱅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칼뱅은 사도 바울이 복장 문제를 언급한 것을 이를 통해 신도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개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소소한 사항에 연연하며 집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²⁸⁰⁾

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주장은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 대한 칼뱅의 주해에 입각한 것으로, 앞서 인용한 바 있다.²⁸¹⁾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성경과 칼뱅의 주해를 언급하며 자신의 머리모양은 성경이 정한 바에 어긋나지 않으며, 오히려 베로 목사와 몽토방 교회가 형식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성경중심주의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베로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아르발레스트는 목사가 가발을 근거로 성찬식을 거부한 조치 역시 “성경에 언급된 바 없는 행

277) [디모데 전서 2장 9-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들을 단장하고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278) [베드로 전서 3장 3-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279) “Coiffure,” p. 300.

280) *Ibid.*, p. 289.

281) 각주 267번 참조.

동”이라고 비판했다.²⁸²⁾ 아르발레스트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찬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마태복음 5장 22-23절을 직접 인용하며 교회에서 신도를 규제하는 기준은 그가 올바른 믿음을 지녔는가 하는 점이지 외양 등 “구원과 무관한 사안”, 즉 아디아포라(adiaphora)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런 사안을 다룰 때 교회는 처벌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²⁸³⁾

나는 교회가 구원과 무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중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원과 무관한 문제를 다룬 법칙들 중, 아직 교회의 규율로 편입되지 않은 사안을 다룰 때는 과문이나 성찬식 금지 등 처벌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에 집중되어야 합니다.²⁸⁴⁾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몽토방 교회가 자신을 성찬식에서 제외시킨 행동은 지나친 처사이며, 프랑스 다른 교회와는 달리 몽토방에서 유난히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프랑스 위그노 교회 간 조화와 질서를 깰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르발레스트가 이런 시각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모르네와 결혼 후 유럽 각지에 거주했던 그녀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인간의 의견이 아무리 고결하고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겨지는 것은 위험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이야말로 제가 이렇게 계속 청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의 번영과 조화를 위해서는 규율이 애매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항상 명백해야 합니다. 지금 몽토방 교회의 입장이 만일 하나님이 명령처럼 중요한 것이라면, 왜 몽토방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에서는

282) “Coiffure,” p. 301.

283) 아디아포라(adiaphora)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인과 무관한 행동 전반을 의미하며, 그 행동이 종교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특정 행동을 한 사람의 의도에 달려있다. 무엇을 아디아포라라고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른데, 칼뱅은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은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 여겼다. 아디아포라는 여성의 지위를 논할 때 자주 거론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칼뱅과 여성, 아디아포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주 62번 참조.

284) “Coiffure,” p. 294.

이런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²⁸⁵⁾

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가발은 성경이 금지한 사안도 아니며, 가발을 이유로 성찬식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몽토방 목사의 판단을 성경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고,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을 칼뱅의 아디아포라라는 신학적 개념에 접목시켜 이론적으로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가 성경과 신학을 근거로 몽토방 교회 목사의 판단에 저항한 태도는 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 여성이 지닌 종교적 특징이라 추정된다.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탄압이 심해 교회조직이 발달하지 못한 프랑스 북부 지역 위그노들은 교회의 제도적 관리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종교적 각성을 통해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다. 이들에게 위그노 신앙은 아르발레스트 본인이나 그녀의 아버지, 첫 남편의 경우에서 보듯 경험 속에서 신의 은총을 체험한 각별한 순간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후에도 성경을 읽거나 칼뱅과 교리를 성찰하는 등 보다 개별적이고 내면적인 방법을 활용해 신앙을 키워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도 성경을 읽으며 명상하는 대목은 자주 등장하지만, 예배나 신도들 간 종교적 회합 등 교회운영에 관련된 기술은 극히 드문 편이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적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신학적 내용을 학습하는 방식에는 익숙했지만, 규율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는 프랑스 남부지역 제도권 교회의 주장에는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개인의 결단과 성찰을 통해 위그노 정체성을 확립한 프랑스 북부의 위그노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생 바르텔르미 학살 등 극단적 탄압을 겪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깨우치게 되었다. 특히 아르발레스트처럼 자신의 신앙을 위해 가족 등 개인적 유대마저 넘어서야 했던 경우, 여성이라는 이유로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⁶⁾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285) "Coiffure," p. 303.

확립하는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 성향을 내면화했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과감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아르발레스트는 자연스럽게 독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몽토방에서 벌어진 가발논쟁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대응한 방식은 당시 여성들이 종교개혁가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닌 여성관을 그대로 내면화하지 않고 나름의 방법으로 ‘전유’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아르발레스트는 결혼 초기 출산과 가정운영, 남편에 대한 내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칼뱅이 주장한 아내와 어머니의 소명에 충실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교회가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한다고 판단한 순간 강경하게 권위에 대항하며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태도는 아내와 어머니의 소명에 충실한 삶이 반드시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동반하지 않으며, 때로는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자세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프랑스 종교개혁처럼 학살과 전쟁 같은 극단적 위기를 겪었던 위그노 여성들은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일상의 모든 측면에 꾸준히 적용하고자 노력할 자질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소명에 독자성과 자율성을 결합시키는 아르발레스트의 능동적 기질은 이후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 운명의 순간에서도 한결같이 발휘되었다.

제 4 절 자녀교육과 종교적 정체성의 계승 (1585-1606)

1585년 모르네는 그 어느 때보다 프랑스 종교전쟁의 향배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1584년 앙리 3세의 동생인 앙주 공(Duc d'Anjou)이 사망한

286) 아르발레스트는 가발 논쟁을 다룬 의견서에서 만일 자신의 남편이 가발을 벗으라고 명령한다면 이에 따를 것이라 말하며 자신이 남편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반항적 아내가 아니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 논쟁이 벌어질 당시 남편인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의 특사로 파리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아르발레스트에게 구체적 충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부재중인 남편을 거론하며 자신이 순종이라는 아내의 의무에 충실하다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적 언술로 보인다. “Coiffure,” p. 298.

후, 모르네의 주군이자 위그노 교도인 앙리 드 나바르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 일 순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위그노 세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자, 위그노 진영의 정치사상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과거 폭군에 맞서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위그노의 임무라고 주장했던²⁸⁷⁾ 모르네는 “위그노 교도 역시 훌륭한 프랑스 시민”²⁸⁸⁾이며, 프로테스탄트라도 프랑스 전체 신민을 위하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모르네는 다량의 팜플렛을 작성하며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는 선전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게 된다.²⁸⁹⁾

한편, 가톨릭 진영의 반발은 맹렬했다. 프랑스에 위그노 국왕이 탄생할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은 가톨릭 세력은 기즈 가문을 중심으로 프랑스 핵심 대귀족들과 프랑스 북동부 출신 영주들을 규합해 가톨릭동맹(League)을 구성, 위그노에 맞서는 총공세를 시작하게 되었다. 과리를 중심으로 준동한 가톨릭동맹이 왕권을 압박하자, 앙리 3세는 1588년 가톨릭동맹의 수장인 기즈 공작과 기즈 추기경을 암살했고, 앙리 드 나바르와 공식적으로 연대하기로 결정, 그 증표로 프랑스 중북부의 핵심 거점도시 소뮈르(Saumur)를 위그노 측에게 양도했다. 모르네는 소뮈르의 총독(gouverneur)이자 국왕군 사령관(lieutenant du roi)에 임명되어 도시의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모르네 부부는 이를 계기로 결혼한 지 십삼 년 만인 1589년, 오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영구적으로 소뮈르에 정착하였다.

287) 모르네는 대표적인 모나르코마크 파 사상가로, 한때 『반폭군론』 등을 통해 폭군에 맞서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권리이자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는 공화주의적 성향의 글을 집필했다. 그러나 1580년대 후반 모르네의 정치사상은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논쟁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게 된다. 모르네 정치사상의 속성과 변화에 대해서는 James B. Collins,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à l’État français: Duplessis-Mornay et la transformation de la citoyenneté en France,” *Albinea* 18, pp. 325-338.

288) *Mémoires* 1868-1869, p. 148.

289) 모르네는 1585년부터 1589년까지 이십육 편의 팜플렛을 작성하였다. 이 팜플렛들은 대부분 가톨릭동맹의 수장인 기즈를 겨냥, 그가 외국인이면서 프랑스의 왕을 억압하는 등 잘못된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가 위그노라는 점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는 데 어떤 문제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팜플렛의 내용과 모르네의 역할에 대해서는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289-360.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소뮈르는 가족이 모여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 준 소중한 장소였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삶을 모두 잘 돌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허락해주셨다”고 표현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²⁹⁰⁾ 모르네는 소뮈르 정착 이후 예배당을 짓고 요새를 건축하는 등 도시 정비에 나섰고,²⁹¹⁾ 도시에 위그노 신학교를 세울 목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교수를 초빙하는 등 소뮈르를 프로테스탄트 신앙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²⁹²⁾

한편, 아르발레스트는 잦은 공무로 자주 소뮈르를 비웠던 모르네를 도와 가족들이 살 집을 건축하고²⁹³⁾, 딸들을 결혼시키며 손주들을 돌보는 등 가정의 대소사를 직접 관장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²⁹⁴⁾ 아르발레스트는 소뮈르 정착 이후에도 자신의 위그노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유의 능동적 기질을 발휘, 아래 인용문처럼 소뮈르에서 올바른 위그노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회 건축을 감독하는 등 까다로운 임무를 몸을 사리지 않고 완수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소뮈르에 도착한 뒤플레시스는 그의 부재동안 내가 부지런히 실행에 옮긴 대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많이 진행된 것에 큰 만족을 표했다. 사실 [소뮈르에서 위그노] 교회 건축은 예정에 없는 일이었고 따라서 [공금에서] 금화 한 푼 쓰는 것도 불가능했다. (중략) 설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뮈르의 위그노들은] 쥐 드 폼(Jeu de Paume)을 하는 회관을 하루에 1.5 에퀴에 빌려서 사용

290) *Mémoires_1868-1869*, p. 179.

291) *Mémoires_1868-1869*, pp. 248-249.

292)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에 소뮈르 신학교에 대한 언급은 여러 번 등장한다. (왕에게 학교 건설을 위해 임시 자금 지원을 요청, *Mémoires_1868-1869*, p. 247. 학교 건립 허가를 얻고 학교에 필요한 과목과 교수 모집에 대해 고민함, *Mémoires_1868-1869*, p. 257) 모르네가 구상한 소뮈르 신학교는 철학, 수학, 신학과를 갖춘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이었으며, 모르네는 이를 위해 위그노 공동체에서 가장 학문적 명성이 높은 이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접촉했다. 모르네의 구상은 재정적 난관 때문에 몇 년 이상 지연되다가 결국 1607년 현실화되었다. 소뮈르 신학교는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위그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목사와 사상가를 배출, 소뮈르는 이후 위그노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Didier Poton, *Duplessis-Mornay: Le Pape des Huguenots, 1549-1623* (Paris: Perrin, 2006), pp. 198-203.

293) *Mémoires_1868-1869*, p. 305.

294) 1597년 아르발레스트와 그의 첫 남편 사이의 딸 쉬잔이 베리(M. de la Vairie)와 결혼했고, 1599년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사이의 장녀 마르트는 빌라르누(Villarnoul)의 영주인 조쿠르(Jean de Jaucourt)과 혼인했으며, 1600년 차녀 엘리자베스는 노르망디 지방 폰트네의 영주인 생 제르맹(M. de Sanit Germain)과 결혼했다. 딸들의 결혼상대가 모두 위그노 교도였음은 물론이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이 완결되기 전까지 도시의 성문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을 구입해 임시방편으로 예배당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새 예배당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자 모르네와 나는 설교를 위한 온전한 장소가 곧 마련된다는 사실에 기뻐했다.²⁹⁵⁾

하지만 소뮈르 정착 후 아르발레스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것이었다. 4장 2절에서 전술했다시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는 아르발레스트의 첫 결혼에서 얻은 쉬잔을 포함, 마르트, 엘리자베스, 안 등 네 명의 딸과, 1579년 태어난 유일한 아들 필리프까지 모두 다섯 명의 자식이 있었다. 소뮈르에 정착하기 전까지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잦은 이사와 여행을 반복하느라 자식들을 친척들에게 맡겨 놓았는데, 모르네 부부는 이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이 나이에 적합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뒤쳐질까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²⁹⁶⁾ 이들은 특히 이미 열 살이 된 아들 필리프의 교육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중세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귀족가문에서 아들에 대한 교육이 보통 칠 세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모르네 부부는 소뮈르 정착 이후 아들 필리프의 교육에 매진해야 할 상황이었다.²⁹⁷⁾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는 아들 필리프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히 묘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높은 교육수준을 감안해본다면,²⁹⁸⁾ 그들이 아들 필리프에게 일반 귀족의 기

295) *Mémoires_1868-1869*, p. 248.

296) 소뮈르에 정착한 1589년, 큰 딸인 쉬잔은 이미 이십 세가 넘었고, 모르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십대로 접어들고 있었으며, 외아들인 필리프의 경우 막 십 세가 된 상황이었다.

297) 중세에서 근대까지 유럽 귀족들이 자녀에게 연령 별로 부여했던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Shulamith Shahar, *Childhood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1990), pp. 21-31. 소뮈르에 정착하기 전부터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가정교사를 동원, 자녀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배려했고, 아들 필리프에 대해서는 모르네가 여러 방법을 동원, 직접 교육에 개입하기도 했다. 아들 필리프가 아홉 살이던 1588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아들이 승마법을 배우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이 보이는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해당 내용은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30 janvier 1588,” *Mémoires_1868-1869*, p. 149.), 같은 해 모르네는 역시 아르발레스트에게 “우리 아들의 라틴어 실력이 이제 꽤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7 mai 1588,” *Mémoires_1868-1869*, p. 169.)

298) 모르네는 당시 귀족의 수준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 모르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주 237번 참조. 아르발레스트의 교육과정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아르발레스트가 스당에서 모르네와 교류하던 시절 여가시간에 대수학(arithmétique)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취미활동을 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르발레스트 역시 귀

준을 넘어서는 차원의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 추정된다. 모르네가 자녀교육에 대해 지녔던 관심과 열정은 칼뱅과 공동체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었는데, 네덜란드의 오라네 대공비(Princess d'Orange)²⁹⁹⁾같은 고위귀족조차 모르네에게 자녀교육에 대해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³⁰⁰⁾ 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자신들의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아들 필리프의 교육을 직접 관리했다. 모르네는 귀족이라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시각 하에 아들을 교육시켰고, 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 학문적 역량을 현실과 결합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도 했다. 모르네가 아들을 직접 전장에 데리고 나가거나, 영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를 장기간 여행하도록 권한 점등은 모르네 부부가 아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³⁰¹⁾

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가 아들 필리프를 교육시키며 설정

족 집안의 자제로서 상당 수준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된다. *Mémoires_1868-1869*, p. 83.

299) 모르네에게 아들 교육에 대해 문의한 오라네 대공비란 루이즈 드 콜리니(Louise de Coligny, 1555-1620)를 뜻한다. 루이즈 드 콜리니는 위그노 군사지도자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딸로, 생 바르텔르미 학살로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뒤 네덜란드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오라네 공 윌리엄(William de Nassu, Prince d'Orange)를 만나 1583년 그와 결혼하였다. 1년 뒤 오라네 공 윌리엄이 암살당하자, 루이즈 드 콜리니는 오라네 공의 가문과 그가 남긴 열 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루이즈 콜리니의 일생에 대해서는 Roland Bainton, *Women of the Reformation: France and England*, vol. 2, pp. 112-133. 루이즈 콜리니와 모르네는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는 등 각별한 친분을 지닌 사이였다.

300) 모르네는 1591년 오라네 대공비의 부탁을 받고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한 지침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Philippe Duplessis-Mornay, “Sur l’institution d’ung enfant que l’on veut nourrir aux lettres, envoyé à Madame la Princess d’Orange, a son instance sur le subject de son fils,” *Mémoires_1824*, vol. 5, pp. 65-71. 모르네가 오라네 대공비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모르네는 귀족이라도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워야 한다고 보았고, 문법, 수사학, 논증술 등을 익히고,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상위 학문으로 수학, 음악, 기하학 등을 언급하고 취미로 그림그리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모르네는 고전어 습득을 위해 ‘이교도’ 저작들도 광범위하게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휴머니스트적 교육방법론을 광범위하게 수용했다. Philippe Duplessis-Mornay, “Sur l’institution d’ung enfant,” pp. 67-70.

301) 1592년 모르네의 주도로 로쉬포르(Rochefort)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모르네는 당시 십삼 세가 갓 넘은 아들을 전장에 데리고 나가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들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자신의 행동이 “아들이 앞으로 맡게 될 직업에 대해 필요한 경험과 시각을 얻을 필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émoires_1868-1869*, p. 253. 또한 모르네는 당시 귀족 자제들이 젊은 시절 여행을 떠나던 관례대로 아들 필리프를 1594년 저지대 지방, 그리고 1595년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지로 보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아들 필리프의 여행에 대해 여러 번 자세히 언급했다. *Mémoires_1868-1869*, p. 288, p. 296, p. 298.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자신의 아들 필리프가 “모르네의 교육을 받아 왔다면 스무 살 때 이미 마흔 살 정도의 수준일 것”이라는 평판을 얻었다고 기록한 바 있는데, 이 구절에서 모르네가 아들 교육에 얼마나 공을 들였으며 아르발레스트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지 예상케 한다. *Mémoires_1868-1869*, p. 83.

한 목표는 높은 학문적 성취나 사회적 출세가 아니라 위그노 대의에 투신할 수 있는 투철한 종교적 심성을 키우는 것이었다. 모르네가 오라네 대공비에게 자녀교육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지식이 필요한 이유의 시작과 끝”이라고 언급한 점은 이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³⁰²⁾ 아르발레스트 역시 모르네에게 동의했는데, 이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서문 격인 아들에게 주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확연히 드러난다.

나의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네가 받은 축복은 곧 네가 짊어진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너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너를 양육했고,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너를 교육시켰다. 이런 교육이 결국 너를 발전시키고, 네가 교회 속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데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중략) 이런 너의 운명을, 신이 너를 크게 쓰기 위해 준비해 두신 운명을 생각해라. 네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명인 교회의 재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해라. (중략) 그리고 내가 모르네와 나의 삶에 대해 작성한 이 글을 너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완결지어주길 기대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길 원하고, 그러는 동안 나에 대해서도 기억해주길 바란다.³⁰³⁾

아르발레스트의 편지에서 나타나듯, 모르네 부부는 아들이 세속적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교회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에게 종교적 신념은 귀족이라는 신분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귀족가문의 자녀교육은 가문의 번영과 부흥을 위해 그들이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게 마련이지만, 아르발레스트에게 아들 필리프의 존재 이유는 아버지 모르네가 위그노 공동체에서 담당할 정치적, 학문

302) Philippe Duplessis-Mornay, “Sur L’institution d’un enfant,” p. 67.

303) Charlotte Arbaleste, “Lettre dédicatoire de Charlotte Duplessis-Mornay à son fils Philippe,” pp. 1-4.

적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종교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아들 필리프가 이스라엘을 혼란에서 구원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예언자 사무엘(Samuel)처럼, 프랑스에서 개혁신앙과 개혁교회라는 ‘진정한 종교(vrai religion)’를 바로 세우는 임무에 매진해 주기를 기대했다.³⁰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아들 필리프뿐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종교적 정체성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딸들에게 귀족여성에게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시켰지만, 그들의 양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이 위그노적 믿음과 신념을 지니고 이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며 사는 것이었다.³⁰⁵⁾ 1583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아르발레스트가 그의 첫 결혼에서 얻은 딸 쉬잔에게 쓴 다음 내용은 아르발레스트가 딸들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 잘 입증해준다.

나는 쉬잔에게 삶이 다하는 날까지 위그노 신앙을 잘 지키기를 당부한다. 그것이 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중략) 쉬잔은 아버지 장 드 파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장 드 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는 프랑수아 2세의 측근이었으나 출세보다 신앙을 선택했다. (중략) 쉬잔은 역시 나에게 대해서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내가 쉬잔을 가르치느라 쏟은 정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주기를. (중략) 내가 쉬잔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소원은 쉬잔이 꼭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³⁰⁶⁾

304)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을 신께 바친다는 의미에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자 했었다. *Mémoires 1868-1869*, p. 124. 칼뱅과 사회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 하는 점은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프랑스 교회 계율집에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온 이름만 쓰라는 조항이 존재했고,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다비드(다윗), 유디트, 쉬잔, 라헬(레이첼) 등 과거에는 많이 쓰이지 않던 이름이 프랑스 위그노 사회에 등장하게 된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새로 태어난 위그노 가정에서 아이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대략 10-40%의 비율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그노들은 가톨릭과 비슷하게 신약성경에서 기원한 대중적인 이름, 즉 장, 피에르, 자크, 마리, 잔, 안 등을 선호했다.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 196.

305)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 딸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아르발레스트 유언장에서 아르발레스트의 사촌이 쉬잔의 가정교사(tutor)가 되어주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딸들에게도 귀족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본 수준의 교육을 시켰음은 분명하다. Mme de Mornay, “Confession de foi et testament de Mme de Mornay,” p. 264.

위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르발레스트는 딸들이 위그노 신앙을 지키고 삶 속에서 구현하려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아르발레스트 본인의 삶을 돌아볼 때, 그녀가 강건한 위그노 신념을 키우고 이를 위그노 공동체 속에서 발현하고 살 수 있었던 중요한 매개가 남편 모르네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따라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딸들의 남편감을 고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춘 사람”인지 가장 먼저 고려했다.³⁰⁷⁾ 아르발레스트의 딸들은 결국 모두 독실한 위그노 출신 귀족들과 결혼했고, 부모인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긴밀히 교류했다. 아르발레스트의 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친정인 소뮈르에 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르발레스트는 손주들을 위해 위그노 공동체의 명사들을 섭외, 그들의 대부와 대모로 연결시켜주기도 했다.³⁰⁸⁾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딸들과 그 후손들 역시 위그노적 정체성을 계승할 소중한 존재로 여겼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작은 성과물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통로이자 자신들의 세대에서 미처 이루지 못한 종교적 사명을 언젠가는 실현시켜 줄 소중한 희망이었다.³⁰⁹⁾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가 자녀들에게 종교적 정체성을 계승하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으려 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프랑스 전황이 위그노 진영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급변했기 때문이다. 모르네 부부가 소뮈르에 정착한 지 5년 뒤인 1593년, 위그노 지도자이자 모르네의 주군이었던 앙리 드 나바르는 왕위를 염두에 두고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모르네를 비롯한 위그노 진영은 이 사건을 통해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

306) *Ibid.*, pp. 266-267.

307) *Mémoires_1868-1869*, p. 317. 모르네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제안이 있을 때마다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하지 않고 항상 아르발레스트와 함께 논의했으며, 서신을 통해 자신이 소개받은 사윗감들에 대해 소개하고 아르발레스트의 조언을 구했다. 모르네 역시 아르발레스트에게 사윗감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이 ‘강건한 개혁신앙의 소유자’라는 점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 “Lettre de Mormay à sa femme, le 13 octobre, 1596,” *Mémoires_1824*, vol. 7, pp. 15-16.

308) 예를 들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큰 딸 마르트가 낳은 딸 카트린의 대모는 유명한 카트린 드 파르트네(Catherine de Parthenay)였다. *Mémoires_1868-1869*, p. 10.

309) *Mémoires_1868-1869*, p. 365.

록에서 “왕은 스스로 타락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그의 측근들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고 적으며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 믿고 그토록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맞서 싸워왔는데 지금 굴복해버린다면 정신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³¹⁰⁾

모르네는 자신의 주군 앙리 드 나바르가 왕위를 위해 개종했을 뿐, 여전히 위그노 신앙과 종교개혁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 자위했고,³¹¹⁾ 결국 1594년 2월 앙리 4세로 즉위한 그의 주군을 위해 가톨릭 진영은 물론 프로테스탄트 진영 전체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³¹²⁾ 또한 모르네는 프랑스에서 가톨릭과 위그노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낭트칙령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고 위그노 진영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³¹³⁾ 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앙리 4세의 개종과 즉위, 낭트칙령 선포 등을 겪으며 자신의 세대에서 위그노 진영이 최종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현재의 고생을 통해 최소한 아이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³¹⁴⁾ 바라면서 자식 세대를 훌륭히 교육시키고

310) *Mémoires_1868-1869*, p. 264.

311) 아르발레스트는 앙리 드 나바르가 모르네에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개혁신앙을 향해 있으며, 자신이 왕권을 확립한 후 언젠가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과 종교적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기록했다. 모르네는 이런 전망에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종교적 분열을 극복하려면 앙리 드 나바르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안정된 국가를 이룩해야 하며, 프랑스에서 교황의 권력을 몰아내고 갈리칸 교회가 지니고 있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앙리 드 나바르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Mémoires_1868-1869*, p. 267. / *Mémoires_2010*, p. 256.

312) 모르네가 가톨릭 진영과 교섭을 벌인 대표적 사례로 1594년에서 1596년에 걸친 메르퀴르(Mercoeur)와의 협상을 들 수 있다. 모르네는 끝까지 앙리 4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메르퀴르를 상대로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고, 메르퀴르와 에스파냐 사이의 밀약을 폭로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결국 메르퀴르는 이후 1598년 앙리 4세에게 투항했다. 당시 모르네의 활약에 대해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는 개혁신앙을 발전시키고 왕이 내린 업무에 충실하게 부응하는 두 가지 일을 모두 최선을 다해 감당해냈다”고 평가했다. *Mémoires_1868-1869*, pp. 310-315. 또한 모르네는 앙리 4세의 개종 이후 왕에게 등을 돌린 위그노 세력을 회유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1597년 샤텔르로(chatelleraut) 회의에서 모르네는 아미앵을 점령한 에스파냐를 물리칠 수 있도록 위그노 세력이 단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르발레스트는 그 과정에서 모르네가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국가의 공적인 어려움보다는 자신이 지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기록했다. *Mémoires_1868-1869*, pp. 321-323.

313) 모르네는 낭트칙령 내용에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왕을 도와 프랑스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 불만이 많았던 위그노 진영을 상대로 앙리 4세의 입장을 설득시키는 데 최선을 다했다. 낭트칙령 반포에서 모르네가 담당할 역할에 대해서는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558-568.

자신들의 신념을 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³¹⁵⁾

그러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이런 소망은 외적으로는 프랑스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그리고 내적으로는 모르네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무참히 좌절되었다. 프랑스의 군주가 된 앙리 4세는 왕권강화를 위해 다수파인 가톨릭 진영과 연대할 필요를 느꼈고, 이 과정에서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르기 전 그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모르네는 정치적으로 실각하게 되었다.³¹⁶⁾ 이에 더해 1605년,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키운 아들 필리프는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칼뱅파와 가톨릭 사이의 전쟁에 후원 차 출전했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실각과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에 맞서 다시금 자신의 강인한 종교적 신념을 되새기며, 모든 사건에 깃든 신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의 실각에 대해 “아무리 큰 난관이 닥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수습되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힘든 상황 역시 결국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잘 마무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고 말하며 의연한 태도를 고수했으며,³¹⁷⁾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곁에서 데려가신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의 교회를 우리의 집과 가족으로 삼아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쏟는 일에 전념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견뎌내고자 했다.³¹⁸⁾

이러한 아르발레스트의 태도는 개인의 가혹한 일상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신의 섭리를 찾아내려 노력했던 프랑스 북부 위그노들의 망탈리테를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 북부에서 위그노가 되겠다고 선택한 이후, 이들

314) *Mémoires_1868-1869*, p. 156.

315) 모르네가 소뮈르에 신학을 공부하는 위그노 신학교를 세우고자 노력한 것도 이런 취지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모르네는 소뮈르에서 앞으로 가톨릭과의 종교적 논쟁을 담당할 수 있는 언어와 논리, 신학에 모두 능한 인재를 키우려고 시도했다. Didier Poton, *Duplessos-Mornay: Le pape des Huguenots*, p. 198.

316) 모르네가 정치적으로 실각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퐁텐블로 논쟁(Conférence de Fontainebleau, 1600)이다. 퐁텐블로 논쟁과 모르네의 실각에 대해서는 5장 2절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317) *Mémoires_1868-1869*, p. 49.

318) *Mémoires_1868-1869*, pp. 108-109.

의 삶은 고난과 갈등의 연속이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한 위그노들은 필연적으로 현실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그 이면에 내재한 진정한 신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단련시켜왔다.

아르발레스트 역시 파리 출신 위그노로, 생 바르텔레미 학살을 통해 구현된 단단한 종교적 정체성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에 매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처 없이 떠돌았던 신흥생활이나 몽토방 가발사건 등 각종 난관을 주체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에게 아들의 죽음은 과거 그 어떤 사건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이었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삶이란 결국 신의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위그노적 신념을 통해 아들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었다. 결국 아르발레스트는 굳건한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 강인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삶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³¹⁹⁾

아르발레스트가 지닌 굳건한 위그노적 정체성은 아들 대신 딸들을 통해 후대로 계승되었다. 1620년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막내딸 안 드 모르네는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글을 성경 맨 앞 장에 적어 넣었다.

이 성경은 존경하는 내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장남 필리프 데 누에게 물려주어 그가 이것을 성실하게 읽음으로써 삼위일체이신 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배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아들이 할아버지를 본받아 마음의 안식을 얻고 어머니인 내가 그랬듯이 항상 믿음을 상기하기를 바란다.³²⁰⁾

319) 16세기 프랑스인들의 회고록을 분석한 쿠페르티-쉬르는 당시 위그노들이 개인의 인생이란 신의 광대한 계획의 일부일 뿐이라 파악했으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비극 역시 신의 뜻이라 해석한 후, 이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주장했고, 이런 위그노의 태도가 예정론에 기인했을 가능성 역시 언급했다. 아르발레스트의 사례는 쿠페르티-쉬르가 이론화한 위그노적 인생관을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Nadine Kuperty-Tsur, *Se dire à la Renaissance*, p. 192.

320) Aries, Philippe et Chartier, Roger eds., *Histoire de la vie privée: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이영림 역, 『사생활의 역사 3,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까지』 (서울: 새물결, 2002), p. 144에서 재인용. ; 안 드 모르네의 성경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Charles Read, “Un souvenir de Philippe du Plessis Mornay: Bible donnée par lui à sa fille Anne de Mornay, Pages de l'intimité et la vie de la famille et culte domestique chez nos ancêtres,”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vol. 1 (1853), pp. 202-207.

안 드 모르네가 성경에 적어 넣은 구절은,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가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정체성의 본질을 딸을 통해, 그리고 딸의 후손들을 통해 전승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그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희망과 목표는 비록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필자는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 드러난 그녀의 종교적 정체성과 그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탄압의 불길에 거세던 과리에서 아버지와 첫 남편의 영향력 아래 위그노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아르발레스트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 와중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방황했지만 이를 신의 은총과 구원을 보여주는 징표라 여기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키우고 행동력과 결단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생 바르텔르미 학살을 통해 정립된 종교적 정체성은 아르발레스트가 몽토방에서 교회 조직과 갈등이 생겼을 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독자적 판단력을 부여해주었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열정의 근원이 되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삶 속에서 마주친 물리적 어려움과 정신적 좌절을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을 지닌 능동적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가 되겠다고 결심한 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에 투신했던 과정은 16세기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이 종교개혁과 여성사회의 역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파악할 실마리를 간직하고 있다. 아르발레스트는 종교개혁가들이 여성에게 유일한 삶의 길로 제시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며 남편인 모르네를 보조하는 등 가정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여성이지만, 그녀는 가부장적 의지나 교회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소극적인 삶에 안주할 수 없었다. 탄압과 내전으로 얼룩진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일 아르발레스트에게 종교적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걸 정도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그녀는 생 바르텔르미 학살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위그노 신앙의 성장을 삶

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행동력이 없었다면 점점 위축되어가는 위그노 공동체의 현실적 운명 앞에서 자녀들에게 개혁신앙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구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위그노가 된 여성들 중 아르발레스트를 비롯한 일부 여성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가정을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고 계승하는 터전으로 만들어냈다.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에게 가부장에게 복종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지만, 아르발레스트 같이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 동참한 여성은 종교개혁가들이 규범화한 여성의 기준을 넘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이상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위그노 여성들이 종교개혁을 체험하고 실천한 방식은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경험이 얼마나 복잡적이고 중층적인지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종교개혁 시대 여성사 연구가 가부장제의 확장과 여성의 종속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여성들이 종교개혁을 전유한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절히 시사하고 있다.



제 5 장 아르발레스트의 가정 : 종교전쟁 시기 위그노 가정의 역할

제 1 절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가정

나는 앞으로 76. 7. 4. 164. 74. 46. 57. 79. 68. 119. 102. 59. 28. n. 64. p. 52. 243. 164. 130. 115. 60. 27. 87. 할 예정이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대법관(chancelier)에게 전달할 표지(標識) 두 장을 보내오. 이 표지는 가능한 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사용해 그에게 보내야 하오. 8. 7. 80. 140. 51. 52. 77. p. 52. 24. 49. 103. 19. 29.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소. 또한 우리가 당신에게 90을 통해 통행증을 보낸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오. 68이 우리에게 벌써 두 번이나 그 사람 부인이 아파서 이쪽으로 합류하지 못할 것이라 확인해주었소. 2. 32. 3. 19. 20. 164. 50. 14. 6. 114는 그를 반드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녀는 그와 함께 74. 68. 등의 일을 의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급하오. (중략) 이 정도가 지금 내가 당신에게 우리 상황에 대해 전해 둘 내용인 것 같소.³²¹⁾

1588년 1월 18일, 앙리 드 나바르의 측근으로 몽토방에 머물고 있던 모르네는 네락(Nérac)에 거주하고 있던 부인 아르발레스트에게 숫자와 그리스어 문자가 섞인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보내기 이틀 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숫자로 된 편지를 해독할 수 있는 메모장을 보내니 대법관께 편지 내용을 해독해드리시오. 이 일은 아주 긴급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오”³²²⁾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암호로 된 극비사항을 부인에게 전하는 모르네와, 암호를 해독해 다른 위그노 동료에게 이를 전해주는 아르발레스트의 모습은 프랑스 종교전쟁이 그 속성상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는 세간의 인식을 재고하게 한다.

프랑스 종교개혁은 1562년부터 1598년까지 모두 여덟 차례에 걸쳐 일어

321)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8 janvier 1588,” *Mémoires_1868-1869*, pp. 145-146.

322)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6 janvier 1588,” *Mémoires_1868-1869*, p. 144.

난 내전을 매개로 삼아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타 지역 종교개혁에 비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프랑스 종교개혁이 지닌 정치적 속성을 강조하는 연구경향은 은연중에 프랑스 종교개혁을 남성들, 그중에서도 군인이자 귀족인 남성들에 의해서만 운영된 것으로 해석하게 만들었고, 정치나 군사 업무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여성들은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로 살면서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만 머무른 채, 위그노 진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여겨졌다.³²³⁾

그러나 위에 인용한 모르네의 편지는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여성들 역시 공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암시한다. 모르네는 부인 아르발레스트에게 암호 편지를 해독하여 중요한 정보를 동료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일임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암호 편지가 오간 것을 보아 아르발레스트는 해당 임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⁴⁾ 아르발레스트가 담당하던 이런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여성들이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의 정치적, 군사적 운영에 있어 분명한 지분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²⁵⁾

5장에서는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을 중심으로 아르발레스트가 종교전쟁의 현장에서 담당하던 능동적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떻게 동지적 부부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정을 형성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르발레스트의 사례는 16세기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가정의 공적 기능에 대해 추론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에 칼뱅파 신앙을 전래하는 데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랑스 북부지역 귀족 여성들은 프랑스 종교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항상 위그노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런 전통 속에서 가정은 위그노 공동체 내부의 정보교환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323) Susan Broomhall et Colette H. Winn, "Femme, écriture, foi: les mémoires de Madame Duplessis-Mornay," *Albion* 18, p. 589.

324) 모르네는 1588년 1월 18일 본문에 인용한 편지를 보낸 이후, 1588년에만 한정해 보아도 1월 24일, 2월 22일, 3월 29일, 4월 21일, 5월 7일, 6월 16일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암호 편지를 보냈다.

325) 귀족 여성이 종교전쟁에서 담당하던 역할은 위그노 진영뿐 아니라 오히려 가톨릭 진영에서 더 공고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며, 가톨릭 공동체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위그노 귀족여성이 내전 시기 맡은 정치적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해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가톨릭 진영 귀족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Penny Richards, "The Guise Women: Politics, War and Peace," *Gender, Power and Privilege in Early Modern Europe*, eds. by Jessica Munns and Penny Richards (London: Pearson Education Ltd., 2003), pp. 159-170.

되었다.

모르네는 1576년 이래 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1600년 정치적으로 실각하기 전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의 한복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아르발레스트는 이러한 모르네의 정치적 행적과 당시 위그노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내용을 통해 분명히 입증된다. 나아가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행동과 선택이 프랑스 정치상황과 위그노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넓은 시각에서 분석하는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다.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이러한 정치적 통찰력을 깊게 신뢰하였고, 아내에게 자신의 공적 임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들은 이런 두 사람의 결속력과 연대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 곁을 떠나있을 때마다 아내에게 자주 서신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소상히 알리는 습관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심지어 결혼하기 이전부터 꾸준히 서신을 교환했는데,³²⁶⁾ 이처럼 서신은 자주 떨어져서 서로의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었을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에게 서로의 생활을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방편이었다.

[표 3]에서 보이듯이,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은 현재 176통이 남아있다.³²⁷⁾ 모르네의 서신 중 1576년부터 1584년까지 결혼 초 8년간의 편지는 남아있지 않으며, 더구나 아르발레스트가 모르네에게 보낸 편지는 한 통도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³²⁸⁾ 모르네의 서신과 아르발레스트

326)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는 모르네가 자신과 약혼 후 전쟁터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었을 때, 신원을 숨기고 도망가려 했지만 자신이 보낸 편지 두 통을 모르네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이 발각될 위험에 처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Mémoires_1868-1869*, p. 95.

327) 현재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총 176통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의 편지는 1588년(41통), 1596년(19통), 1597년(21통), 그리고 1598년(49통)에 집중되어 있다. [표 3 참조] 모르네 연구자 도시는 1568년부터 1605년까지 모르네가 보낸 편지 전체를 분류하여 출처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현재 필사본으로 남아있는 2통 외 174통이 모두 아르발레스트 회고록의 첫 번째 편집본과 두 번째 편집본과 함께 출간되어 있어 연구가 용이한 편이다. 도시가 분석한 모르네 편지에 대한 분류와 정리는 그의 저서 부록으로 출간되었고, 인터넷(<http://www.droz.org/info/?fa=text6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ugues Daussy, *Catalogues de la correspondance active et des autres écrits de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00)* (Paris: Droz, 2002).

년도	편지수	프랑스 종교전쟁 현황	모르네의 업무
1585년 6월-7월	2	가톨릭동맹 전쟁 발발	앙리 드 나바르의 특사로 앙리 3세를 만남
1587년 12월 - 1588년 6월	44	가톨릭동맹의 앙리 3세 압박 가속화. 바리케이드 사건	앙리 드 나바르와 동행하며 직접 전쟁에 참전함.
1590년 3월 - 4월	2	앙리 3세 암살 이후 정국 혼란 앙리 드 나바르 파리 탈환 시도	이브리 전투 참전.
1593년 11월 - 12월	6	앙리 드 나바르 개종 이후 위그노 진영 분열양상 심화	망트(Mantes)회의 참가
1594년 11월-12월	2	앙리 드 나바르의 즉위를 둘러싼 갈등	앙리 4세와 메르퀴르 사이의 1차 협상 참여
1595년 2월 - 3월	11		
1595년 10월-12월	2	앙리 4세와 에스파냐 사이의 전쟁 본격화. 1595년 선전포고. 1597년 앙리 4세 프랑스에서 에스파냐 세력 축출에 성공	
1596년 7월	4		
1596년 10월 - 1597년 1월	18		루땡(Loudun)회의 참가
1597년 6월 - 11월	22		메르퀴르와의 2차 협상 참여
1598년 1월 - 4월	49	낭트 칙령 반포(4월)	위그노 진영 입장 조율
1599년 1월 - 3월	13	낭트 칙령 공인과정	
1603(?)	1		광산개발업무를 맡아 탐사여행

[표 3]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분석

회고록의 내용을 대조해보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현재 남아있는 편지보다 더 많은 서신을 교환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편지의 수량과 빈도만 보아도, 두 사람 사이 서신교환은 단순히 개인적 안부를 묻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이렇게 자주, 많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간 서신교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

328) 아르발레스트의 편지는 회고록의 서문 격인 아들에게 보낸 편지 한 통과, 아르발레스트의 언니에게 보낸 편지 등 모두 네 통밖에 전하지 않는다. 이처럼 남녀가 서로 주고받은 서신 중 남성의 서신만 남아있고 여왕 등 왕족이 아닌 경우 여성의 서신이 보존되지 않는 현상은 종교개혁 시대 서신교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해, 1587년 12월부터 1588년 6월까지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44통의 편지를 검토해보겠다. 4장에서 전술했다시피 1585년에서 1588년 사이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으로 활동했고, ‘모르네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으며, 가톨릭동맹의 만행과 앙리 드 나바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엄청난 수의 팜플렛을 작성, 선전전을 진두지휘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 마디로, 1584년에서 1588년 사이의 기간은 모르네와 앙리 드 나바르 사이의 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였고, 그만큼 모르네의 정치적 위상이 컸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바쁜 업무의 와중에도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된 편지들에서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들의 라틴어 수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의 면모를 보인다.³²⁹⁾ 하지만 동시에, 모르네는 앙리 나바르의 세력이 분열양상을 보인다고 비판하거나 가톨릭동맹이 루브르에 군대를 배치했다는 최신 소식을 전하는 등 프랑스 정국에 대한 정보를 가감 없이 아르발레스트에게 알리기도 했다.³³⁰⁾ 또한 모르네는 5장 서두에 인용한 것처럼 극비에 속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암호를 사용한 편지들을 보내거나,³³¹⁾ 심지어 가톨릭동맹이 바리케이드 사건 이후 앙리 3세에게 요구한 사항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아르발레스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³³²⁾

이처럼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는 사적인 안부를 전하는

329) 1588년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거의 모든 편지에는 아르발레스트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모르네는 1587년 6월 공무로 아르발레스트의 곁을 떠난 이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아르발레스트는 딸을 출산했지만 곧 사망했고, 그 이후 고질적인 병이 도져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여러 번 당부하면서 “하인이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나는 계속 걱정이 되요. 정확한 사실을 내게 전해주시오”(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4 avril 1588,” *Mémoires_1868-1869*, p. 160)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당시 모르네의 활동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p. 167-169 ; 아들의 라틴어 학습에 대해서는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7 mars 1588,” *Mémoires_1868-1869*, p. 173.

330) 앙리 나바르 진영의 분열상에 대해서는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28 mars, 1588,” *Mémoires_1868-1869*, p. 156, 바리케이드 사건의 전조에 대해서는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7 mai, 1588,” *Mémoires_1868-1869*, pp. 170-171. 가톨릭 동맹이 바리케이드 사건을 일으킨 것은 5일 뒤인 5월 12일이였다.

331) 1588년 작성된 편지 41통 중 10통에서 모르네는 암호화된 숫자를 사용했다.

332)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2 june, 1588,” *Mémoires_1868-1869*, p. 181.

동시에 프랑스 종교개혁 진행과정을 아르발레스트가 정확히 파악하도록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이렇게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것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1588년 6월 12일의 편지를 자세히 분석해보자. 당시 모르네는 라 로셸에서 앙리 드 나바르와 함께 가톨릭동맹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르발레스트는 요양을 위해 프랑스 남부 포(Pau)의 온천에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우선 모르네는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여행길이 편하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시작한다.

사랑하는 당신³³³⁾, 나는 당신이 온천에서 출발한 이후 당신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소. 마담[카트린 드 부르봉에 대한 경칭]께서 감사하게도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는 편지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내주셨소. 나는 마담께 편지를 보내 이곳에 오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소. 또한 **왕[앙리 3세]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는 가톨릭동맹의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한 바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렸소. 당신에게도 [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보낸 편지의] 복사본을 보내니 상황을 모두 잘 알게 될 거라 믿소.** 무엇보다도 당신 건강이 중요하니 몸을 잘 돌보시오. 내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최대한 빨리 돌아오길 기원하오.³³⁴⁾

위에 인용한 편지를 보면,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의 여행과 건강을 걱정하는 한편, 가톨릭동맹이 앙리 3세에게 요구한 사항을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인 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르네가 작성한 편지 복사본을 아르발레스트에게도 보냈다고 언급했다. 사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다른 편지에서도 자신이 앙리 4세에게 받은 편지의 복사본이나 시노드 등에 참석했을 때 결의사항을 정리해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³³⁵⁾ ‘이를 통해 상황을 잘 알게 될 것’이라는 모르네의 말처럼, 그는 아르발레스트가 현 시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

333)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를 M'aime, 즉 ‘내 친구’라고 불렀다.

334)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2 june, 1588,” *Mémoires_1868-1869*, p. 181.

335)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2 janvier, 1599,” *Mémoires_1824*, vol. 9, p. 207.;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3 novembre, 1596,” *Mémoires_1824*, vol. 7, p. 24.

양한 정보를 전달했다. 모르네의 편지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나는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여기 돌아오기 전까지는 실행에 옮기지 않고 기다리겠소. (중략) 왕[앙리 3세]께서는 몽루에 (M de Monlouet)를 만나길 원치 않고 있소. 그의 위그노적 성향에 겁먹으신 듯하오. 왕께서는 [앙리 드 나바르와 연대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소. (중략) 사람들은 이제 왕이 변할 거라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지울 수 없소. 불쌍한 군주께서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모르며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있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계시오.³³⁶⁾

이 부분에서 모르네는 가톨릭동맹에게 위협받고 있는 앙리 3세의 처신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피력한다. 당시 앙리 3세는 앙리 드 나바르와 연대해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르네가 보기에 앙리 3세의 처신은 여전히 불안했다. 모르네는 이렇듯 아르발레스트에게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뿐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해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일 아직도 당신이 베아른에 있다면, 마담[카트린 드 부르봉]에게 우리의 암호 숫자에 대해 기억하는지 확인해주시오. 아무래도 잊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소식을 전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말이오. 또한 마담의 의지와 의도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고 오시오. 그래야 내가 더 잘 그녀를 섬길 수 있을 테니까. (중략)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우리 친영의 일들(noz affaires de France)에 대해 적용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중략) 몇 가지 문제만 빼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오직 당신에 대한 걱정뿐이오.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오. 신께서 당신을 지키고 인도해주시기를. 라 로셸에서, 1588년 6월 12일.³³⁷⁾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가 같은 여성이자 친분이 깊었던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 카트린 부르봉을 만나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길 원했고, 이를 통해 카트린 부르봉에 대한 특정한 정보를 얻고자 했다. 편지의 말미에서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들”

336)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2 june, 1588,” *Mémoires_1868-1869*, p. 181.

337) “Lettre de Mornay à sa femme, le 12 june, 1588,” *Mémoires_1868-1869*, pp. 181-182.

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권했다. 이처럼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에게 위그노 여성들 사이에서 정보를 얻고 그들과 친분을 유지해 연대감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16세기 프랑스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톨릭 세력의 배척과 탄압에 맞서야 했던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소규모에 불과했고, 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위그노 공동체 구성원들은 상부상조하며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주도했던 위그노 귀족들 간의 친분과 연대는 진영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³³⁸⁾ 위그노 귀족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고취하기 위해 서로 수많은 서신을 교환했는데, 모르네 역시 아르발레스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그노 동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다.³³⁹⁾

그런데 이런 유대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 여성은 남성 못지않은 역할을 맡고 있었다. 3장 3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위그노로 개종한 귀족여성들은 프랑스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나아가 위그노 귀족가문의 자제들은 유사한 신분과 종교를 지닌 좁은 인맥 내에서 결혼상대를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위그노 가문은 혼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귀족여성들은 자연스럽게 가문과 가문 사이를 연결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이들 사이에서 구축된 연대와 네트워크는 위그노 진영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추측된다.³⁴⁰⁾

338) Mark Greengrass, "Informal Networks in Sixteenth-century French Protestantism," *Society and Culture in the Huguenot World, 1559-1685*, eds. by Raymond Mentzer and Andrew Spicer,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2), pp. 78-79.

339) 모르네가 프랑스 종교개혁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던 1568년부터 1605년까지, 모르네는 927통의 편지를 남겼고, 이중 앙리 드 나바르의 이름으로 집필한 편지 등 특정한 공적 임무를 지닌 편지를 빼면 사적인 편지만 853통에 달한다. 모르네는 부인 아르발레스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동시대 인물들과 편지를 교환했다. 모르네는 앙리 드 나바르 등 위그노 진영의 주요 인물과 편지를 교환한 것은 물론, 중도 가톨릭이자 한때 위그노 회합을 이끌었던 앙리 몽모랑시-당빌(Henri Monmorency Damville, 1534-1614), 나아가 정적인 로렌 가문의 인물 등 가톨릭 진영과도 활발하게 서신교환을 했다. 모르네와 서신교환을 한 인물 중에는 카트린 드 부르봉, 루이즈 드 몽모랑시, 카트린 드 파르트네 및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등 여성들도 상당히 많았다.

340) 귀족 가문의 연대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후견제도'라는 개념 아래 최근 프랑스 귀족의 속성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논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위그노 진영의 인적 연대와

위그노 여성 간 친교와 혼인으로 이어진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 역시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앙리 드 나바르의 최측근이었던 모르네는 프랑스 종교 전쟁의 최신 정보를 취급하는 자리에 있었으므로, 그의 부인 아르발레스트는 누구보다 빨리 새로운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에게 얻은 정보를 여성 간 연결망을 활용하여 위그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 인용한 편지에서 보이듯, 모르네는 아르발레스트가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적 현안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아내에게 상세히 전달했고, 나아가 위그노 공동체의 핵심 고리로 활동한 아내와 함께 현재 정치적 판도에 대해 상의하곤 했던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서로를 종교개혁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일하는 동지로 여겼다고 봐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를 분명한 역할을 지닌 현실 정치의 동지로 여겼다는 또 다른 증거로 앞서 거론한 암호편지를 들 수 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암호편지의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뒤플레시스가 전쟁터에서 뵈 출신이자 그의 시종인 돌레(Daulay)를 나에게 보내 암호로 된 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록해두고 싶다. 이 표지는 그와 나 사이에 서로 알아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전장에서 승리한 바로 그날 밤 모르네는 나에게 전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적어 보내주었다. 나는 원본 편지를 마티뇽(Matignon) 장군에게 보냈는데, 그는 자필로 작성된 편지를 보고 보르도에서 공개적으로 축하연을 계획했다. 이런 행사는 각 지역에서 계속되었다.³⁴¹⁾

모르네는 1590년 이브리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르발레스트에게 암호편지를 보냈다. 아르발레스트는 이 편지를 읽고 해독한

여성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후견제에 대한 최근 학계의 개념변화와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Elie Haddad, "Noble Clienteles in Franc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 Historiographical Approach," *French History*, vol. 20 (2006), pp. 75-109.

341) 아르발레스트는 5장 처음 인용한 암호편지와 해당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모르네가 보낸 편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 연락책 역할을 자주 담당한 듯하다. *Mémoires 1868-1869*, p. 193.

뒤, 원본을 다른 이들에게 보내 승전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위 인용문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마티농 장군³⁴²⁾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마티농 장군이란 가톨릭 중도파로 앙리 4세와 연대했던 인물이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단지 여성들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위그노 공동체 전반은 물론 그와 연대한 가톨릭 세력들과도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아르발레스트가 프랑스 종교전쟁의 복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가 주고받은 암호편지는 상당수에 달한다. 암호의 사용은 16세기 유행 중 하나였는데, 편지를 보낼 때 단어 대신 숫자로 표기하고 그 숫자가 무엇인지는 두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던 책(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암호를 풀어내는 방식을 썼다.³⁴³⁾ 때로는 특정 고유명사도 암호로 표기했는데, 앞에 소개한 편지글에도 나오듯이, 이런 경우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런 암호편지는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 사이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위그노 진영의 다른 여성들도 모르네나 아르발레스트에게 암호편지를 보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자료가 남아있다. 아래 편지는 대표적인 위그노 귀족 가문 출신인 카트린 드 로앙(Catherine de Rohan)이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암호 편지 중 일부이다.³⁴⁴⁾

14^{le} cardinal de Bourbon. 817^{est}. 139^{mo}. 54^r. 64^t. 167^{ta}. 49ⁿ. 170^{to}. 58^s. 62^t. à ce qu'on dict. Toutesfois cela nous a esté desjà dict quatre ou cinq fois

342) 본문에 언급된 마티농 장군은 자크 드 고욀(Jacques II de Goÿon de Matignon, 1525-1598)으로, 종교전쟁 초기부터 가톨릭 세력의 핵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러나 마티농 장군은 기즈 가문처럼 가톨릭적 신념을 내세웠던 강경파가 아니라, 생 바르텔레미 학살에 반대하고 자신의 영지에서 프로테스탄트 교도를 보호했을 정도로 온건한 중도파였다. 마티농 장군은 친구였던 미셀 드 몽테뉴의 뒤를 이어 보르도의 시장이 되었고, 이후 앙리 4세와 연대하여 활동하면서 프랑스 군 원수 직위에 오르기도 했다.

343) Catharine Randall, "Shouting Down Abraham," p. 437.

344) 1824년 회고록의 편집자들은 이 편지에 사용된 암호 숫자에 대한 해독서를 찾아내어 암호 해석을 첨부하였다. 그러나 암호문의 해독이 완전치 못할 가능성도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고, 구체적인 해독방법을 적시하지 않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Mémoires_1824*, p. 82.

depuis huit jours; 916^{mais}. 12ⁱ. 42^j. 143^{ne}. 148^{pe}. 14^u. 60^t. 167^{ta}. 54^r. 97^{de}.
 56^r. La cause des jesuites a esté plaidée; on espère qu'à la fin qu'ils
 vuideront au moins. C'est le desir des bon françois catholiques et autres.
 Ils perdent 685^{un}. 901^{les}. 166^{su}. 150^{pe}. 55^r. 61^t. 11^e. 47^{ne}. 14^{le cardinal}.³⁴⁵⁾

위 편지는 앙리 4세가 왕위에 오른 1594년 작성된 것으로, 부르봉 추기경, 즉 샤를 드 부르봉(Charles II de Bourbon, 1562-1594)³⁴⁶⁾의 사망을 전하는 내용이다. 부르봉 추기경은 가톨릭동맹에서 앙리 4세 대신 왕위에 올리려 했던 인물 중 하나였기에, 그의 죽음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었다. 이런 정보를 카트린 드 로앙과 아르발레스트가 서로 암호를 사용해 교환했다는 점은 위그노 여성들 사이 조직된 인적 네트워크에서 활발하게 정보전달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위그노 공동체 전체의 유대에도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모르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동시대 위그노 여성들이 교환한 서신은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비공식적 연결망이 존재했으며, 이는 위그노 조직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들은 이 인적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프랑스 종교전쟁의 여러 국면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단서라 하겠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에서도 위그노 여성 간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한다. 1597년 모르네의 암살 기도사건이 바로 그것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1597년,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가톨릭 유력 가문

345) 본문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르봉 추기경이 죽었다는 소문이 바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8일 전부터 우리 진영에는 벌써 네다섯 번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회[를 몰아내자는] 명분이 통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 그들이라도 [프랑스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지닌 가톨릭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추기경의 후원을 잃었습니다.” “Lettre de Mme de Rohan à Mme de Mornay, le 30 juillet, 1594,” *Mémoires*, 1824, vol. 6, p. 84.

346) 샤를 드 부르봉(Charles II de Bourbon, 1562-1594)은 위그노 지도자인 루이 드 콩테(Louis Ier de Bourbon-Condé, prince de Condé et duc d'Enghien)와 루아 공작부인(Éléonore de Roye)의 넷째 아들로, 가톨릭동맹이 앙리 3세 이후 왕으로 추대하려던 부르봉 추기경(Cardinal Charles de Bourbon, 가톨릭동맹은 앙리 3세의 사후 그를 샤를 10세로 부르며 그가 정당한 왕위계승자라 여기기도 했다)의 조카이기도 하다. 삼촌의 죽음 이후 추기경직을 이어받은 샤를 드 부르봉은 삼촌처럼 왕위를 노리며 앙리 드 나바르의 왕위계승에 불만을 지닌 귀족들을 모아 독자적 조직을 만들기도 했지만, 1594년 사망하였다.

출신인 조르쥬 드 보드레, 즉 생 팔 백작(George de Vaudrey, marquis de Saint Phalle)이 모르네의 암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³⁴⁷⁾ 회고록에서 아르발레스트는 남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생 팔 백작의 처신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아르발레스트는 “이 사건을 통해 모르네에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있는지 증명되었다”고 말하며 생 팔 백작을 비난하고 모르네를 지지한다는 서신을 보내 준 사람들을 일일이 회고록에 기록하였다. 아르발레스트는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어려운 순간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알려주고, 이들을 기억해 후일 은혜를 갚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³⁴⁸⁾ 그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부이용 공작(Duc de Bouillon), 원수(Maréchal de France), 그리고 트레무아(M. de la Trémoille)는 자신들은 뒤플레시스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으며, 그와의 친교를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들은 친구를 동원하거나 군대를 움직일 준비까지 되어있다고 하며 뒤플레시스에게 [생 팔의 처벌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하기도 했다. 샤틀롱(Châtillon)은 비록 젊은 나이지만 과거 그의 어머니가 뒤플레시스에게 보여주었던 지지를 항상 기억한다고 전해왔다. 로앙(M. de Rohan)과 수비즈(M. de Soubise) 형제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로앙은 왕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친척의 이름 아래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플레시스는 로앙 집안과 연결된 영예를 지니고 있었는데, 뒤플레시스와 로앙은 서로 부계와 모계 모두 혈연관계가 있는 먼 친척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 형제의 어머니인 로앙 부인(Madame de Rohan)이 우리 부부에게 항상 애정과 지지를 보냈다는 점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싶다. 오라네 대공비(Princesse d'Orange) 역시 과거 그의 남편인 오라네 공과 뒤플레시스 사이의 우정을 기

347) 생 팔 백작의 본명은 조르쥬 드 보드레이며, 브리삭 공작(Charles de Cosse, Duc de Brissac)의 처남이기도 하다. 브리삭 공작은 가톨릭동맹이 파리를 장악했던 시절 파리의 총독이자 앙리 4세에게 파리를 넘긴 당사자로, 당시 메르퀴르를 설득하려고 모르네와 함께 양제에 머물고 있었다. 조르쥬 드 보드레는 처남의 인맥을 활용해 양제를 찾아와 모르네를 암살하려 시도했는데, 모르네가 자신의 편지를 함부로 개봉해 읽었기 때문에 그를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조르쥬 드 보드레는 이후 앙리 4세가 주재한 법정에 호출되어 모르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모르네에 대한 암살기도는 이후 1602년에도 일어났는데, 이때 암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모두 평민이었고 이들은 대부분 바로 사형되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특히 생 팔 백작의 암살기도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 생 팔 백작의 암살 기도는 *Mémoires_1868-1869*, pp. 323-332, 생 팔 백작의 재판과정은 *Mémoires_1868-1869*, pp. 339-350, 소뮈르에서 1602년 시도된 암살에 대해서는 *Mémoires_1868-1869*, pp. 11-19.

348) *Mémoires_1868-1869*, p. 330.

역한다고 위로의 서신을 보내왔고, 프랑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뒤플레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올바르게 정의가 집행될 것을 기대하며 주시하는 시선이 많다는 내용의 편지를 앙리 4세에게 보냈다고 전해왔다.³⁴⁹⁾

위 인용문에는 부이옹 공작(Duc de Bouillon), 트레무아(M. de la Trémoille), 샤티옹(M. de Châtillon), 로앙(M. de Rohan)과 수비즈(M. de Soubise) 등 당시 위그노 공동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 인물이 다수 거론되어 있다.³⁵⁰⁾ 그런데 아르발레스트는 특히 ‘샤티옹의 어머니’, ‘로앙과 수비즈의 어머니’ 등을 언급하며 이들과의 친분이 그 윗대 부모, 특히 그들의 어머니와의 친교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아르발레스트가 언급한 ‘로앙과 수비즈의 어머니’가 바로 아르발레스트에게 암호로 된 편지를 보냈던 카트린 드 로앙이다. 카트린 드 파르트네(Catherine de Parthenay, Mme de Rohan, 1554-1631)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녀는 16세기 위그노 여성 중 프랑스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에 직접 개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유명한 수학자 비에트(François Viète, 1540-1603)로부터 14년간 학문을 배워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여성 학자로, 앙리 4세의 개종을 논하는 글을 작성할 정도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녔던 위그노였다.³⁵¹⁾ 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자신의 종교적 열정과 사회참여의 의지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수했고, 이후 로앙 가문의 인물들은 프랑스 개혁운동에서 마지막까지 종교적 대의를 고수하면서 위그노의 정체성을 지킨 대표적 본보기가 되었다.³⁵²⁾

349) *Mémoires 1868-1869*, p. 328.

350) 부이옹 공작(Duc de Bouillon)은 스당의 군주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는 두 사람이 스당에 머물렀던 1570년대부터 이 가문과 친교를 맺어왔다. 트레무아(La Trémoille) 가문은 16세기 대표적인 위그노 귀족 가문 중 하나로, 가문의 수장 루이(Louis III de la Trémoille, 1521-1577)와 그 아들 클로드(Claude de la Trémoille, 1566-1604)는 모르네와 친분이 깊었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원수(Marechal de France)와 샤티옹(M. de Châtillon)은 콜리니 가문의 인물이며, 가스파르(Gaspard, 1584-1646) 원수의 어머니는 샤를로트 드 라발(Charlotte de Laval, 1530-1568)이다. 로앙(M. de Rohan)과 수비즈(M. de Soubise)은 형제로 본문에 소개한 카트린 드 파르트네의 아들 앙리(Henri II de Rohan, 1579-1638)와 벤자맹(Benjamin de Rohan, 1583-1642)을 뜻한다. 상기 언급한 가문은 위그노 공동체의 핵심 귀족가문으로, 거의 모두 모르네 또는 아르발레스트와 서신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관계였다.

351) Catherine de Parthenay, *Apologie pour le Roy Henri IV envers ceux qui le blasment de ce qu'il gratifié plus ses ennemis que ses serviteurs, faite en l'année 1596* (Cologne, 1666).

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모르네의 암살 기도 소식을 듣고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³⁵³⁾ 파르트네가 모르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모르네의 암살을 기도한 사람은 즉각 처형되어야 하며, 그 사건 배후에 어떤 음모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자신과 아들들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파르트네는 이후 아르발레스트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지지를 재차 표명하기도 했는데, 파르트네가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단지 모르네의 안부를 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내 큰아들 역시 뒤플레시스 님께 지지를 표하며 사건이 공정히 처리되도록 어떤 도움도 아끼지 않겠다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미 당신께서도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브르타뉴에 오셔서 서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그건 쉽지 않겠지요. **지금 내 걱정은 오라네 대공비께서 프랑스에 올 예정인데, 이를 둘러싼 상황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에 관련된 글을 보내니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달 8일 [대공비를 만나러] 생 제르맹으로 갈 예정입니다. (중략) 제 딸들도 부인에게 편지를 드려야 했는데 요즘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제 큰딸은 열이 많이 나서 어제부터 많이 아파 자리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두 딸은 지금 [대공비와 함께] 생 제르맹에 있습니다. 저와 제 딸들이 모두 당신과 뒤플레시스 님을 지지하며 걱정한다는 점을 알립니다.³⁵⁴⁾

파르트네는 편지를 통해 아르발레스트에게 같은 위그노 동지인 오라네 대공비의 소식을 전하고 그녀의 프랑스 방문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또한 편지 말미의 문장을 통해 파르트네 뿐 아니라 그녀의 딸

352) 카트린 드 파르트네와 그의 아들들은 마리 드 메디치 섭정시기 리슐리외 추기경의 정책에 반발하고 낭트 칙령 준수를 주장하며 1626년 라 로셸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것이 유명한 ‘라 로셸 공방전(Siege de La Rochelle, 1626-1628)’인데, 위그노 진영이 전개한 마지막 대규모 군사작전이기도 했다. 이 당시 카트린 드 파르트네는 라 로셸에 머물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다 체포당하기도 했다. 앙리 4세 사후 위그노 진영을 이끌던 로앙 가문의 형제들과 라 로셸 공방전에 대해서는 Mack Holt,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pp. 174-189.

353) “Lettre de Mme de Rohan à Mornay, le 16 novembre 1597” *Mémoires_1824*, vol. 7, pp. 392-393 / “Lettre de Mme de Rohan à Mme de Mornay, le 8 décembre 1597” *Mémoires_1824*, vol. 7, pp. 434-436.

354) “Lettre de Mme de Rohan à Mme de Mornay, le 8 décembre 1597,” *Mémoires_1824*, vol. 7, pp. 435-436.

들도 아르발레스트와 편지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파르트네의 딸 안 드 로앙은 얼마 뒤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는 진심으로 부인과 뒤플레시스 님을 돕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제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부인께서 제가 얼마나 충실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제 어머님께서 투아(Thouars)에 오시지 않아서 아주 난처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곳에 트레무아 부부께서 오실 거라는 이야기를 전혀 전해 듣지 못했거든요. 트레무아 부부는 제 어머님께만 사람을 보내 투아에 15일간 체류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합니다. 트레무아 댁에서는 제 어머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트레무아 집안의 세례식이 있는 모양인데 제 어머님이 참석하시길 바라셨나 봅니다.³⁵⁵⁾

안 드 로앙은 편지에서 아르발레스트에게 강한 연대의식을 표명할 뿐 아니라, 최근 자신과 트레무아 집안 사이 벌어진 작은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파르트네와 아르발레스트 사이의 서신 교환, 그리고 파르트네의 딸인 안 드 로앙과 아르발레스트 사이의 서신교환 등을 통해, 위그노 여성들은 서로 긴밀하게 공적, 사적 문제를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했으며, 작은 문제까지 서로 알릴 정도로 깊은 친교를 나눴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위그노 여성들 간 돈독한 관계가 위그노 공동체 전체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보완재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프랑스 종교전쟁에서 아르발레스트가 담당한 역할을 통해, 위그노 가정이 지닌 공적인 성격과, 위그노 여성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운영되는 방식을 추론해보았다. 종교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수와 위그노 공동체는 대부분 수세에 몰린 채 방어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 내부의 긴밀한 연대와 협동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 가정이라는 공간은 사회적 연대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위그노 집단 전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가정의 안주인인 위그노 여성들은 혼인 등을 통해 상호 연결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위그노 공동체의 친교와

355) "Lettre de Anne de Rohan à Mme de Mornay," *Mémoires_1824*, vol. 7, pp. 481-482.

유대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를 비롯한 일부 위그노 귀족 여성이 종교전쟁의 공적 영역에서 활약한 양상을 보면,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제시한 수동적인 여성상을 극복하고 좀더 주체적으로 사회참여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가정은 프랑스 종교개혁 당시 위그노 가정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종교전쟁의 최 일선에서 활약한 모르네는 물론, 그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소통시킨 아르발레스트 역시 종교전쟁에서 분명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르발레스트는 위그노 정체성을 키우며 발전시킨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기질을 이처럼 종교전쟁의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발현했다. 이처럼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는 사적인 생활만큼이나 공적인 세계에서도 서로 합심해 난관을 헤쳐 나가는 적극적 동지애를 발휘했고, 자신들의 가정을 위그노 대의에 선봉에 서서 직접 그 길을 닦는 일종의 전위부대로 재구성했던 것이다.

제 2 절 동지적 부부애의 실천 : 퐁텐블로 논쟁 (1600)

1600년 퐁텐블로 논쟁(conférence de Fontainbleau)은 종교개혁의 선봉이 되어 동지적 부부애를 실천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성격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지금부터 퐁텐블로 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속성과 가정의 본질이 역사적 현장 속에서 구현된 방식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퐁텐블로 논쟁은 기본 취지상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의 책 『성체성사에 관하여』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신학적 토론회였다. 모르네의 『성체성사에 관하여』는 1598년 라 로셸에서 처음 출간된 순간부터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기독교 세계 전반에 격심한 논란을 일으킨 책이다. 『과거 교회의 성체성사, 그 구성과 용례 그리고 교리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미사가 현재의 위상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책』이라는 원제³⁵⁶⁾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네는 이 책에서 가톨릭의 성체성사

는 물론 가톨릭 미사 역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경과 교부의 저서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하여 오천 개가 넘는 인용문을 동원하였다. 나아가 모르네는 이 책에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 로마 교황청의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다.³⁵⁷⁾

모르네는 『성체성사에 관하여』의 집필이 큰 논란을 불러올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논란을 내심 의도한 듯하다. 모르네는 이 책이 “반론을 일으킬 것이고, 이런 논쟁은 오히려 [이 책이 담고 있는] 진리를 더 명백하게 드러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³⁵⁸⁾ 아르발레스트 역시 회고록에서 “모르네의 친구들은 책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차라리 익명으로 출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모르네는 실명을 써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주장한 종교적] 진리에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적고 있다.³⁵⁹⁾ 또한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이 책을 출판하는데 따른 개인적 불이익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앙리 4세 등 정치권을 자극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이 책 때문에 뒤플레시스는 공직에 등용될 기회를 많이 놓쳤다. 하지만 뒤플레시스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자신이 지녔던 명예를 실추당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불명예는 스스로] 감수할 것이고, 나아가 왕(앙리 4세)께서도 [가톨릭] 교회에 만연한 종교적 악습을 근절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되리라 믿었다.³⁶⁰⁾

356) 『성체성사에 관하여』의 정확한 원제는 『과거 교회의 성체성사, 그 구성과 용례 그리고 교리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미사가 현재의 위상에 이르렀는가에 대한 책. 뒤 플레시스와 말리의 영주 필리프가 네 권의 책으로 작성한 내용』이다. 이 책은 당시 기독교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모르네는 1604년 내용을 대폭 개정하여 소뮈르에서 재판을 발행하기도 했다. Philippe Duplessis-Mornay, *De l'Institution, usage et doctrine du saint sacrement de l'euchariste en l'église ancienne, ensemble quand, comment, et par quels degrez la Messe est introduite en sa place. Le tout en quatre Livres, par Philippe de Mornay, seigneur du Plessis Marly* (La Rochelle: Haultin, 1598).

357) 『성체성사에 관하여』의 내용과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585-588.

358) “Lettre de Mornay à M de Raemound, le 3 février 1599”을 *Ibid.*, p. 586에서 재인용.

359) *Mémoires_1868-1869*, p. 350.

360) *Mémoires_1868-1869*, p. 351.

이처럼 모르네는 『성체성사에 관하여』를 통해 프랑스에서 신학논쟁을 점화시키고자 했다. 모르네는 같은 해 4월 낭트칙령이 반포되어 내전의 불씨가 사그라진 지금이야말로 이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인 “종교적 진실이 알려질 시기”라 판단했고, 이제 프랑스에 “종교적 진리의 씨를 뿌릴 준비가 되었다”고 예측했다.³⁶¹⁾ 나아가 모르네는 앙리 4세가 개종 당시 자신에게 말했던 종교적 통합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 책이 불러일으킨 논쟁을 그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 여겼다. 즉 모르네는 『성체성사에 관하여』를 통해 신학적 논쟁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보았으며, 이런 자신의 의도를 앙리 4세가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모르네에게 『성체성사에 관하여』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이 책을 둘러싼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책이 출판되자 보르도에서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고등법원 앞에서 불태우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예수회 수도사들은 모르네의 책을 반박하기 위한 조직까지 만들었으며, 파리의 노상설교자들은 파리 시민을 상대로 이 책은 물론 뒤플레시스 개인까지 비난하는 원색적 선동을 일삼았다.”³⁶²⁾ 한편, 당시 파리에 머물고 있던 모르네는 파리 대학 신학부의 지적에 대해 “내 책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목록을 만들어 넘겨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당당했고, 모든 논쟁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감추지 않았다.³⁶³⁾

이런 모르네에게 『성체성사에 관하여』에 대해 신학논쟁을 벌일 장소를 마련해주겠다는 앙리 4세의 결정은 환영할만한 것이었다. 당시 에브류의 주교 뒤 페롱(Jacques Davy du Perron, 1556-1618)³⁶⁴⁾은 모르네의 책이

361) *Mémoires*_1868-1869, p. 352.

362) *Mémoires*_1868-1869, p. 350.

363) *Mémoires*_1868-1869, p. 351.

364) 자크 다비 뒤 페롱(Jacques Davy du Perron, 1556-1618)은 원래 위그노 교도였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뒤 페롱의 아버지는 의사였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 직업을 포기할 정도로 열성적인 위그노였고, 뒤 페롱의 가족은 탄압을 피해 스위스 베른 지방으로 망명을 떠나기도 했다. 뒤 페롱은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재능을 보였고,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박식했으며 철학과 수학, 물리학 등에 천착하며 젊은 나이에 학자로서 인정받게 된다. 1562년 프랑스로 돌아온 뒤 페롱은 가톨릭으로 개종, 궁정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았으며,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위그노에 대항하는 정치적, 종교적 저술을 집필하기도 했다.

잘못된 인용과 논리로 가득 차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는데, 모르네는 그에게 언제라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앙리 4세는 모르네와 뒤 페롱의 제안을 받아들여 1600년 5월 4일 퐁텐블로에서 신학논쟁을 갖기로 결정했다.

퐁텐블로 논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퐁텐블로에서 모르네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펼치기는커녕 당시 앙리 4세의 정치적 의도에 철저히 희생당하고 말았다. 퐁텐블로 논쟁은 결국 모르네의 정치적 추락을 단적으로 상징하며, 모르네 개인에게도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를 안겼던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급락의 배경에는 모르네가 이십오 년 이상 섬겼으며 항상 자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의 주군 앙리 4세가 자리 잡고 있었다.³⁶⁵⁾

앙리 4세(당시의 앙리 드 나바르)는 1593년 왕위를 목표로 가톨릭으로 개종했는데, 이는 위그노 진영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은 앙리 드 나바르의 개종에 대해 “로마 가톨릭에 더 쉽게 적응하고 분란을 피하며, 정치적으로 더 손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편한 길을 택한 것”이라며 종교적 진정성을 저버리고 정치적 타협을 선택한 앙리 4세에 대해 비판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³⁶⁶⁾ 실제로 1594년 프랑스의 국왕으로 즉위한 앙리 4세의 입장은 위그노의 수장이던 앙리 드 나바르의 그것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앙리 4세는 프랑스의 국왕이라는 위상을 지닌 채 국내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며, 위그노 지도자 시절 최대의 적수이던 교황청과의 관계도 깊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다.

교황청과 앙리 4세의 관계는 특히 미묘했다. 교황청은 앙리 4세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고, 그에게 내렸던 파문을 철회한 1595년 이후에도 앙리 4세의 종교적 진정성을 계속 의심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600년 로마 교황청은 앙리 4세에게 트렌토 공의회 결정사항을

365) 도시는 『성체성사에 관하여』와 퐁텐블로 논쟁에 대해 ‘신학적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하면서, 퐁텐블로 논쟁은 모르네에게 ‘정치적 자살이자 동시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었다고 논평했다.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 582.

366) *Mémoires_1868-1869*, p. 263.

승인하고 프랑스에서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트렌토 공의회와 예수회의 공인은 모두 프랑스의 갈리칸주의 전통에 반하는 조치였으므로, 앙리 4세는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³⁶⁷⁾ 하지만 앙리 4세는 불안한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진영의 후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앙리 4세에게 1600년 퐁텐블로 논쟁은 교황청의 압력을 피하고자 던진 정치적 승부수 중 하나였다. 그리고 앙리 4세는 그 희생양으로 과거 자신의 친우이자 현재 로마 교황에게 심한 비판을 받고 있던 필리프 뒤플레시스 모르네를 선택했다. 앙리 4세는 한때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재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모르네가 자신이 개최한 퐁텐블로 논쟁에서 수세에 물리게 된다면, 모르네라는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라도 자신의 종교적 진정성이 교황에게 분명히 전달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적 여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³⁶⁸⁾

퐁텐블로 논쟁이 본래의 종교적 의도를 잃고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네나 아르발레스트 모두 처음에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토론회가 끝난 후 아르발레스트는 곧 퐁텐블로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왕은 트렌토 공의회나 예수회 등을 프랑스에서 인정해달라는 [교황의] 요청에는 부담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자신이 교황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행동을 통해 증명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당시 프랑스를 방문한] 교황의 특사는 왕의 측근으로 명성이 높은 어떤 신하가 로마 교회를 반대

367) 갈리칸주의 전통을 고수하던 프랑스에서 예수회는 왕권을 위협하고 교황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수회에 부담을 느꼈던 앙리 4세는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1604년에야 프랑스 내 예수회의 존재를 공인하게 된다. 앙리 4세 시대 예수회와 왕권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Eric Nelson, *The Jesuits and the Monarchy: Catholic Reform and Political Authority in France (1590-1615)* (Aldershot: Ashgate, 2005), pp. 11-96. 트렌토 공의회 결의사항 역시 교황권을 제어해야 하는 프랑스 왕권의 입장에서 순순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 트렌토 공의회 결의사항은 1615년에야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지만,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프랑스와 트렌토 공의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Alain Tallon, *La France et le concile de Trente (1518-1563)* (Rome: Ecole Française de Rome, 1997), 프랑스 내 트렌토 공의회 승인에 대해서는 Hubert Jedin and John Patrick Dolan, *History of the Church: vol. 5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trans. by A. Biggis and P. Becker (London: Seabury Press, 1980), p. 515.

368) Hugues Daussy, *Les huguenots et le roi*, pp. 591-595.

하는 글을 썼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 이후에도 교황은 세 번에 걸쳐 직접 왕에게 특사를 보냈는데, 마지막 특사인 알랭쿠르(Sr d'Alincourt)는 폰텐블로 논쟁이 열리고 있던 와중에 앙리 4세를 찾아오기도 했다. 알랭쿠르가 가져온 교황의 친서에는 모르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으며, 교황이 직접 모르네를 자신의 적이라 지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앙리 4세는 다소 뜻밖인 이런 상황을 이용해 교황의 호의를 사고자 시도했다.³⁶⁹⁾

위 인용문에서 아르발레스트는 국왕과 교황, 위그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폰텐블로 논쟁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정치적, 공적 사안에 대해 남편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혜안을 보였다.³⁷⁰⁾ 사실 폰텐블로 논쟁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아르발레스트는 이에 직접 개입하게 되는데, 폰텐블로 논쟁에서 그녀가 보여준 정확한 판단력과 뛰어난 행동력은 바로 이런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600년 5월 4일 시작된 폰텐블로 논쟁은 앙리 4세의 의도에 맞추어 모르네, 그리고 그로 대표되는 프랑스 위그노의 영향력을 꺾기 위한 정치적 음모와 작전 속에 진행되었다. 앙리 4세는 폰텐블로 논쟁 현장에 직접 참석, 가톨릭 대표들을 노골적으로 응원했으며, 모르네를 비롯한 위그노 측 대표들은 제대로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비난과 비아냥거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아르발레스트는 후일 폰텐블로 논쟁에 대해 자평한 앙리 4세의 편지를 입수, 회고록에 전문을 실었는데, 이 편지에는 앙리 4세가 폰텐블로 논쟁에서 얻고자 한 정치적 목적은 물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가톨릭으로 돌아서겠다는 앙리 4세의 구상과 의지가 명백히 표출되어 있다.

369) *Mémoires_1868-1869*, p. 371.

370) 아르발레스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폰텐블로 논쟁 뿐 아니라 가톨릭동맹 전쟁의 양상이나 앙리 3세의 암살, 또는 앙리 4세의 개종 등 당시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단순히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곁들이고 있다. 아르발레스트의 평가 부분이 모르네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인지, 아니면 아르발레스트 본인의 해석이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회고록의 표현 방식을 보면, “모르네가 말하길..”이라는 수사가 첨부되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표현 없이 직접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해 논평하는 경우도 있다. 회고록의 작풍이나 문체상 후자의 표현은 아르발레스트 본인의 생각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 점이 그다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회고록에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해 이를 표현하고 기록한 이상, 이는 이미 아르발레스트의 사고 그 자체로 체화되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친구여, 에브류 주교는 소뮈르 총독을 이겼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준 대응은 어떤 위그노들이라도 그게 진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했소. 대답자들은 마치 내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기막히게 해냈소. 사실 이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아주 예전에 이미 해야 했던 일이고, 그들에게는 한 차례 큰 타격이 될 것이오. 이런 행보에 발맞춰, 과거 오십년 동안 시도했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퐁텐블로에서 시도한 방식대로 교회 사이의 분열은 종식될 것이라 믿소. 논쟁 하나하나의 내용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내 신하들은 이런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 생각하오. 좋은 저녁 되시오. 내 친구여. 당신이 지금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라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소.³⁷¹⁾

퐁텐블로 논쟁을 통해 앙리 4세의 ‘배신’을 속속들이 확인한 모르네 부부의 심리적 타격은 무척 컸다.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모르네가 앙리 4세에 대해 “나는 항상 그가 내 주인이자 친구임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자신의 친구임을 잊어버렸음이 분명하다. 나는 평생을 왕과 국가를 위해 살았지만,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부정하는 데 왕은 자신이 지닌 능력을 모두 발휘하고 있다”라며 비통해했다고 적었다.³⁷²⁾

퐁텐블로 논쟁에서 모르네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심한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회의 중간에 몸져눕고 만다. 당시 모르네의 심경을 적은 아래 인용문은 아르발레스트의 회고록 전체를 통해 가장 격렬하고 처절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회의는 중단되었고, 뒤플레시스는 회의 장소로 다시 돌아갈 생각에 여러 준비를 했지만, 반쯤은 과로 때문에, 반쯤은 이런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너무나 심한 배신감 때문에 지쳐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영혼에는 가눌 수 없는 후회가 쌓였고 이 후회는 뒤플레시스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 뒤플레시스가 사람들의 대변인으로 나서서 교회의 설립을 위해 일했던 모든 것들이 [퐁텐블로 논쟁에서] 교활한 책략이나 스캔들로 취급되었다. 이는 뒤플레시스에게 천 번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³⁷³⁾

당시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머물고 있던 아르발레스트는 퐁텐블로 논

371) “Lettre de Henri IV à duc d’Espemon, le 6 mai 1600,” *Mémoires_1868-1869*, p. 377.

372) *Mémoires_1868-1869*, p. 378.

373) *Mémoires_1868-1869*, p. 378.

쟁에 참석하고 있던 파리 위그노 교회의 유명한 목사 뒤 물랭(Pierre Du Moulin, 1568 - 1658)³⁷⁴⁾을 통해 남편이 곤경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다.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걱정하지 말라는 전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뒤 물랭 목사에게 퐁텐블로 논쟁의 경과를 설명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뒤, 이 글을 파리는 물론 프랑스 국내외 지인들에게 보냈다. 아르발레스트의 이런 행동은 당시 퐁텐블로 논쟁의 정치적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했으며 여론의 추이와 그 반응까지 고려할 정도로 정확하고 기민하며 신속한 대응이었다. 또한 이 구절을 통해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얼마나 견고한 연락망을 만들고 그를 신뢰하는 지인들을 확보하고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곤경에 빠져 심신이 모두 지친 모르네는 더 이상 퐁텐블로 논쟁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 파리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는데, 앞으로 자신이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부인 아르발레스트였다. 사람의 눈을 피해 남편과 조우한 아르발레스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뒤플레시스는 수로를 통해 파리로 되돌아오기로 결정했고, 나에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샤랑통(charenton)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일찍 준비해서 샤랑통으로 갔고, 누구도 우리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파리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는 뒤플레시스를 만나고 나서 정말로 너무나 걱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무언가 준비하신 바가 있다고 믿었다. 하나님께서 뒤플레시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불명예를 지도록 하셨으니 그것이 이후에는 결국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통해 그의 위대함을 느끼게 하시듯, 그리고 이를 통해 더 큰 용기를 키울 수 있게 하시듯이, 나는 내 안에서 악의를 발견했을 때 이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자 더 노력하게 된다고 믿는다. [모르네가] 예전에 지겹도록 되풀이하던 말들이 이제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였다.³⁷⁵⁾

374) 피에르 뒤 물랭(Pierre Du Moulin, 1568 - 1658)은 모르네처럼 뷔 출신으로, 스당과 영국에서 칼뱅파 신학을 배운 뒤 1598년부터 파리 근교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개혁신교회인 샤랑통(Charenton) 교회의 담당목사로 재직했다. 뒤 물랭은 장 다이에(Jean Daillé, 1594-1670)와 함께 17세기 가장 저명한 프랑스 위그노 설교자 중 한 명이라 평가받는다. 뒤 물랭에 대한 연구로는 Brian G. Armstrong, "The Changing Face of French Protestantism : the Influence of Pierre Du Moulin," *Calviniana*, pp. 131-149.

아르발레스트는 이처럼 모르네가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면서, 동시에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아르발레스트와 모르네는 퐁텐블로 논쟁이 모르네의 명예는 물론 위그노 진영을 위축시키려는 음모라는 데 동의했고, 퐁텐블로 논쟁의 정치적 속성을 폭로하기 위해 모르네가 직접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글을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쓴 글을 인쇄, 출판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을 담당하기로 결정, 거처인 소뮈르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파리에 남아 이후 상황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르네는 퐁텐블로 논쟁에 대한 글³⁷⁶⁾을 작성하자마자 파리에 있는 아르발레스트에게 보냈고, 아르발레스트는 이를 검토한 후 수정과 첨가를 제안, 글을 완성했다. 모르네가 쓴 글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전파시키는 일은 다름 아닌 아르발레스트의 몫이었다.

나는 따라서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기로 마음먹고 가장 먼저 이 글의 사본을 스당의 신학박사인 틸레누스(M. Tillenus)에게 보냈다. 그는 적극적으로 모르네의 글이 인쇄되도록 도와주었고, 이 내용이 프랑스 국내외로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썼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글을 인쇄하고 유포할지 결정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번역할 필요도 있었다. 뒤플레시스는 글이 유포될 지역을 골랐고 어떤 지역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도 했다. [글이 전해진 뒤] 전 지역에서 답신이 오기 시작하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특히 제네바 교회에서는 베즈가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³⁷⁷⁾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가 퐁텐블로 논쟁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를 프랑스 위그노 공동체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역에 알리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나름의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아르발레스트는 특히 파리에서 모르네의 책을 알리는 데 큰 곤란을 겪었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375) *Mémoires_1868-1869*, p. 381.

376) 이 글은 1600년, 출판지와 출판사가 명기되지 않은 채 『1600년 5월 4일 퐁텐블로에서 열린 논쟁의 진상. 뒤플레시스와 에브류 주교 사이의 논쟁』 (*Discours véritable de la conférence tenue à Fontainebleau le quatrième de mai 1600, entre le sieur du Plessis et l'Évêque de Évreux*)이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이후 이 글은 여러 차례 수정, 보완되어 재출간되기에 이른다.

377) *Mémoires_1868-1869*, p. 384

나는 파리 지역에서 [글을 인쇄하고 유포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지만, 어쨌든 파리에서도 [모르네가 쓴] 글이 회자되고 [퐁텐블로 논쟁의 실체가]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위험이 적지 않았다. 나는 드 루뱅이라는 과부에게 책을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녀는 이를 너무 가볍고 신중하지 않게 다루는 바람에 내가 소쉬르로 돌아가서 처음 들은 소식이 그녀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발각되어 체포당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몽트리유(Montreuil)의 인쇄소에서는 [글의] 인쇄가 거의 끝났을 때 [당국에서] 조사를 나오는 바람에 그동안 찍은 것을 폐기하는 사태도 있었다.³⁷⁸⁾

그런데 퐁텐블로 논쟁을 둘러싼 여러 정황 중 또 하나 의미심장한 부분은 위 인용문에 언급된 ‘드 루뱅이라는 과부’에게 모르네의 글을 맡겼다는 구절이다. ‘드 루뱅이라는 과부’라 불린 여성은 다름 아닌 프랑수아즈 드 루뱅(Françoise de Louvain, 1540-1621)이라 추정되는데, 그녀는 파리에서 서점을 경영하던 위그노 교도로, 당시 이미 40년 이상 서점을 운영하며 책을 출판했던 베테랑이었다.³⁷⁹⁾ 파리에선 그녀 외에도 여러 여성들이 책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드 루뱅은 유복한 부르주아 출신이었으나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그노 교도인 남편과 결혼했을 정도로 투철한 프로테스탄트라 알려져 있다.³⁸⁰⁾

아르발레스트가 드 루뱅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드 루뱅의 부르주아 출신 성분이나 회고록의 비판적 어조로 보아 그다지 깊은 친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모르네의 글을 출판하고 유통시키는 임무를 위해서는 위그노이자 서점을 운영하는 드 루뱅은 아르발레스트에게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 아르발레스트가 드 루뱅의 존재를 알고 활용했다는 점은 파리 위그노 공동체 내부에 귀족과 평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연결망이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단서이다. 파리의 위그노들은 신앙이 전파되던 초기부터 칼뱅의 저작이나 시편, 성무일과서 등을 들여오기 위해 인쇄소와 중간공급자, 책 행상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378) *Mémoires* 1868-1869, p. 385.

379) Michel Simonin, “Trois Femmes en librairie: Françoise de Louvain, Marie L’Angelier, Françoise Patélé,” *Des Femmes et des livres: France et Espagnes, XIVe-XVIIe siècle*, eds. by Dominique de Courcelles and Carmen Val Julián (Paris: École des Chartes, 1999), pp. 150-161.

380) *Ibid.*, p.151.

런 연결망의 존재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다.³⁸¹⁾ 아르발레스트가 파리를 오래 떠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연결망을 알고 이를 활용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생 바르텔레미 학살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위그노 공동체에도 여전히 드 루뱅 같은 여성들이 남아있어 위그노 대의에 동참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1600년 초에도 파리의 위그노 조직은 나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 속에서 드 루뱅 같은 여성이 움직이고 있었다면, 여성이 적극적으로 위그노적 대의에 동참했던 전통은 파리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퐁텐블로 논쟁의 실체를 알린 모르네의 글과 이를 전파시키기 위한 아르발레스트의 노력은 앙리 4세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당시 앙리 4세는 퐁텐블로 논쟁의 결과에 대해 만족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모르네에 대해 불평하면서 그를 재판에 회부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르네는 파리에서 자신의 글을 인쇄하고 각지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하던 아르발레스트에게 국왕의 진노가 미칠까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르발레스트는 앙리 4세의 감정적 대응을 큰 정치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왕이 그토록 분노한 것은 모르네에 대한 개인적인 증오 때문도 아니고 모르네가 왕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생각해서도 아니다. 이 사건은 왕이 교황을 만족시키기 위해 치밀히 계획된 작전이며, 프랑스에서 교황의 세력이 견고해졌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중략) 군주들은 스스로 무서울 것이 없다고 느끼며 자만심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³⁸²⁾

나아가 아르발레스트는 퐁텐블로 논쟁을 계획하면서 교황청의 호의를 확보하고 프랑스의 위그노들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앙리 4세의 의도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왕이 엄청난 압박을 가한 것에 비해, 그 결과는 그저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정도

381)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p. 56-61.

382) *Mémoires_1868-1869*, p. 392.

에 불과했다. 개혁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더욱 단결하게 되었다. 오히려 어떤 보르도 대학 신학부 교수는 [모르네의 책에 등장한] 인용문들의 진위를 분석하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 예수회 수사 중 하나는 [모르네의 주장을] 반박하는 책을 출판하는 일도 있었다.³⁸³⁾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오히려 폰텐블로 논쟁의 결과 앙리 4세의 계획보다는 모르네의 본래 의도가 구현되었다고 주장했다. 모르네의 책은 모르네 자신에게는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결국 가톨릭과 위그노 진영 모두 활발하게 신학적 논쟁을 벌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르발레스트는 폰텐블로 논쟁이 앙리 4세와 모르네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모르네의 입장을 옹호했으며, “하나님께서 왕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고 표현하며 모르네와 위그노 진영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기도 했다.³⁸⁴⁾

모르네에게 개인적이자 정치적인 추락이었던 폰텐블로 논쟁 이후, 아르발레스트가 보여준 일련의 대처방식은 종교개혁의 동지로서 종교전쟁의 선봉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부부의 동지애와 유대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아르발레스트는 모르네에게 닥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고민하고 행동에 옮겼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맥과 연락망을 총동원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르발레스트는 회고록에서 앙리 4세가 폰텐블로 논쟁에서 의도한 바가 무엇이며 그것이 당시 프랑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서술방식을 사용하는데, 이처럼 아르발레스트가 정확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르발레스트가 단지 모르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던 수동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능동적 동역자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라 할 수 있다.

폰텐블로 논쟁을 통해 본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의 동지적 유대관계와 종교개혁의 선봉에 선 가정의 모습은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던 부부관계와

383) *Mémoires_1868-1869*, p. 394.

384) *Mémoires_1868-1869*, p. 393.

가정의 도식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 위치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여성을 선천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 그의 의지와 행동은 가부장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여성의 삶은 부엌에서 가사에 전념하며 아이를 낳아 기르고, 교회를 통해 신앙심을 키우는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을 가정에만 귀속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종교전쟁 시기 소수 세력으로 단합과 연대가 절실했던 프랑스 위그노에게 가정이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기반이자, 유대감을 키우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매개로 기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를 비롯, 적극적으로 종교전쟁에 개입한 일부 귀족여성들은 사회적 탄압과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형성한 강력한 결단력과 진취적 행동력을 발휘, 자신들의 가정을 종교적 대의에 헌신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종교전쟁 당시 위그노 귀족들의 가정은 공동체의 운영과 급변하는 정치적 현실에 직접 개입하는 소통과 참여의 장(場)이 되었다.

동지애에 바탕을 두고 공동체의 연대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정은 프랑스 종교전쟁 시대 위그노에게 요청되던 가정의 특성을 구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모르네 부부의 가정은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인 사회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루터에게 가정이 ‘복종을 배우는 장소’이고, 칼뱅에게 ‘소명을 배우는 장소’였다면,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에게 가정은 ‘사회참여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은 그 역사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종교개혁을 체험하였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종교개혁 교리와 사상의 내용을 변주하며 재구성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따라서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과 가정은 가부장제에 종속된 수동적 변수가 아니라, 당시 위그노 공동체의 흥망에 직접 개입했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제 6 장 결 론

종교개혁 시대 여성사 연구자들은 종교개혁이 사상적, 제도적으로 확장될수록 여성은 가부장이 지배하는 가정에 예속되어 수동적 존재로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프랑스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의 경험은 종교개혁과 여성 간 관계에 있어 이런 일반적 명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해석을 가능케 하며, 종교개혁과 여성이 관계 맺었던 다양한 방식과 복잡한 변형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종교개혁가들은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규정했고, 여성들은 가정 속에서 가부장의 의지에 종속된 채 남편의 뜻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루터는 여성을 출산을 위해 창조된 존재로 인식했고, 나아가 가정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원칙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원리로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칼뱅은 가부장적 가정을 신의 질서가 구현된 사회의 근본이라 여겨 컨시스토리 등 감찰기구를 설립,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소명을 올바르게 구현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자 했고, 질서와 규율을 강조하는 칼뱅과 교회의 각종 제도는 이후 유럽 전역에 널리 전파되면서 사회규율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종교개혁 시기의 보수적 여성관과 사회규율화 과정을 통해 볼 때, 종교개혁은 여성에게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회복한 영적 해방의 순간이 아니라 전통적 굴레 속에 다시 얽매이게 만든 억압의 경험이라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대 여성 중 일부는 자신의 경험과 실천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사상의 의미를 변형하거나 재해석하는 등, 능동적 주체로 개혁운동에 직접 동참하기도 했다. 교권의 비판 속에서도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종교적 소통에 앞장섰던 카타리나 첼 등 몇몇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활동은 종교개혁 사상을 통해 여성의 지적, 사회적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교권이 정치권과 연대하면서 발생한 사회규율화 과정 속에서, 여성 개혁운동가들의 종교적 실천은 예외적이

고 개별적인 현상으로만 취급되었다.

반면, 프랑스 종교개혁의 역사적 경험과 여성의 위상은 비텐베르크나 제네바의 그것과는 다른 조금은 특수한 지평에 위치한다. 프랑스 종교개혁가들 역시 여성과 가정에 대해 가부장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고, 프랑스 남부도시에서 진행된 종교개혁의 경우 여성과 가정을 사회규율화의 대상으로 파악,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국가적 탄압과 박해가 극심했던 프랑스 북부에서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은 프로테스탄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강한 결단력과 적극적 행동의지를 필요로 했다. 그들은 위그노가 된 이후 가족의 반대에 맞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가족 전체를 개종의 길로 이끌기도 했으며, 때로는 이단으로 몰려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대귀족 여성들은 자신의 영지를 위그노들의 피난처로 제공하기도 했고, 프랑스에서 위그노 신앙과 의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종교개혁의 전파와 확산에 큰 몫을 담당했던 여성들은 위그노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적극적 삶의 방식이 제도권 교회에서 이상적으로 본 수동적인 여성의 삶과는 모순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은 종교개혁과 여성 사이에 놓인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능동적 기질을 개혁운동의 여러 국면에서 손색없이 발휘하였고, 나아가 부부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을 종교전쟁이라는 공적 영역에 접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남긴 『모르네 부인의 회고록』은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여성들이 종교적 정체성과 여성의 소명, 그리고 사회참여라는 서로 다른 세 차원을 어떻게 종합해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라 할 수 있다. 아르발레스트는 생 바르텔레미 학살을 통해 형성된 위그노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프랑스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만난 각종 난관과 갈등에 진취적으로 대응하였고, 남편인 모르네와 함께 동지적 부부애를 실천하며 가정을 종교개혁의 전위로 삼아 위그노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위해 매진하였다. 이처럼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라는 한 위그노 여성은 종교개혁

이라는 사건을 통해 독자적이고 결단력 있는 역사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고, 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은 가부장이 득세하고 군림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종교적 대의를 구현하는 협력과 공존의 공간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개혁운동에 동참한 아르발레스트의 경험은 프랑스 종교개혁이라는 거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효용성을 지니는가? 이 질문은 두 차원의 의미를 지닌다. 이 질문은 우선 아르발레스트의 사례가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여성과 가정 일반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고 적절한 기준인지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동시에 이 질문은 아르발레스트의 경험이 종교전쟁 이후 프랑스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되짚어보게 하는데, 결국 이는 프랑스 종교개혁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성찰과 연결된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경험한 종교개혁과 그녀가 창조한 가정의 모습은 분명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개혁 시기 여성과 가정의 일반적 속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에 위치한다. 따라서 아르발레스트의 부부관계나 가정생활이란 결국 종교개혁의 최전선에서 정치적 선봉에 섰던 모르네의 경우나 가능한 특수한 현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모르네와 아르발레스트 가정의 성격은 모르네의 정치적 위상이나 귀족이라는 사회적 신분 등 아르발레스트가 지닌 특수한 조건과 분리되어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귀족이자 정치가의 아내였던 아르발레스트의 경험은 동시대 프랑스 위그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평범한 부르주아들의 삶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것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종교전쟁 시대는 물론 17세기 전반 가톨릭과 위그노가 공존하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위그노 공동체에서 가정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위그노에게 가정은 불안한 현실을 버틸 수 있는 정신적 보루이자 취약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매개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위그노 가족 구성원들은 일반 가톨릭 가족보다 상호의존도가 높았고 강력한 결집력을 보인다는 멘처(Raymond A. Mentzer)의 연구는 이를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종교전쟁 시기 폭력과 박해에 쉽게 노출되었던 위그노들은 가정 내 유대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고, 평화가 정착

된 이후에도 소수파에 불과했던 위그노들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가족에 기반을 둔 인맥과 연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³⁸⁵⁾

그런데 위그노들의 인맥 형성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무척 중요했다. 혼인관계야말로 한 가정을 다른 가정과 연결하며 위그노 공동체를 공고하게 만드는 대표적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멘처는 위그노 가문 간의 연대와 교류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후견인을 찾아주거나 직업적 연줄을 맺는 데 있어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⁸⁶⁾ 이처럼 아르발레스트의 가정이 지닌 공적 속성, 즉 가정이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반이자 동시에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며, 이때 여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공동체 운영에 핵심적 매개로 작용한다는 특징은 종교전쟁 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 위그노 공동체에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1685년 루이 14세가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모든 위그노 교회와 종교의식을 금지한 이후 프랑스 내 칼뱅파 공동체는 괴멸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은 종교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 기반이 되었다. 퐁텐블로 칙령이후 상당 기간 동안 가정은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을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보루가 되었으며, 가정교육을 통해 위그노 신앙을 후대에 전승시킬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 18세기 들어 위그노의 후신인 데제르(désert)들은 프랑스에 칼뱅파 교회를 세우고 시노드를 개최하는 등 교회조직 재건에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는데, 이를 가능케 한 기반은 결국 가정이었다. 데제르들을 이끌어 칼뱅파 교회를 재건한 앙투안 쿠르의 사례처럼, 이들 대다수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³⁸⁷⁾

이처럼 프랑스 종교개혁의 성장과 유지, 재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은 무

385) Raymond A. Mentzer, *Blood and Belief: Family Survival and Confessional Identity among the Provincial Huguenot Nobility* (West Lafayette: Purdue Univ. Press, 1994), p. 157.

386) *Ibid.*, p.161.

387) 앙투안 쿠르의 사례는 Didier Boisson et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 227. 퐁텐블로 칙령 이후 칼뱅파 신앙의 전수에 있어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Carolyn Lougee Chappell, "The Pains I Took to Save My/His Family: Escape Accounts by a Huguenot Mother and Daughter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2, no. 1. (Winter, 1999), pp. 1-64.

척이나 컸다. 끝까지 프로테스탄트로 남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은 17세기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핍박에 맞서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을 통해 실천하였다.³⁸⁸⁾ 망명을 시도하다 적발되어 감옥에 갇힌 여성들의 수기나 망명 이후 낯선 타지에서 삶을 개척한 여성의 회고록을 통해, 당시 위그노 여성들이 지닌 능동적 기질을 유추하기란 어렵지 않다.³⁸⁹⁾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들의 결심은 때로 남성을 압도하기도 했는데, 낭트 칙령 폐지 이후 프랑스 위그노들의 개종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은 망명을 떠난 위그노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³⁹⁰⁾

이와 같이 퐁텐블로 칙령 이후 결단력과 행동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여성 위그노들은 종교적 정체성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삼았던 아르발레스트의 후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가 위그노가 되기 위해 겪었던 고난과 역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은 후대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여성들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한 준거라 하겠다.

샤를로트 아르발레스트는 유명한 정치가 모르네의 아내이자 인생의 동반자라는 자리에서 프랑스 종교개혁을 겪었고, 그녀의 경험은 종교개혁가들이 여성에게 부여한 제한된 규정을 넘어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종교개혁에 동참한 여성들의 삶은 쉽게 일반화될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프랑스 위그노 여성들의 경우만 보아도 이는 명백하다. 나바르와 베아른의 여왕이었던 잔 달브레, 앙리 드 나바르의 누이로 위그노 공동체의 상징이었던 카트린 드 부르봉, 자신의 영지를 위그노들의 피난처로 제공했던 르네 드 프랑스와 자클린 드 로앙, 1627년 라 로셸에서 벌어진 위그노의 마지막 군사작전에 동참했던 카트린 드 파르트네 등 프랑스 종교개혁 시기 위그노 귀족여성들의 경

388) Janine Garrisson, *Les Protestants au XVIe siècle*, pp. 107-108.

389) Michel Richard, *La vie quotidienne des protestants sous l'ancien régime* (Paris: Hachette, 1966), pp. 155-177.

390) Barbara B. Didfendorf, "Houses Divided : Religious Schism in Sixteenth-Century Parisian Families," *Urban Life in the Renaissance*, eds. by S. Zimmerman and R. Weissman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1989), pp. 80-99.

험은 비교적 여러 차원에서 연구되었으나 아직도 그들의 경험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복원시키지 못한 측면이 많다. 특히 프랑스 종교개혁 시대 위그노 귀족 여성들이 구성한 인적 네트워크와 그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대귀족 출신이 아닌 여성의 경험을 추적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생 자크 사건 이후 처형되었던 그라브롱 부인, 파리의 순교자 마르그리트 르 리쉬, 모르네의 책을 출판했다가 체포당했던 프랑수아즈 드 루뱅 등 사료에 이름을 남긴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여성들이 프랑스 종교개혁에 각자의 방식으로 동참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종교개혁은 물론, 개혁운동에 동참했던 여성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종교개혁의 속성과 전파, 수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줄 준비가 되어있다. 이제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이들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직도 수많은 ‘아르발레스트들’은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조용히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문헌】

1. PRIMARY SOURCES

- Aymon, J. (ed.), *Actes ecclésiastiques et civils de tous les synodes des église réformée de France*, vol. 1 (La Haye, 1710).
- Bèze, Théodore de, *Histoire ecclésiastique des églises réformées au royaume de France: en laquelle est descrite au vray la renaissance & accroissement d'icelles depuis l'an MDXXI iusques en l'annee MDLXIII, leur reiglement ou discipline*, tome I. (Remy, 1580).
- Calvin, Jean,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ad fidem editionum principum et authenticarum ex parte etiam codicum manu scriptorum, additis prolegomenis literariis, annotationibus criticis, annalibus Calvinianis indicibusque novis et copiosissimis*, eds. by Johann Wilhelm Baum and August Eduard Cunitz (Brunsvigae: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John T. McNeill, trans. by Ford Lewis Balltes, 2 vol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 *Calvin: Commentaries*, ed. and trans.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 , *Letters of Jean Calvin*, ed. by Jules Bonnet, 3 vols. (New York: Presbyterian Board of Publ., 1858).
- Chandieu, Antoine de la Roche de, *Histoire des persécutions et martyrs de l'église de paris: depuis l'an 1577, jusques au temps du roy Charles Neuvième* (Lyon, 1563).
- Coligny, Louise de, *Lettres de Louise de Coligny à sa belle-fille*

- Charlotte-Brabantine de Nassau, publiées d'après les originaux par Paul Marchegay*, ed. by Paul-Alexandre Marchegay (Les Roches-Baritaud, 1872).
- Crespin, Jean, *Histoire de vrais tesmoins de la vérité de l'évangile, qui de leur sang l'ont signée, depuis Jean Hus iusques au temps present* (Genève: Crespin, 1570).
- D'Albret, Jeanne, *Mémoires et poésies de Jeanne d'Albret*, ed. by Alphonse de Ruble (Paris: E. Paul, Huart et Guillemin, 1893).
- Dentière, Mari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and Preface to a Sermon by John Calvin*, ed. and trans. by Mary B. McKinle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4).
- Duplessis-Mornay, Philippe, *Mémoires et correspondance de Duplessis-Mornay: pour servir à l'histoire de la réformation et des guerres civiles et religieuses en France, sous les règnes de Charles IX, de Henri III, de Henri IV et de Louis XIII*, ed. by Pierre René Auguis & Armand-Désiré La Fontenelle, 12 vols. (Paris: Crapelet-Chez treuttel et wurtz, 1824).
- Duplessis-Mornay, Madame de,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édition revue sur les manuscrits, publié avec les variantes et accompagnée de lettres inédites de M. et Mme du Plessis Mornay et de leur enfants*, ed. by Henriette de Witt, 2 vols. (Paris: Chez Mme Ve Jules Renouard, 1868-1869).
- Duplessis-Mornay, Charlotte, *Les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ed. by Nadine Kuperty-Tsur (Paris: Honoré Champion, 2010).
- Fatio, Olivier, (ed.), *Confession et catéchisme de la foi réformée* (Genève: Labor et fils, 1986).
- Huisseau, Issac, *La Discipline des églises réformées de France* (Genève, 1667).

- Karant-Nunn, Susan C., and Merry E. Wiesner-Hanks, (eds.), *Luther on Women: A Sourcebook*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3).
- Licques, David de, *Histoire de la vie de messire Philippe de Mornay*, (Leyde: Chez B.&A. Elsevier, 1647).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ed. and trans. by Walter I. Brandt, 55 vol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7-1986).
- Tappert, Theodore G., (ed. and trans.),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9)
- Zell, Katharina Schütz, *Church Mother: The Writings of Protestant Reformer in Sixteenth-Century Germany*, ed. and trans. by Elsie McKe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2006).

2. SECONDARY WORKS

1) BOOKS

- Anderson, James, *Ladies of the Reformation: Memoirs of Distinguished Female Characters Belonging to the Period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Germany, Switzerland, France , Italy and Spain* (London: Blackie, 1857).
- Aries, Philippe and Roger Chartier, (eds.), *Histoire de la vie privée: De la Renaissance aux Lumières*, 이영림 역, 『사생활의 역사 3, 르네상스부터 계몽주의까지』 (서울: 새물결, 2002).
- Bainton, Roland, *Women of the Reformation: Germany and Italy*, vol. 1 (Minneapolis: Academic Renewal Press, 1971)

- , *Women of the Reformation: France and England*, vol. 2 (Minneapolis: Academic Renewal Press, 1973)
- Bast, Robert James, *Honor Your Fathers: Catechism and the Emergence of a Patriarchal Ideology in Germany, 1400–1600* (Leiden: E. J. Brill, 1997).
- Benedict, Philip, *The Faith and Fortunes of France's Huguenots, 1600–85* (Aldershot: Ashgate, 2001).
- , *Christ's Churches Purely Reformed: A Social History of Calvinism* (New Haven: Yale Univ. Press, 2002).
- Berriot-Salvadore, Evelyne, Philippe Chareyre and Claudie Martin-Ulrich (eds.), *Jeanne d'Albret et sa cour* (Paris: Honoré-Champion, 2004).
- Bertrand, Dominique, (ed.), *Lire l'Heptameron de Marguerite de Navarre* (Clermont-Ferrand: Presses Universitaires Blaise Pascal, 2005).
- Biéler, André, *La pensée économique et sociale de Calvin* (Genève: Georg, 1961).
- , *L'homme et la femme dans la morale Calviniste* (Genève: Georg, 1963).
- Bohanan, Donna, *Crown and Nobility in Early Modern France* (Basingstoke: Palgrave, 2001).
- Boisson, Didier and Hugues Daussy, *Les protestants dans la France moderne* (Paris: Belin, 2006).
- Bossy, John, *Christianity in the West, 1400–1700*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 Broomhall, Susan M. and Colette H. Winn, (eds.), *Les femmes et l'histoire familiale (XVIe - XVIIe siècle)* (Paris: Honoré Champion, 2008).
- Brundage, James A., *Law, Sex, and Christian Society in Medieval*

- Europ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87).
- Chaunu, Pierre, *Le temps des Réformes: Histoire religieuse et système de civilisation. La crise de la chrétienté L'éclatement (1250-1550)* (Paris: Fayard, 1975).
- Cholakian, Patricia Francis, and Rouben Charles Cholakian, *Marguerite De Navarre: Mother of the Renaissanc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2006).
- Conner, Philip, *Huguenot Heartland: Montauban and Southern French Calvinism during the Wars of Religion* (Aldershot: Ashgate, 2002).
- Crouzet, Denis, *La nuit de la Saint-Barthélemy: un rêve perdu de la Renaissance* (Paris: Fayard, 1994).
- , *La Genèse de la Réforme française, 1520-1562* (Paris: Sedes, 1996).
- Daussy, Hugues, *Les huguenots et le roi: Le combat politique de Philippe Duplessis-Mornay (1572-1600)* (Genève: Droz, 2002).
- Daussy, Hugues and Veronique Ferrer (eds.), *Albion 18 : Servir Dieu, le roi et l'état.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Delumeau, Jean, *Naissance et affirmation de la Réform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5).
- Denis, Philippe et Jean Rott, *Jean Morély et l'utopie d'une démocratie dans l'église* (Genève: Droz, 1993).
- Diefendorf, Barbara B., *Beneath the Cross: Catholics and Huguenots in Sixteenth Century Pari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1).
- Douglass, Jane Dempsey, *Women, Freedom, and Calvin*, 심창섭 역, 『칼뱅의 여성관』 (서울: 무림출판사, 1990)
- Duby, George and Michael Perrot, *Histoire des femmes en Occident*,

- tome 3 : *XVIe-XVIIIe siècle*, 조형준 역, 『여성의 역사 3-상 ,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역설』 (서울: 새물결, 1998).
- Dülmen, Richard van, *Die Entdeckung des Individuums, 1500-1800*,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어떻게 개인을 찾아 가는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 Engammare, Max, *L'ordre du temps: l'invention de la ponctualité au XVIe siècle* (Genève: Droz, 2004).
- Ferguson, Wallace Klippert, *Europe in Transition, 1300-1520*, 이연규, 박순준 공역, 『서양근대사: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 (서울: 집문당, 1989).
- Garrison, Janine, *L'homme protestant* (Bruxelles: Éditions Complexe, 1986).
- _____, *Les protestants au XVIe siècle* (Paris: Fayard, 1988).
- _____, *Protestants du midi: 1559-1598* (Toulouse: Privat, 1991).
- Gurevich, Aaron, *The Origins of European Individualism*, 이현주 역, 『개인주의의 등장』 (서울: 새물결, 2002).
- Harrington, Joel F., *Reordering Marriage and Society in Reformation German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 Holt, Mack P., *The French Wars of Religion, 1562-1629*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5).
- Hours, Bernard, *L'église et la vie religieuse dans la France moderne, XVIe-XVIIe sièc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0).
- Hsia, R. Po-chia, *Social Discipline in the Reformation: Central Europe 1550-1750* (London: Routledge, 1989).
- Hull, Suzanne, *Chaste, Silent and Obedient: English Books for Women, 1475-1640* (San Marino.: Huntington Library, 1982).
- Jouanna, Arlette, Jacqueline Boucher, Dominique Biloghi and Guy Le Thiec, *Histoire et dictionnaire des guerres de religion*

- (Paris: Robert Laffont, 1998).
- Kingdon, Robert M.,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5).
- Kittelson, James M., *Luther the Reformer: The Story of the Man and His Career*, 김승철 역, 『개혁자 말틴 루터』 (서울: 컨콜디아사, 1995).
- Kuperty-Tsur, Nadine, *Se dire à la Renaissance. Les mémoires au XVIe siècle* (Paris: Vrin, 1997).
- Larsen, Anne R. and Colette H. Winn, (eds.), *Writings by Pre-revolutionary French Women* (New York: Garland Pub., 2000).
- Mandrou, Robert, *Introduction à la France moderne: essai de psychologie historique* (Paris: A. Michel, 1974).
- Matheson, Peter, *Argula von Grumbach: A Woman's Voice in the Reformation* (Edinburgh: T&T Clark, 1995).
- McKee, Elsie Ann, *Katharina Schütz Zell: The Life and Thought of a Sixteenth Century Reformer* (Leiden: E.J. Brill, 1999).
- , *Katharina Schütz Zell: The Writings, a Critical Edition* (Leiden: E.J. Brill, 1999).
- Mentzer, Raymond A., *Blood and Belief: Family Survival and Confessional Identity among the Provincial Huguenot Nobility* (West Lafayette: Purdue Univ. Press, 1994).
- Monter, William, *Judging the French Reformation: Heresy Trials by Sixteenth Century Parlement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9).
- Mours, Samuel, *Les églises réformées en France: tableaux et cartes* (Paris: Librairie protestante, 1958).
- Naphy, William G.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Nelson, Eric, *The Jesuits and the Monarchy: Catholic Reform and*

- Political Authority in France (1590-1615)* (Aldershot: Ashgate, 2005).
- Nora, Pierre, et al, *Les lieux de mémoire, tome 3 : Les France-Traditions*, 김인중 외 역, 『기억의 장소 4 : 프랑스들 2』 (과주: 나남, 2010).
- Ozment, Steven, *The Age of Reform, 1250-1550*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0).
- , *When Fathers Ruled: Family Life in Reformation Europ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3).
- Poton, Didier, *Duplessis-Mornay: le pape des huguenots, 1549-1623* (Paris: Perrin, 2006).
- Ranft, Patricia, *Women and Spiritual Equality in Christian Tra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 Richard, Michel, *La vie quotidienne des protestants sous l'ancien régime* (Paris: Hachette, 1966).
- Robert, Penny, *A City in Conflict: Troyes During the French Wars of Religion* (Manchester: Manchester Univ. Press, 1996).
- Roper, Lydal, *The Holy Household: Women and Morals in Reformation Augsburg* (Oxford: Clarendon Press, 1989).
- Ruymbeke, Bertrand Van and Randy J. Sparks, (eds.), *Memory and Identity: The Huguenots in France and the Atlantic Diaspora* (Columbia: Univ. of South Carolina Press, 2003).
- Shahar, Shulamith, *Childhood in the Middle Ages* (London: Routledge, 1990).
- Shepardson, Nikki, *Burning Zeal: The Rhetoric of Martyrdom and the Protestant Community in Reformation France, 1520-1570* (Cranbury: Lehigh Univ. Press, 2007).
- Selderhuis, H. J., *Marriage and Divorce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trans. by J. Vriend and L. D. Bierma (Kirksville:

- Thomas Jefferson Univ. Press, 1999).
- Stephenson, Barbara, *The Power and Patronage of Marguerite de Navarre* (Burlington: Ashgate, 2004).
- Stjerna, Kirsi Irmeli, *Women and the Reformation* (Oxford: Blackwell Pub., 2009).
- Strauss, Gerald, *Luther's House of Learning*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78).
- Sunshine, Glenn S., *Reforming French Protestantism: The Development of Huguenot Ecclesiastical Institution, 1557-1572* (Kirs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3).
- Tallon, Alain, *La France et le concile de Trente (1518-1563)* (Rome: Ecole Française de Rome, 1997).
- Thomson, John Lee, *John Calvin and the Daughters of Sarah: Women in Regular and Exceptional Roles in the Exegesis of Calvin, His Predecessors and his Contemporaries* (Genève: Droz, 1992).
- Watson, David, *The Martyrology of Jean Crespin and the Early French Evangelical Movement, 1523-1555*, Ph. D thesis of University of St. Andrews, 1997.
- Wiesner, Merry E., *Women and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3),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8).
- Witte, John Jr., *From Sacrament to Contract: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Witte, John Jr., and Robert M. Kingdon,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Courtship, Engagement and Marriage*, vol. 1 (Grand Rapids & Cambridge: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2) ARTICLES

- 박준철, 「변화와 지속: 종교개혁이 가정과 여성에 미친 영향」, 한국 서양사학회 編, 『서양의 가족과 성』 (서울: 당대, 2003).
- , 「16세기 독일 민중종교문화를 통해 본 종교개혁의 수용과 거부」, 『서양사론』, vol. 92 (2007).
- , 「‘vita activa’, 칼뱅이 추구한 교회 개혁의 본질」, 『지식의 지평』, vol. 7 (서울: 한국 학술협의회, 2009).
- 이성재, 「구체제 시기 고등법원의 구성과 역할」,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임승휘, 「프랑스 신교도 모나르코마크(Monarchomaques)의 정치이론(1572~1584)」, 『프랑스사 연구』, vol. 15 (2006).
- , 「프랑스 절대왕정의 권력과 행정구조」, 최갑수 외 공저, 『프랑스 구체제의 권력구조와 사회』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09).
- 황대현, 「16-17세기 유럽의 ‘교과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사회적 규율화’의 첫 단계로서의 교과화 과정 패러다임에 대한 독일 사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vol. 100 (2006).
- Armstrong, Brian G., “The Changing Face of French Protestantism : the Influence of Pierre Du Moulin,” *Calviniana: Idea and Influence of John Calvin*, ed. by R. V. Schnucker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 Bratt, John H., “The Role and Status of Women in the Writings of John Calvin,” *Renaissance, Reformation, Resurgence: Papers and Responses presented at the Colloquium on Calvin & Calvin Studies*, ed. by Peter de Klerk (Grand Rapid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1976).
- Bireley, Robert, S. J., “Early-Modern Catholicism as a Response to the Changing World of the Long Sixteenth Century,” *The*

- Catholic Historical Review*, vol. 95, no. 2, (April, 2009).
- Blaisdell, Charmarie Jenkins, "Calvin's Letters to Women: The Courting of Ladies in High Place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3, no. 3 (Autumn, 1982).
- _____, "Calvin's and Loyola's Letters to Women: Politics and Spiritual Counsel in the Sixteenth Century," *Calviniana: Idea and Influence of John Calvin*, ed. by R. V. Schnucker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8).
- Brenot, Anne-Marie, "La Peste soit des Huguenots. Étude d'une logique d'exécration au XVI^e siècle," *Annales: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 vol. 11, no. 4 (1992).
- Broomhall, Susan and Colette H. Winn, "La Représentation de soi dans les mémoires féminins du début de l'époque moderne," *Tangence*, no. 77 (2005).
- _____, "Femme, écriture, foi: les mémoires de Madame Duplessis-Mornay," *Albioniana 18: Servir Dieu, le Roi et l'Etat: Philippe Duplessis-Mornay(1549-1623)* eds. by Hugues Daussy and Veronique Ferrer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Chappell, Carolyn Lougee, "The Pains I Took to Save My/His Family: Escape Accounts by a Huguenot Mother and Daughter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of Nantes,"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2, no. 1 (Winter, 1999).
- Chassen, Albrecht, "Footnotes to the German Canon: Maria von Wolkenstein and Argula von Grumbach," *The Politics of Gender in Early Modern Europe*, eds. by J. R. Brink, Allison Coudert, and Maryanne Cline Horowitz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89).
- Christi, Léon, "Luther et la faculté de théologie de Paris," *Revue d'histoire de l'église de France*, tome 32. no. 120 (1946).

- Collins, James B.,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à l'état français: Duplessis-Mornay et la transformation de la citoyenneté en France," *Albion 18 : Servir Dieu, le Roi et l'État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eds. by Hugues Daussy and Véronique Ferrer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Davis, Natalie Zemon, "City Women and Religious Change,"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5).
- , "Strikes and Salvation at Lyon,"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75).
- DeBoer, Willis, "Calvin on the Role of Women,"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d. by David E. Holwerd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Diefendorf, Barbara, "The Huguenot Psalter and the Faith of French Protestants in the Sixteenth Century," *Culture and Identity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Essays in Honor of Natalie Zemon Davis*, eds. by Barbara B. Diefendorf and Carla Alison Hess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1993).
- , "Les divisions religieuses dans les familles parisiennes avant la Saint-Barthélemy," *Annales, Histoire, économie & société*, vol. 7, no. 1 (1988).
- , "House Divided: Religious Schism in Sixteenth Century Parisian Families," *Urban Life in the Renaissance*, eds. by Susan Zimmerman and Ronald F. E. Weissman (Newark: Univ. of Delaware Press, 1989).
- , "France," *Reformation and Early Modern Europe: A Guide to Research*, ed. by David M. Whitford (Kirkville: Truman State Univ. Press, 2008).

- Douglass, Jane Dempsey, "Women and the Continental Reformation," *Religion and Sexism*, ed. by Rosemary Radford Rueth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4).
- _____, "Marie Dentièr's Use of Scripture in her Theology of History," *Biblical Hermeneutics in Historical Perspective: Studies in Honor of Karlfried Froehlich on His Sixtieth Birthday*, eds. by Mark S. Burrows and Paul Rorem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1).
- Dyke, Paul Van, "Les Prétendus mémoires de Jeanne d'Albret," *Revue historique*, vol. 129, no. 1 (1918).
- Farr, James R., "Confessionalization and Social Discipline in France, 1530–1685,"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vol. 94 (2003).
- Fornerod, Nicolas, "L'Idée de concile chez Duplessis-Mornay," *Albineana 18 : Servir Dieu, le Roi et l'État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eds. by Hughes Daussy and Véronique Ferrer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Fumaroli, Marc, "Les Mémoires du XVII^e siècle au carrefour des genres en prose," *XVII^e Siècle* (1971).
- Greengrass, Mark, "The Calvinist Experiment in Béarn,"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eds. by Andrew Pettegree, Alastair Duke and Gillian Lewi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 Gorski, Philip S., "Calvinism and State-Formation in Early Modern Europe," *State/Culture: State 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ed. by George Steinmetz (Ithaca: Cornell Univ. Press, 1999).
- Haddad, Elie, "Noble Clienteles in France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 Historiographical Approach," *French History*, vol. 20 (2006), pp. 75–109.
- Head, Thomas, "The Religion of the Femmelettes: Ideals and

- Experience among Women in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y France,” *That Gentle Strength: Historical Perspectives on Women in Christianity*, eds. by Linda Coon, Katherine Haldane and Elisabeth Sommer (Charlottesville: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91).
- Holt, Mack P., “Putting Religion Back into the Wars of Relig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18, no. 2 (Autumn, 1993).
- ,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Recent Trends and Future Agendas,” *Journal of Social History*, vol. 37, no.1 (Fall, 2003).
- Kalas, Robert J., “The Noble Widow’s Place in the Patriarchal Household: The Life and Career of Jeanne de Gontault,”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4, no. 3 (Autumn, 1993).
- Karant-Nunn, Susan C., “Kinder, Küche, Kirche: Social Ideology in the Sermons of Johannes Mathesius,” *Germania Illustrata: Essays on Early Modern Germany presented to Gerald Strauss*, eds. by Andrew Cooper Fix and Susan C. Karant-Nunn (Kirk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2).
- , “The Reformation of Women,”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by Renate Bridenthal, Susan Mosher Stuard, and Merry E. Wiesner (Boston: Houghton-Mifflin, 1998).
- Kelley, Donald R., “Martyrs, Myths, and the Massacre: The Background of St. Bartholomew,”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7, no. 5 (Dec., 1972).
- Klaus, Carrie F., “Architecture and Sexual Identity: Jeanne de Jussie’s Narrative of the Reformation of Geneva,” *Feminist Studies*, vol. 29, no. 2 (Summer, 2003).
- Matheson, Peter, “Breaking the Silence: Women, Censorship, and the

- Reformation,”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7, no. 1 (Spring, 1996).
- Mentzer, Raymond A. Jr., “*Disciplina nervus ecclesiae*: The Calvinist Reform of Morals at Nîme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18, no. 1, (Spring, 1987).
- , “La place et le rôle des femmes dans les églises réformées,” *Archives de sciences sociales des religions*, no. 113 (janvier-mars, 2001).
- , “*Fashioning Reformed Identity in Early Modern France*,” *Confessionalization in Europe, 1555–1700: Essays in Honor and Memory of Bodo Nischan*, ed. by John M. Headley (Aldershot: Ashgate, 2004).
- Monter, E. William, “Women in Calvinist Geneva (1550–1800),” *Signs*, vol. 6, no. 2 (Winter, 1980).
- Neuschel, Kristen B., “Noblewomen and War in Sixteenth-Century France,” *Changing Identities in Early Modern France*, ed. by Michael Wolfe (Durham : Duke Univ. Press, 1996).
- Pettegree, Andrew and Matthew Hall, “The Reformation and the Book: A Reconsideration,” *The Historical Journal*, vol. 47, no. 4 (Dec., 2004).
- Pitkin, Barbara, “Imitation of David: David as a Paradigm for Faith in Calvin’s Exegesis of the Psalms,”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4, no. 4 (Winter, 1993).
- Randall, Catharine, “Shouting Down Abraham: How Sixteenth Century Huguenot Women Found their Voice,” *Renaissance Quarterly*, vol. 50, no. 2 (Summer, 1997).
- Read, Charles, “Un souvenir de Philippe du Plessis Mornay: Bible donnée par lui à sa fille Anne de Mornay, pages de l’intimité et la vie de la famille et culte domestique chez nos ancêtres,”

-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vol. 1 (1853).
- Richards, Penny, "The Guise Women: Politics, War and Peace," *Gender, Power and Privilege in Early Modern Europe*, eds. by Jessica Munns and Penny Richards (London: Pearson Education Ltd., 2003).
- Richet, Denis, "Aspects socio-culturels des conflits religieux à Paris dans la seconde moitié du XVI^e siècle," *Annales. Histoire, économies, société, civilisations*. 32^e année, no. 4 (1977).
- Roelker, Nancy L., "The Appeal of Calvinism to French Noblewomen in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vol. 2, no. 4 (Spring, 1972).
- , "The Role of Noblewomen in the French Reformation," *Archiv fur Reformationsgeschichte*, no. 63 (1972).
- Roper, Lyndal, "Luther: Sex, Marriage and Motherhood," *History Today* vol. 33 (1983).
- Rosa, Susan and Dale Van Kley, "Religion and the Historical Discipline: A Reply to Mack Holt and Henry Heller,"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21, no. 4 (Autumn, 1998).
- Rosenthal, Joshua, "L'affaire de la coiffure: l'autorité théologique et l'identité matrimoniale chez Mornay," *Albinea 18 : Servir Dieu, le Roi et l'État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eds. by Hugues Daussy and Véronique Ferrer (Paris: Honoré Champion, 2006).
- Schilling, Heinz, "Between the Territorial State and Urban Liberty: Lutheran and Calvinism in the Country of Lippe," *The German People and the Reformation*, ed. by R. Po-chia H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8).
- , "Confessional Europe," *Handbook of European History*,

- 1400–1600: Late Middle Ages, Renaissance and Reformation: Visions, Programs and Outcomes*, eds. by Thomas A Brady et al (Leiden: E. J. Brill, 1995).
- _____, “Confessionalization: Historical and Scholarly Perspectives of a Comparative and interdisciplinary Paradigm,” *Confessionalization in Europe, 1555–1700. Essays in Honor and Memory of Bodo Nischan*, ed. by J. M. Headley et al. (Aldershot: Ashgate, 2004).
- Strauss, Gerald, “Lutheranism and Literacy: A Reassessment,” *Religion and Society in Early Modern Europe*, ed. by Kaspar von Greyerz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84).
- Watt, Jeffrey R., “Women and the Consistory in Calvin’s Geneva,”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24, no. 2. (Summer, 1993).
- _____, “The Impact of the Reformation and Counter Reformation,” *The History of the European Family: Family Life in Early Modern Times, 1500–1789*. eds. by David I. Kertzer and Marzio Barbagli (New Haven: Yale Univ. Press, 2001).
- Weiss, N., “Épisodes de la réforme à Paris: l’assemblée de la rue Saint Jacques, 4–5 septembre 1557,” *Bulletin société de l’histoire du protestantisme français*, tome 13 (Juillet–Septembre, 1916).
- Wiesner, Merry E., “Luther and Women: The Death of Two Marys,” *Discipline of Faith: Studies in Religion, Politics and Patriarchy*, eds. by James Obelkevich, Raphael Samuel and Lyndal Roper (London: Routledge, 1987).
- _____, “Women’s Response to the Reformation,” *The German People and the Reformation*, ed by R. Po-Chia Hsia (Ithaca: Cornell Univ. Press, 1988).
- _____, “Nuns, Wives and Mothers: Women and the Reformation in Germany,” *Women in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Europe: Public and Private Worlds, ed. by Sherrin Marshal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9).

Witte, John Jr., "The Reformation of Marriage Law in Martin Luther's
Germany: Its Significance Then and Now," *Journal of Law
and Religion*, vol. 4, no. 2 (1986).

———, "Honor Thy Father and Thy Mother? Child Marriage and
Parental Consent in Calvin's Geneva," *The Journal of
Religion*, vol. 86, no. 4 (October 2006).

Wyntjes, Sherrin, "Women in the Reformation Era," *Becoming Visible:
Women in European History*, eds. by Renate Bridenthal and
Claudia Koonz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Zophy, Jonathan W., "We Must Have the Dear Ladies: Martin Luther
and Women," *Piestas et Societas: New Trends in
Reformation Social History*, eds. by Kyle C. Sessions and
Phillip N. Bebb (Kirk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ress,
1985).



ABSTRACT

French Reformation and Huguenot Women

- A study on Charlotte Arbaleste -

Hyogeun PAHK

Major in Western History

Dept. of History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women in the early modern Europe experienced the Reformation, through a case of Charlotte Arbaleste (1550-1606), wife of Philippe Duplessis-Mornay (1549-1623) and author of *Mémoires de Madame de Mornay*. The memoirs of Arbaleste generally used as the sources to inquire into Mornay's political career, or to observe the French civil wars in sixteenth century. However,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this memoirs to explore remarkable dynamics between the French Reformation and Huguenot women.

Originally, Reformation was the revolutionary attempt to restore spiritual liberty and equality for every Christian men and women by means of their religious principles, such as 'justification by the faith only' and 'priesthood of all believers.' Consequently, women's public involvements increased to a certain degree during early Reformation era. Nevertheless, reformers like Luther and Calvin still considered women as weaker and inferior creature than men. These conventional

understandings for women gradually reinforced when reformational novelties had faded with institutionalization and social discipline in later reformation. The patriarchy firmly settled into Reformation Europe, and public arena was reserved exclusively for male members of society.

Women's experiences in Reformation, however, varied throughout places and times. Sometimes women's involvements of Reformation led to radical alterations of their life. French Reformation, which was marked by violence and massacre, was as such. French women who decided to be Huguenot should overcome severe oppressions threatening their life. Consequently, French Huguenot women ought to be active and determined to establish their religious identities. Huguenot women's enterprising spirits, however, could be criticized by the reformer, who denied women's social engagement.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between French Reformation and Huguenot women would be called as 'paradox.'

The memoirs of Charlotte Arbaleste offers great opportunities to examine how Huguenot women surmounted this paradox. Arbaleste, who was born in Paris, defined her Huguenot identity unto herself during the vicious moments in Massacre of Saint-Bartholomew. After she was married Duplessis-Mornay, Arbaleste concentrated her efforts on the duties of wife such as raising children and maintaining her household. At the same time, Arbaleste took an active part to assis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Huguenot community using women's networks during French wars of religion. Resultingly, Mornay and Arbaleste's family stood in the vanguard to progress Calvinist movement in France. Therefore, Charlotte Arbaleste would be a exemplary case to attest how Huguenot women synthesized three different fields like religious devotion, women's vocation and social engagement.

To this point of view, chapter two was dealing with Luther and Calvin's patriarchal standpoints of women and family. Chapter three interpreted the peculiar background of French Reformation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parisian huguenot commun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guenot women's paradox. These macroscopic approaches of first two chapters were reconstituted microscopically through the case of Arbaleste in chapter four and chapter five. This attempt could prove that some huguenot women including Arbaleste achieved a distinct success to overcome women's submissive position and to reconstruct their family life as means of social engagement. As a result, Arbaleste's experiences in French Reformation and wars of religion can be a clue to perceive the diverse roles of women and family in reformation era.

